

국립국어원 2015-01-28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97-0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

이정희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연구 책임자: 이정희(경희대학교)

연구 책임자 이정희

공동 연구원 김은애, 김현진, 심상민, 송금숙, 이보라미

연구 보조원 장문정, 정미향, 김지혜, 이정민, 이소연

연구 협력 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례

I. 연구 과제 개요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추진 체계	2
3. 연구 추진 일정	3
4. 연구 추진 경과	4
II.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5
1. 읽기 교육 이론 및 연구 동향	5
2. 국내외 읽기 교육과정 분석	13
III. 한국어 읽기 교육 동향 및 요구조사 분석	34
1. 한국어 읽기 교재 분석	34
2. 한국어 읽기 교육 현황 및 요구조사 분석	37
IV.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내용	52
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방향	52
2.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원리	54
3.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내용	58
3.1. 성격	58
3.2. 목표	59
3.3. 등급 체계	61
3.4. 교육 시간	61

3.5. 내용 체계	63
3.6. 등급별 성취 기준	67
3.7. 등급별 내용 기술	69
3.8. 등급별 교수 방안	76
3.9. 등급별 평가 방안	83
V.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	86
1. 사실적 이해를 위한 읽기	86
2. 추론적 이해를 위한 읽기	91
3. 비판적 이해를 위한 읽기	96
4. 감상적 이해를 위한 읽기	102
VI.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실제	110
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적용	110
1.1. 등급별 성취 기준 활용 방안	110
1.2. 등급별 내용 활용 방안	115
1.3. 읽기 교육과정 활용 방안	123
2.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 및 개작 방안	127
2.1.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 기준	127
2.2. 한국어 읽기 자료 개작의 유의점	130
2.3. 한국어 읽기 자료의 개작 방법	131
2.4. 한국어 읽기 자료 개작의 예	132
부록 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등급별 텍스트 유형	145
부록 2. 한국어 읽기 교육의 유의 사항 및 지침	169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문 초록>

한국어교육에서의 읽기는 다른 언어 기능을 신장시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통해 정보를 수용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능이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읽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학습자의 요구가 함께 증대되면서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읽기 교수법, 교재 개발, 텍스트 분석 등에 국한되어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한국어 교사가 실제 읽기 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표준으로 삼을 만한 읽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읽기 교육과정의 부재에 관한 문제는 국내 교육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의 전공·교양 강좌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제도권 내의 국외 한국어교육은 최근에는 초·중등학교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복합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내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는 한국어를 아시아 5대 언어 중 하나로 선정, 전략 언어군에 포함시키고 호주 전역에 있는 42개의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했다. 프랑스에서도 현재 한국어를 제2, 제3 외국어로 채택하는 고등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 스리랑카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늘고 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국외 한국어교육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읽기 교육은 한국어 입력의 증대 및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진행되는 읽기 수업에서는 적절한 교육과정 없이 교육의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지역이나 기관마다 비체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방식으로 읽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및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이 개발된 바 있다(국립국어원

2010, 2011(책임 연구원: 김중섭)).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는 영역별로 도달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어교육 경험이 부족한 기관이나 교사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읽기 영역의 구체화된 교육과정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한국어 읽기 분야의 공통 참조 기준이 되는 표준 읽기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읽기 교육에 관한 최근의 이론과 연구들을 살펴보고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을 기반으로 국내외 한국어 읽기 분야의 공통 참조 기준이 되는 표준 읽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표준화된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다양한 읽기 교재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 교사,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분석을 토대로 현재 한국어 읽기 교육의 현황과 다양한 요구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국내외 읽기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읽기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의 읽기 교육은 읽기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맥락을 스스로 인식, 적용하고 조절해가며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길러내는 것과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고 자발적인 읽기 습관을 기르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어휘와 문법,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식적 측면의 내용을 실제 응용하는 읽기 기술 및 전략도 필요하다. 여기에 읽기와 관련된 정의적 요소인 태도 범주도 포함하여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지식, 방법(기술 및 전략), 태도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마련한 연구로 교육과정 개발자나 교재 개발자, 현장의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Curriculum Development for Korean Reading Education

<Abstract>

Reading education requires a systematic approach as reading skil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not only increase other language skills which improve overall communicative skills, but language learners also acquire the most information through reading.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reading education and the needs of learners, along with an increase in relevant research within this field. However, most researches are limited to discussions of teaching reading skills, textbook development, and text analysis; and therefore, there is a gap regarding what teachers can apply in the classroom and lack of research regarding reading curriculum. The absence of such reading curriculum is not only limited to local educational institutes within Korea. The current state of Korean education has transitioned from being offered in major and elective courses within universities to the implementatio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the case of Canada, as part of the multicultural policy, Korean language is included with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Australia has chosen Korean language as one of the top five Asian languages along with its inclusion within special sub-languages, and therefore, offers Korean language classes within the curriculum of 4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addition, high schools in France are currently increasing its acceptance of Korean language as a second or third language, and a growing number of high schools that provide Korean education in Southeast Asia such as Thailand and Sri Lanka are increasing. Another interesting feature of Korean education overseas is

that there are growing numbers of groups where the levels of interests of learning Korean are beyond interests in the language or culture. This indeed, is an opportunity for overseas Korean learners to increase their input of Korean through reading education and acquire indirect knowledge of Korean society and culture. Although there are needs for strateg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regarding a consistent and systematic Korean reading education, due to the lack of a proper reading curriculum within Korea and overseas, each region or institute have been providing an unsystematic and mutually independent education for reading in terms of format and content.

Previous research has developed a Standard Curriculum Mode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se with aims for a systemat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Korean education within Korea and overseas (Kim et al., 2010, 2011). However, within the standard curriculum mode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se, although the achievable goals and educational contents are provided by levels and skills, difficulties for less-experienced Korean language teachers or institutes to develop detailed Korean reading curricula or educational measures may exist. Thus, in order for a systematic and reliable development of Korean reading education through a standard model, there is an immediate urgency for developing a standard reading curriculum with common reference criteria to be used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This study aims to discuss recent research and theories regarding Korean reading education, and to develop a standard curriculum for reading education with common reference criteria based on the Standard Curriculum Mode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se. First, the study aimed to find the process and methods for developing a standard reading curriculum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 In addition, a variety of reading text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xtbooks were analyzed. Furthermore, the current state of Korean reading education and a variety of needs were analyzed based on a needs analysis of educational institutes, teachers and learners. Throughout this process, a curriculum for reading education applicable to any educational context within Korea and overseas was developed.

In conclusion, the aims for read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to train learners to better apply reading skill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and raise context awareness so that they can apply and control their reading skills to become active constructors of meaning, better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reading activities. From this perspective, the knowledge system of the curriculum of Korean reading education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knowledge, method, and attitude. In terms of knowledge, students require a certain level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vocabulary, grammar and sentence structures in order to read and comprehend texts. Methods refer to the actual application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hich divide into subcategories of reading skills and strategies. Finally, additional affective features were added under the category of attitud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urriculum for Korean reading education along with developing approaches and solutions for application, and is expected to be effectively utilized by curriculum developers, textbook developers or teachers in the field.

I. 연구 과제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어교육에서의 읽기는 다른 언어 기능을 신장시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통해 정보를 수용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요한 언어 기능이다. 최근 이러한 읽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읽기 교육과정 구축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읽기 교육은 한국어 입력의 증대 및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읽기 교육은 매우 큰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¹⁾ 그러나 다양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읽기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교사가 읽기 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표준으로 삼을 만한 읽기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이나 기관마다 교육의 형식적·내용적 측면이 비체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방식으로 읽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읽기 교육 관련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읽기 교수 이론을 차용한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읽기 수업을 위한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교재 개발, 텍스트 분석 등 미시적 차원의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으며 읽기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기초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외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 읽기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표준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는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및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1단계(2010), 2단계(2011))이 개발된 바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는 언어 지식과 언어 기능의 각 영역별로 도달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어교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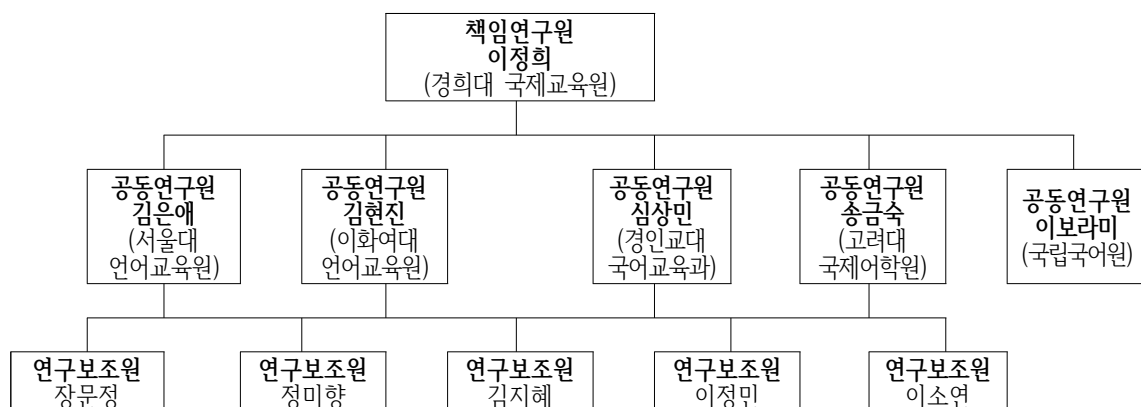
1) 현재 제도권 내 국외 한국어교육은 대학의 전공·교양 강좌 중심이었던 한국어교육이 초·중등학교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 집단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송향근, 2009).

경험이 부족한 기관이나 교사의 경우 국제 통용 표준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언어 기능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모형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한국어 읽기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 참조 기준이 되는 표준 읽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읽기 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읽기 교육에 관한 최근의 이론과 연구들을 살펴보고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010, 2011)을 기반으로 국내외 한국어 읽기 분야의 공통 참조 기준이 되는 표준 읽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표준화된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읽기 교재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 교사,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분석을 토대로 현재 한국어 읽기 교육의 현황과 다양한 요구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합해 국내외 읽기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읽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의 연구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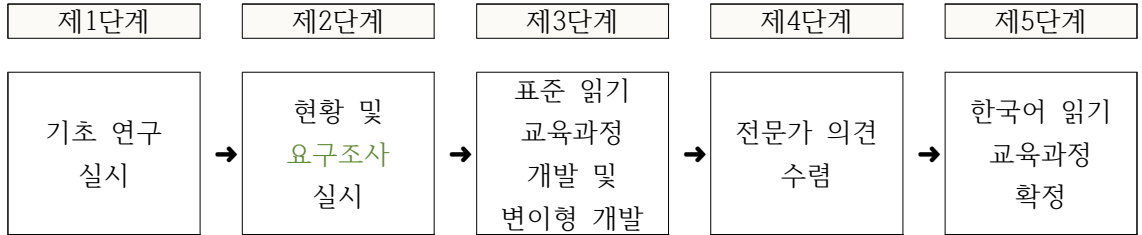


3. 연구 추진 일정

구분	연구 내용	연도/월	2015년							
			5	6	7	8	9	10	11	12
사업 착수	연구 개발 착수 회의 및 연구 협의회 구성									
착수보고회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기초 조사	한국어 교재 및 읽기 교재 분석									
	한국어 읽기 교육 이론 및 연구 동향 조사									
	한국어 교육기관 읽기 교육 운영 현황 조사									
교육과정 개발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적·형식적 틀 설정									
	읽기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설정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기술 범주 설계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설계									
변이형 개발 및 개작 지침 개발	읽기 교육과정의 변이형 개발									
	읽기 교육 자료를 위한 텍스트 개작 지침 개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학회 발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읽기 교육과정 개발 검토									
	학회 발표(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문제점 보완 및 수정	중간 보고회 자문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정									
교육과정 확정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확정 및 변이형 제시									
결과 보고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연구 추진 경과

4.1. 연구 절차



<표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절차

4.2. 연구 추진 경과

○ 연구 추진 기간

- 2015년 6월 4일 ~ 2015년 12월 10일

○ 주요 일정

- 2015년 5월 19일: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 개발 연구 제안 발표회
- 2015년 6월 12일: 착수보고회
- 2015년 5월 ~ 6월: 국내외 읽기 교재 및 연구 동향 조사·분석
- 2015년 7월 ~ 8월: 현황 조사 및 요구 분석(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 교사, 학습자 대상)
- 2015년 9월 ~ 10월: 표준 읽기 교육과정 개발, 변이형 개발, 개작 지침 개발
- 2015년 10월 13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15년 11월 7일: 이종언어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 2015년 11월 ~ 12월: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확정
- 2015년 12월 10일: 최종보고서 납품

II.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1. 읽기 교육 이론 및 연구 동향

1.1. 읽기 교육 관련 이론

읽기 교육은 수동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상호적이며 능동적인 기능이라는 측면으로 개념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즉 목적과 기대를 갖고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것으로 읽기 교육의 목표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외국어 읽기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정보 처리 이론과 인지과정 이론, 그리고 초인지 이론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정보 처리 이론은 모국어 독해 과정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읽기 과정을 상향식 정보 처리 과정, 하향식 정보 처리 과정, 상호작용적 처리 과정으로 나눈다. 상향식 정보 처리 과정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의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부터 구, 문장, 단락 등 좀 더 큰 단위로 텍스트를 분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상향식 정보 처리 과정은 읽기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하향식 정보 처리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읽기 자료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 읽기를 ‘심리 언어학적 추측 게임’이라고 지칭했던 Goodman(1967)은 읽기 학습에서 학습자는 능동적 참여자로서 예측하기(predicting), 추출하기(sampling), 확인하기(conforming), 수정하기(correcting)의 과정을 거쳐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읽기 과정은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이론 모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읽기 과정에는 학습자의 가정과 추측, 언어 확인이 동시에 작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두 번째는 인지 과정 이론이다. 인지 과정 이론은 앞서 언급한 정보 처리 이론과는 다르게 인간의 인지에 중점을 두고 읽기 과정을 설명한다. 인지 과정 이론에서는 ‘스키마(schema)’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한 다양한 지식 구조를 의미한다. 인지 과정 이론은 형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형식 스키마는 글의 형식 정보, 즉 글의 유형 및 구조적 패턴이나 담화 표지에 대한 지식 구조를 의미한다. Carrell(1984a)은 학습자들은 학습자들

의 모국어와 비슷한 구조의 텍스트와 인과 관계 및 문제-해결 구조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텍스트를 더 쉽게 이해한다고 밝히며 형식 스키마를 이용한 텍스트의 학습이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텍스트의 형식과 구조를 중시하는 형식 스키마와 달리 내용 스키마는 배경 지식이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내용 스키마는 텍스트의 주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습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배경 지식과 교사가 읽기 전 활동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모두 의미한다. 또한 내용 스키마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목표 언어권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 텍스트 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읽기 교육에 문화 교육이 동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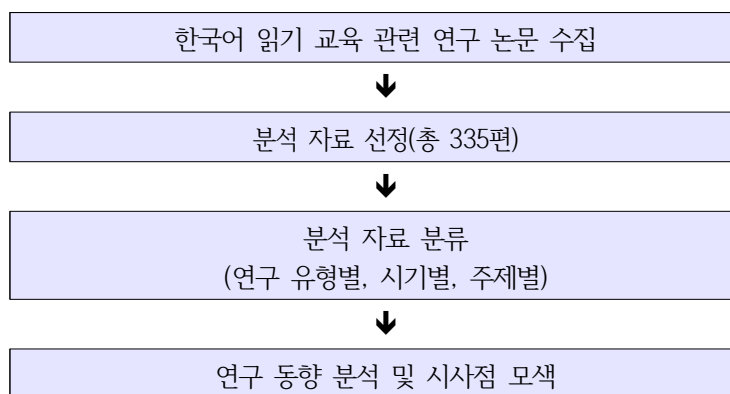
마지막은 초인지 이론으로 초인지란 사고 과정이나 전략에 대한 지식과 사고 과정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하는 매우 복잡한 지적 작용을 의미한다. 초인지 이론에는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 과제 수행을 점검하는 준거, 학습자가 사용하는 읽기 전략 등에 대한 인식이 모두 포함된다(Garner, 1987). 보통 초인지 이론은 인지에 대한 지식과 자기 통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여기서 뜻하는 지식은 텍스트의 모순이나 오류를 알아내는 것과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맞는 적합한 읽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면, 지식과 대비되는 통제는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읽기 전략이나 학습 전략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전략을 적절하게 조정해 가는 능력 역시 포함한다.

제2언어 교육에서의 읽기 교육 이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인지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지 이론의 경우 한쪽 방향으로의 읽기를 주장했던 정보 처리 이론에 비해 하향적, 상향적 전략을 상호 작용적으로 작동시켜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한다. 읽기 이론에 대한 논의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읽기 학습이 수동적인 지식의 수용이나 학습자의 구어 능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언어 기술이 아닌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축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읽기 교육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은 일반 목적의 국내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문적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한국어교육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읽기 교육은 수동적 이해의 영역으로

‘문법’, ‘말하기’, ‘듣기’ 등의 다른 언어 기능에 비해 그 논의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등 특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읽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들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읽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 증대와 다양한 요구와 맞물려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현재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 주제 역시 읽기 교육 방법, 읽기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읽기 교재 및 교육자료, 읽기 텍스트 및 평가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권혜경, 2010).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읽기 교육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335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한국어 읽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에 나타난 쟁점 및 과제를 모색하였다.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 동향 분석 절차

1.2.1. 유형별·시기별 연구 동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읽기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된 총 연구의 수는 모두 335편으로 이 연구들 중 읽기 교육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읽기 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힌 김경숙(1983)이다. 연구 시기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읽기 교육에 대한 첫 번째 연구가 발표된 1983년부터 2000년대까지 14편, 2001년부터 2010년까지가 141편, 그리고 전체 읽기 관련 논문에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불과 4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의 수는 180편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불과 한 해에 10편 남짓 발표되던 읽기 학습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후반에는 연간 20편에 가깝게 발표되고 2010년대 이후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수 증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인한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 증가,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의 활성화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인한 학문 목적 학습자의 증가는 대학에서의 학문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읽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연도	~2000년	2001년~2010년	2011년~2015년	총계
학위 논문	5	77	120	202
학술지 논문	9	64	60	133
총계	14	141	180	335

<표2>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 수(유형별·시기별)

1.2.2. 주제별 연구 동향

주제별 읽기 교육 연구 동향은 읽기 교육의 표준 모형 확립과 교육 자료 개발의 학문적 근거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먼저 연구 주제에 따라 읽기 연구의 경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우인혜(2005), 이경화(2005), pang(2008), 심상민(2009), 권혜경(2010)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 중 심상민(2009)은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를 7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텍스트의 중심 내용 이해와 교수 과정에 대한 연구 주제가 절반이 넘고 그 다음으로 담화 조직과 텍스트 이해에 관한 연구가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²⁾ 반면 권혜경(2010)의 경우 연구 주제를 교육 방법, 교육과정 및 교재, 그리고 텍스트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권혜경(2010)에서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약 60%,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약 15%,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읽기 동향 연구의 가장 최근의 자료인 권혜경

2) 심상민(2009)에서는 읽기 학습의 연구 주제를 ‘읽기 발달에서 단어 차원의 논의’, ‘담화 조직과 텍스트의 이해’, ‘글의 요지 이해와 교수 과정’, ‘다독과 동기 부여’, ‘L2 환경을 고려한 주제’, ‘읽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맥락’, ‘읽기 평가’의 7가지로 세분화하였다.

(2010)에서 제시된 주제 분류법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를 더해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주제	소주제
교육 방법	• 외국어 교수법이나 학습 이론 • 읽기 전략 • 읽기 교수-학습 방안 • 읽기 수업 모형 • 문화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	•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 교재 개발 • 교육 자료 개발
텍스트 및 평가	• 텍스트의 개발, 분석, 수정 • 읽기 평가 도구 개발 및 적절성 분석

<표3>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 주제

1) 교육 방법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은 읽기 수업의 교수·학습에 관한 내용으로 학습 이론, 교수법, 수업 모형,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 읽기 학습 이론은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인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인지 과정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강명순(1999), 심상민(2001), 김미옥(2008) 등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읽기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읽기 교수·학습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어 읽기 교육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받는 김경숙(1983)에서는 바람직한 읽기 교수법으로 청각구두식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읽기 교육 현장에는 맞지 않는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읽기 교육의 가장 보편적인 교수 방법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정희·김지영(2003)에서는 내용 중심 언어 교수법을 바탕으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과 평가로 나누어진 읽기 수업의 구성과 수업의 실재를 보여 주었다. 또한 김중섭(2002)에서는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학습

자 활동이 중심이 되는 읽기 수업 방식을 제안하며 읽기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읽기 교육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문희영(2000)은 인지 이론 중 하나인 스카마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다혜(2007)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마인드맵을 활용한 읽기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염혜경(2008)은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김다혜(2007)나 염혜경(2008)과 같이 대부분의 읽기 교육 모형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이 중·고급, 특히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모형 개발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등급의 학습자들과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들을 아우르는 읽기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techniques)이나 장치(devices)인 전략 관련 연구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략을 주제로 하는 연구의 경우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읽기 전략과 읽는 방법에 변화를 두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략에 대한 연구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텍스트 이해를 위한 읽기 전략을 살펴보면 윤경희(2003), 이정선(2007)에서는 읽기 이론 중 하나인 초인지 전략을 활용한 읽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준성(2010)은 학습자들의 숙달도에 맞춰 적용 가능한 읽기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손경숙(2010) 역시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훈련과 학습 결과 분석에 대한 연구로 전략의 효용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반면 읽는 방법을 달리하여 텍스트에 접근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소집단 읽기(오경숙, 2007; 나재진, 2009), 확장형 읽기(김정하, 2007; 우형식, 2008), SQ3R읽기(박미희 외, 2006; 송경진, 2014) 등이 연구되었다. 마지막으로 홍은실(2015)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읽기 전략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서 읽기 교재를 분석하여 초인지 전략과 보조 전략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읽기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초인지 전략과 보조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균형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으로서의 읽기 교육과 문화 교육의 연계를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먼

저 김해영(2008)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를 분석한 후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다뤄야 할 문화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읽기 텍스트를 통한 문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보라(2009)에서는 전래동화를 통한 문화 중심 읽기 수업 방안에 대해 연구했으며 이결(2013)은 소설 텍스트를 활용해 한국의 가치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교육과정 및 교재

읽기 교육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윤정아(2012)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수요목 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은진(2015)은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은진(2015)은 한국어 읽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이론적·실제적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존의 한국어 읽기 교육의 많은 연구들이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해 논의되었던 것과는 상반되게 초·중·고급의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연구인 이은진·권연진(2010)에서는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실제적 준거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 기준을 수준별로 제안하였다. 반면 김경현(2015)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와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전공에 밀접한 주제와 내용의 텍스트 선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다 더 정교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읽기 교육과정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어의 읽기 기능이 독립적인 수학의 영역으로 인식되지 못하는바 지금까지의 읽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어 읽기 교재에 대한 연구는 읽기 교육 연구의 초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운(2003)을 시작으로 임은정(2004)에서는 읽기 교재의 단원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임정남(2005)는 초급 읽기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급 읽기 교재 개발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읽기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김윤희(2010)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 중심 읽기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고 김규인(2014)는 미국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중심 읽기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읽기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로는 김향미(2003), 한미니(2014) 등이 대표적이다. 김향미(2003)는 아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과서 외 언어 학습 자료로서의 읽기 자료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읽기 자료를 선정하여 목록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또한 한미니(2014)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에 익숙해지기 전에 한국 생활에 통용되는 한국어 자료를 익힘으로써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초급 한국어 교재 활동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시각 자료를 활용한 읽기 자료를 개발했다. 또한 김정숙(2006)에서는 고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자료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우형식 외(2011)에서는 확장형 읽기 활동을 위해 한국어 읽기 자료를 선정하고 등급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정희·장문정(2015)에서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을 통해 다독 수업용 읽기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재는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텍스트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문화적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텍스트 및 평가

마지막으로 텍스트와 평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텍스트 개발에 있어 개선점을 제안한 연구로는 장문정(2007)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를 주제별, 유형별, 길이별로 분석하고 읽기 교육이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성 있는 텍스트가 실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읽기 텍스트 선정의 조건을 제시한 연구로는 유해준(2008), 송수희(2009), 이종진(2009), 시가영(2014) 등이 있다. 또한 텍스트의 난이도 결정 요인과 난이도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구민지(2012), 장미경(2012), 유혜숙(2014) 등이 있다.

한편 평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진옥(2012)는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평가 문항 내용의 타당도를 분석하였고 이상린(2012)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 평가

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임선희(2014)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평가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읽기 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어 읽기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들이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목적과 다른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읽기 텍스트를 통한 지식의 습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읽기 교육 관련 연구가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읽기 교육은 한국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전파와 이해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가 특정 목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은진(2015)과 한미니(2014)에서 한국어의 모든 단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논의한 것과 같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인 읽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읽기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학습자 변인과 교육 기관을 고려한 읽기 교육 모형과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인해 특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 교육과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도 학습자 집단이 다양화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학습 수요의 편차가 크며 다양한 변화의 양상과 정도를 보이고 있다(송향근, 2009). 따라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학습 상황에 처한 국내외 학습자들을 일률적인 읽기 교재와 텍스트로 교육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습자 변인과 지역의 환경 변인을 고려하여 유동적이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읽기 교육 모형과 교육 자료의 개발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2. 국내외 읽기 교육과정 분석

한국어 읽기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읽기 교육과정 및 언어능력 평가 관련 문헌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표준 읽기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1. 분석 자료

분석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및 언어 능력 평가를 국내와 국외에서 적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나누고 각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한 등급별 성취 기준을 살펴보았다.

1) 국내 교육과정 및 평가

-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 다문화 배경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과 교육과정(KSL)
- 국어과 교육과정
-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 국외 교육과정 및 평가 자료

-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 미국 National Standards(외국어 교육 표준안) 5Cs
- 외국어 읽기 교육과정(Washington State, Ontario State 등)
-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와 한국어를 공인 시험으로 치르는 나라의 한국어 시험 목표 기술(프랑스, 호주, 일본 등)
-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정

2.2. 분석 내용

2.2.1. 내용 체계

1) 국내 교육과정 및 평가 자료

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보급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2010, 2011)은 국내외 한

국어 교육기관의 상호 독립적이고 비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의 상호 교환적 운영과 비전문가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설계한 표준 교육과정이다(김중섭 2014). 이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크게 주제, 언어 기술, 언어 지식, 문화로 나누고 그에 대한 하위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읽기’는 언어 ‘기술’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 ‘텍스트’는 언어 ‘지식’의 하위 요소로 두어 언어의 사용적 측면에서의 읽기와 지식적 측면에서 읽기의 재료로 쓰이는 텍스트를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급 기술 영역	하위 요소
주제	화제
언어 기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과제
언어 지식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문화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

<표4>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나. 한국어과 교육과정(KSL)

교육부에서 2012년에 고시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내 정규과정인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교과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과 교육과정(KSL)의 내용 체계에서는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영역으로 나누어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의 하위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문화 의식과 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어과 교육과정(KSL)의 내용 체계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사용적 측면인 기능으로서의 읽기와 지식적인 측면인 언어 재료로서의 텍스트를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언어 재료의 하위에 어휘, 문법, 주제,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생활 한국어	◎ 학습 한국어
언어 기능	언어 기능
▪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언어 재료	언어 재료
▪ 주제·의사소통 기능 ▪ 어휘·문법·발음 ▪ 텍스트 유형	▪ 국어·수학·사회·과학 - 주제별 핵심 어휘 ▪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
문화 의식과 태도	
▪ 문화 인식·이해·수용 ▪ 긍정적 자아 정체성·공동체 의식	

<표5> 한국어과 교육과정(KSL) 내용 체계

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어과 교육과정은 자국어로서의 국어에 관한 교육내용을 다룬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영역의 하위 요소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두고 이들 영역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각 영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기쁨으로써 읽기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식의 범주에는 읽기의 본질과 특성, 글의 유형, 맥락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기능에서는 내용 확인, 추론, 평가나 감상,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등 읽기의 목적 및 전략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태도 범주에는 읽기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정서적인 변화나 태도에 대한 항목을 설정해 두고 있다.

지식	기능	태도
▪ 읽기의 본질과 특성 ▪ 글의 유형 ▪ 글의 맥락	▪ 낱말 및 문장의 이해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가치와 중요성 ▪ 동기와 흥미 ▪ 읽기의 생활화
실제		
◎ 다양한 목적의 글 읽기 ▪ 정보를 전달하는 글 ▪ 설득하는 글 ▪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 읽기와 매체		

<표6>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읽기의 본질, 글의 유형, 읽기의 과정과 방법, 읽기의 태도)과 읽기와 관련된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하위 범주에 따라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각 영역이 추구하는 통합적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기능은 맥락 이해하기, 내용 확인하기, 추론하기, 비판하기 등이 있다.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 학년	3~4 학년	5~6 학년			
읽기의 본질	읽기는 읽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 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 회적으로 소 통하는 행위 이다.			·의미 구성 과정	·문제 해결과정	·사회적 상호작용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읽기와 매체	의 사 소 통 의 목적,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글 유형이 있으 며, 유형에 따라 읽기의 방법이 다르 다.	·글자, 낱말, 문장, 짧은 글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사회 문화적 화제 ·친숙한 화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사회 문화적 화제 ·글과 매체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사회, 문화적 화제 ·한 편의 글과 매체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분야의 다양한 화제 ·한 편의 글과 매체	·맥락 이해 하기 ·몰입하기 ·내용 확인 하기 ·추론하기 ·비판하기 ·성찰/공감 하기
·읽기의 구성 요소 -독자, 글, 맥락 ·읽기의 과정 ·읽기의 방법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독자는 배경 지식을 활용 하며 읽기 목적과 상 황, 글 유형 에 따라 적 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 하여 능동적 으로 글을 읽는다.	· 소 리 내 어 읽기 · 띄 어 읽기 · 내 용 확인 ·인물의 처 지 , 마 음 잡작하기	·중심생각 파악 · 내 용 간추리기 ·추론하며 읽기 ·사실과 의견의 구별	·내용 요약 [글의 구조] ·주장이나 주제 파악 ·내용의 타당성 평가 ·표현의 적절성 평가 ·매체 읽기	·내용 예측 ·내용 요약 [읽기 목적, 글의 특성] ·설명 방법 파악 ·논증 방법 파악 ·관점과 형 식의 비교 ·매체의 표현 방법, 의도 평가 ·참고 자료 활용	·관점과 표현 방법의 평가 ·비 판 적 , 문제 해결적 글 읽기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통합/적용 하기 ·독서 경험 공유하기 ·점검/조정 하기

이해 -읽기 과정의 점검				방법의 적용	·한 편의 글 읽기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읽기의 태도 -읽기 흥미 -읽기 생활화	읽기의 가치 를 인식하고 자발적 읽기 를 생활화할 때 읽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읽기에 대한 흥미	·경험과 느낌 나누기	·읽기 습관 점착하기	·읽기 생활화하기	·자발적 읽기	

<표7>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

라.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의 과목을 대상으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 심화 과목(회화, 독해, 작문, 문화)의 교육내용 다룬다.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대범주로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을 분류하고 있으며, 언어적 내용의 하위로는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를 두어 각각의 하위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읽기는 언어 기능의 하위로 어휘 및 표현, 문법은 언어 재료의 하위에 포함된다. 또한 문화적 내용의 대범주 안에는 일상생활 문화, 언어문화,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다.

영역	내용	
언어적 내용	언어 기능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균형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내용 제시
	언어 재료	· 발음 및 철자(문자): 발음 및 철자(문자)에 관한 내용 제시 · 어휘: 고등학교 일반 과목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300단어 내외를 이수 ·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사용된 문법 사항 참고 · 의사소통 기본 표현: 기초 외국어 학습에 적절한 내용
문화적 내용	· 해당 외국어 언어권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 · 해당 외국어 언어권의 언어문화와 관련된 내용 · 해당 외국어 언어권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	

<표8>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마.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2010년에 이루어진 교육부의 정책연구로 해외에 있는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될 범용적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기술의 범위를 언어 기능과 언어 지식, 문화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하위 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읽기는 언어 네 기능의 한 부분으로 어휘, 발음, 문법은 언어 지식의 범주에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지식과 이해는 문화의 범주 안에서 기술되고 있다.

내용 기술 범위								
언어 기능				언어 지식			문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어휘	발음	문법	문화 지식	문화 이해

<표9>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편 이전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는 언어 지식으로서의 ‘어휘 및 문법’, 언어 기능의 하위 범주로서의 ‘듣기’, ‘읽기’, ‘쓰기’로 평가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평가 영역을 간소화하여 ‘어휘·문법’영역을 폐지하고 기존의 어휘·문법 평가 영역을 읽기 기능에서 일부 흡수하였다. 이러한 체제 개편의 의도는 어휘·문법에 대한 평가가 읽기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읽기의 재료에 해당하는 어휘, 문법, 텍스트와 같은 지식적 측면의 요소들이 의사소통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구성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평가 영역		언어 지식	언어 기능		
	개편 이전	어휘 및 문법	듣기	읽기	쓰기
	개편 후	-폐지-	듣기	읽기	쓰기

<표10> 한국어능력시험(TOPIK) 내용 체계

2) 국외 교육과정 및 평가 자료

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은 유럽 전체에서 교재 집필자, 교수법 전문가, 교사, 교사 양성 및 재교육 담당자, 평가 전문가 등이 수업 계획, 교육 과정, 교재, 언어 평가를 개발할 때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40개 국가 외국어 전문가들의 경험과 토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다.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서는 언어 사용의 맥락, 의사소통의 주제, 의사소통 과제와 목표, 의사소통 활동과 전략, 의사소통적 언어처리 과정, 그리고 텍스트로 내용 체계를 설정하고 각 범주에 하위 범주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읽기 영역에 대한 내용은 의사소통의 활동과 전략 범주에서의 수용 활동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텍스트의 종류와 활동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내용 체계	하위 요소
언어 사용의 맥락	생활 영역, 상황, 조건과 제약, 언어사용자와 학습자의 정신적 맥락, 대화 상대자의 정신적 맥락
의사소통의 주제	주제 영역별 하위 범주
의사소통 과제와 목표	과제 유형과 목표(유히적/미학적)
의사소통 활동과 전략	산출 활동과 전략, 수용 활동과 전략, 상호행위 활동과 전략, 언어중개활동과 전략, 언어외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적 언어처리과정	계획과 실현, 통제(모니터링)
텍스트	텍스트의 종류와 활동

<표11>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내용 체계

나. 미국 National Standards 읽기 교육과정

미국의 외국어교육 표준안(National Standards)은 5Cs를 미국의 외국어교육이 달성해야 할 표준으로 설정하고 외국어 교육자들로 하여금 이 표준안을 어떻게 그들의 교과 과정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모델 학습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5Cs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성(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지역사회(Communities)를 말한다.

5Cs				
의사소통 Communication	문화 Cultures	연계성 Connections	비교 Comparisons	지역사회 Communities

<표12> 미국 National Standards 내용 체계

다.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정책연구로 이루어진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육 과정, 한국사 교육과정, 한국문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어교육 영역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으로 나누고 그에 대한 내용 체계로 지식, 태도·가치, 기능 등을 두고 있다. 교육 대상의 특성상 여타 교육과정과 달리 인지적, 정의적, 운동·기능적 영역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며, 지식, 태도 및 가치, 기능과 같은 내용 요소의 분류는 국내의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영역	· 인지적 영역	· 정의적 영역	· 운동·기능적 영역
내용	· 지식	· 태도·가치	· 기능

<표13>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정 내용 체계

2.2.2.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성취 기준

1) 국내 교육과정 및 평가 자료

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은 초급(1-2급), 중급(3-4급), 고급(5-6급), 최상급(7급)의 7단계로 등급을 분화하여 각 등급별 성취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총괄 목표와 읽기 영역의 해당 등급별 목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등급 구분		성취 기준
초급	1급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 일상적인 화제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며, 요일, 시간, 장소 등의 기본적인 화제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구, 절 단위 혹은 짧은 문장 단위의 매우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주변 사물과 장소 등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모의 음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 기본 문장의 억양을 원어인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읽기> 1. 자주 접하는 표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2.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장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급	슈퍼, 식당 등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자주 접하는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뿐만 아니라 친구, 문제 해결 등의 특정 상황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주제와 관련된 짧고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슈퍼, 식당, 은행, 우체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하여 천천히 발화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읽기> 1.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간단한 안내문이나 광고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중급	3급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별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에 임할 수 있으며, 직업, 사랑, 결혼 등의 비교적 친숙한 사회적 소재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이고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단어 경계를 넘어서 단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개별 음운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나이, 성, 지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읽기> 1. 친숙한 사회적 소재(직업, 사랑, 결혼 등)로 된 글을 읽고 최소한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짧고 간단한 수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급	공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직장 생활 등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업무나 공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 사랑, 결혼 등의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 사자성어, 속담 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음운 변동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원어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읽기> 1. 친숙한 사회적 소재(직업, 사랑, 결혼 등)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구성이 단순하고 내용이 쉬운 소설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고 급	5급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적 소재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사자성어, 속담, 시사용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비교적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억양에 나타난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한국 문화 속에 반영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읽기> 1. 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대체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정치, 경제, 환경, 과학 기술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대체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사회적, 추상적 주제를 다루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나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들로 이루어진 글이나 발표, 토론, 대담을 이해할 수 있다. 예시, 비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으며, 어려운 사자성어, 속담, 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법을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취문화, 제도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읽기> 1. 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정치, 경제, 환경, 과학 기술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최 상 급	7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폭넓은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조율, 협상 등의 다소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발표, 토론, 업무 보고서, 사업 계획서 등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학술 활동과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거의 오류 없이 대부분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별 어려움 없이 어감 차이를 고려하여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성취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읽기> 1. 공적이고 전문적인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대부분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표14>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등급별 성취 기준

이 중 읽기와 관련된 목표 기술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텍스트 주제, 유형, 구성, 장르 등을 예시로 들어 등급별 성취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등급 구분		성취 기준
초 급	1급	1. 자주 접하는 표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2.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장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급	1.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간단한 안내문이나 광고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중 급	3급	1. 친숙한 사회적 소재(직업, 사랑, 결혼 등)로 된 글을 읽고 최소한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짧고 간단한 수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급	1. 친숙한 사회적 소재(직업, 사랑, 결혼 등)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구성이 단순하고 내용이 쉬운 소설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고 급	5급	1. 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대체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정치, 경제, 환경, 과학 기술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대체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1. 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정치, 경제, 환경, 과학 기술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최 상 급	7급	1. 공적이고 전문적인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대부분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표15>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읽기 등급별 성취 기준

나. 한국어 교육과정(KSL)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등급 및 기능별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의 구성 원리와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구성 원리는 다섯 가지의 범주(화제와 장면, 과제와 기능, 언어 단위, 어휘, 언어 조정 능력, 문화 적응 능력)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숙달도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원리				
구성 범주	구성 요소	1급	→	6급
화제와 장면	화제: 친숙도 장면: 일상생활/교수→학습	친숙한 화제와 예측이 가능한 일상생활 장면		낮선 화제와 장면 돌발 상황 및 화제
과제와 기능	과제: 소통적 목적의 과제/학습 목적의 과제 기능: 기본 의사소통 기능/교과 영역에서의 학습 기능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인사하기, 소개하기, 질문/대답하기 등)		교과 영역에서 필요한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비교/대조하기, 기술하기, 설명하기, 논증하기 등)
언어 단위	단어와 어구, 문장, 문단, 담화, 텍스트	단어와 어구, 짧은 문장		담화와 텍스트
어휘	일상생활 어휘/교수·학습 어휘	고빈도 어휘 일상 어휘>교과 학습 어휘 구상적 아이디어와 개념		저빈도 어휘 일상 어휘<교과 학습 어휘 추상적 아이디어와 개념
언어 조정 능력	언어사용 상위인지능력	낮은 상위인지능력		높은 상위인지능력
문화 적응 능력	문화 적응 발달(구체적 문화적 산물 경험, 문화 간 차이 최소화, 다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 인식→ 이해 → 타문화 인식 → 비교 → 상대화 → 수용		

<표16>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의 구성 원리

성취 기준		언어 영역 - 읽기
1단계	초등학교	1.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을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2.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쉬운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3. 시각적 단서와 함께 주어지는 쉽고 간단한 낱말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학교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표지판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중학교	1.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의 글자를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2.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3.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쉽고 간단한 낱말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학교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표지판이나 지시문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1.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을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2.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낱말과 짧은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3.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쉽고 간단한 낱말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학교나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표지판이나 지시문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2단계	초등학교	1.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의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표지판, 지시문, 안내문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4. 교과 시간에 자주 접하는 어휘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중학교	1. 간단한 낱말이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의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표지판, 지시문, 안내문 등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4. 교과 시간에 자주 접하는 어휘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고등학교	1. 낱말이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2.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의 문단 수준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표지판, 지시문, 안내문 등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4. 교과 시간에 자주 접하는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3단계	초등학교	1. 쉽고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알맞게 끊어 읽을 수 있다. 2. 친숙한 주제의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 쉽고 짧은 글을 읽고, 사건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4.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핵심 어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중학교	1. 쉽고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알맞게 끊어 읽을 수 있다. 2.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의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 간단한 글을 읽고 사건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4. 교과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1. 문장을 소리 내어 알맞게 끊어 읽을 수 있다. 2.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의 글을 읽고 주요 정보와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3. 간단한 글을 읽고 사건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4. 교과 내용과 관련된 짧은 글을 읽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단계	초등학교	1. 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낭독할 수 있다. 2. 이야기를 읽고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3.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 교과 내용 중 한두 문단 수준의 글을 읽고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중학교	1. 글의 의미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할 수 있다. 2. 이야기를 읽고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3.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 교과 내용 중 짧고 간단한 설명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고등학교	1.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할 수 있다. 2. 이야기를 읽고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3.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 교과 내용 중 짧고 간단한 설명문을 읽고 핵심
5단계	초등학교	1. 짧고 간단한 글을 읽고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으며 글을 읽을 수 있다. 4. 교과 내용에서 접하는 도표, 그래프 등의 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중학교	1. 간단한 글을 읽고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4. 교과 내용에서 접하는 도표, 그래프 등의 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고등학교	1. 글을 읽고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글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며 읽을 수 있다. 4. 교과 내용에서 접하는 도표, 그래프 등의 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
6단계	초등학교	1. 맥락적 단서를 활용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 2. 이야기를 읽고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다.
	중학교	1. 맥락적 단서나 어휘 분석을 활용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2. 문학 작품을 읽고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3.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고등학교	1. 맥락적 단서나 어휘 분석을 활용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며 읽을 수 있다. 2. 문학 작품을 읽고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3.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다. 4. 다양한 매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표17>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읽기 영역 등급별 성취 기준

다.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단계화하여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읽기 영역과 관련된 학년별 성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읽기 영역 성취 기준
초등학교 1~2 학년	- 한글을 깨치고 읽는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글자라는 약속된 기호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글자를 읽으려는 태도를 길러 읽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초등학교 3~4 학년	- 다양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에 담긴 의미를 추론하는 등 읽기의 기초적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글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초등학교 5~6 학년	- 읽기의 목적과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읽는 능동적인 독자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읽기 목적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고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며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읽기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여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중학교 1~3 학년	-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읽어 내는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을 아는 능동적인 독자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독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독자의 배경 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읽는다. ·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 학교 1학년	-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글이나 매체를 자발적으로 찾아 폭넓게 읽으면서 평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사회적 상호 작용 행위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표18>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등급별 성취 기준

라.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읽기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자-낱말-문장-글의 순으로 성취 기준을 확장하여 간략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읽기	(가) 철자 또는 문자에 대응되는 소리의 체계 또는 음성적 특성을 이해하고 바르게 발음한다. (나) 낱말의 강세를 살려 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한다. (다) 문장의 억양을 살려 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한다. (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장르 및 소재를 파악한다. (마)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글을 읽고 핵심어와 주제를 파악한다.
----	--

<표19>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성취 기준

마.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에서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서 분류한 등급을 근거로 하여 숙달-자립-기초 단계로 언어 단계를 나누고 다시 9단계로 등급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성취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 영역과 관련한 목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숙달 단계	C2	- 거의 모든 종류의 글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추상적이거나 구조가 복잡하거나 매우 구어적인 문학, 비문학 텍스트 포함) - 길고 복잡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때 섬세한 문체적인 차이와 함축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C1	자신의 전문 분야의 글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부분을 여러 번 읽을 수 있다면 길고 복잡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때 섬세한 문체적인 차이와 함축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자립 단계	B2	- 매우 자립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고, 독서 스타일이나 속도를 다양한 텍스트와 목적에 맞추어 적절한 사전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많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는 관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B1+	- 자신의 분야 또는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신문기사, 짧은 이야기, 보고서 등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적인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사실과 태도, 의견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 긴 텍스트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B1	- 자신과 관계있는 업무나 학교생활, 여가 등과 같이 익숙한 주제에 관한 긴 내용의 텍스트를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주 접하는 일상적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 전공 혹은 관심 영역과 관계있는 복잡하지 않은 주제의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일반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읽고 세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상황의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추론해 낼 수 있다. - 특정한 과제를 위해 긴 텍스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을 수 있다.
기초 단계	A2+	- 아주 일반적인 어휘를 포함하는 단순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는 텍스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예)식료품에서 재료, 유통기한 등) - 몇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에서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A2	-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은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단계적으로 기술되었거나 시각 자료가 있는 간단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 짧고 간단한 구조의 이야기(서사 구조)를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짧은 텍스트(엽서, 일기예보 등)에서 특정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공공장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지를 이해할 수 있다.
	A1+	- 익숙한 맥락으로 구성된 텍스트에서 이름이나 수, 값, 시간 등의 개별 어휘와 간단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쓴 편지나 메일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자주 접하는 일상생활에서 짧고 단순한 텍스트의 이름, 수, 단어, 아주 간단한 구조(예) 예약 시간, 출발 시간, 도착지 등)를 이해할 수 있다. • 짧은 텍스트에서 사람과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A1	• 기초적인 단어나 어절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인사, 소개 등 기본적인 내용의 아주 짧은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단순하고 분명한 내용의 텍스트에서 기본 어휘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짧고 간단한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20>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등급별 성취기준

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 영역에 대한 등급별 목표 기술은 다음과 같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텍스트 주제, 유형, 구성, 장르 등을 예시로 들어 등급별 평가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언어 기능	등급별 평가 기준	
읽기	1급	· 간단한 표지나 표지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 짧은 서술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일기, 편지 등 간단한 생활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메모, 영수증 등 간단한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급	·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표지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설명문이나 생활문, 편지글 등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생활하는 데 필요한 광고나 안내문, 영수증 등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3급	· 생활 문화와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생활 문화와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광고나 안내문, 간단한 신문 기사 등의 글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4급	·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계약서, 사용설명서 등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광고나 안내문, 신문기사, 건의문 등을 읽고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수필이나 동화 등의 작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5급	·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비교적 쉬운 시,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신문 기사, 건의문 등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수필, 동화 등의 작품을 읽고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6급	·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다룬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수필이나 소설, 희곡 등의 작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수필이나 소설 등의 작품을 읽고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2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읽기 영역 성취 기준

2) 국외 교육과정 및 평가 자료

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서는 언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능력 수준을 기술하기 위한 척도 체계(총 6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세분화된 6개의 척도는 기초 단계(A1)부터 모국어 수준에 가까운 숙련 단계 (C2)까지의 언어 숙달도를 포괄하고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의 등급 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기초적 언어 사용		B 자립적 언어 사용		C 숙달된 언어 사용	
A1	A2	B1	B2	C1	C2
A2+		B1+	B2+		

<표22>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등급 구분

위의 등급 구분 체계에 따른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숙달된 언어 사용	C2	• 읽는 것을 거의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 문어로 된 다양한 자료에서 나오는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 • 복합적인 사안의 텍스트에서의 섬세한 의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C1	• 수준 높고 비교적 긴 텍스트의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자립적 언어 사용	B2	•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토론(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B1	•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무, 학교, 여가 시간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기초적 언어 사용	A2	•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예를 들어 신상,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
	A1	• 구체적인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다.

<표23>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등급별 성취 기준

나. 미국 National Standards 한국어 교육과정

미국 외국어교육 표준안(National Standards)에서는 5Cs((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성(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지역사회(Communities))를 학령별(4단계)로 나누어 읽기 교육에 관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Cs				
의사소통 Communication	문화 Cultures	연계성 Connections	비교 Comparisons	지역사회 Communities
의사소통	4학년	- 친숙한 전래동화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시각매체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8학년	- 텍스트의 중심생각과 핵심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한국의 역사적 사실, 사건, 발명품에 대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문맥과 언어적 구성요소를 통해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다.		
	12학년	- 대중문화와 관련된 텍스트의 세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전래동화, 노래, 속담, 단편 소설과 같은 문화적 텍스트의 줄거리, 등장인물, 주제를 파악하고 함축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 역사적 사실과 한국의 위인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6학년	- 문학 작품에서 줄거리와 세부 내용, 역할, 주인공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한국의 전통 문화적 산물(시조, 판소리, 풍속화 등)의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문화	4학년	- 해당 기술 없음		
	8학년	- 텍스트를 읽고 한국의 명절 풍습의 의미와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속담과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12학년	- 해당 기술 없음		
	16학년	- 한국적 문화(결혼식, 장례식, 직장 문화)에 관한 텍스트를 읽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다.		
연계성	4학년	- 수학, 사회, 지리, 역사, 과학에 관한 텍스트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8학년	- 수학, 사회, 지리, 역사, 과학에 관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12학년	-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기후 변화, 정부 구성, 공공의료 등) 등에 관한 텍스트를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인터넷, 뉴스, 도서관 등) - 한국과 세계 역사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관계와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16학년	- 전문 분야(career)나 전공 분야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리서치, 기사문, 인터뷰 등을 읽고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다.		
비교	4학년	- 한국어와 모국어의 문자 간의 차이를 알고 인식할 수 있다. - 한국어의 올바른 어순을 이해할 수 있다. - 한자어 수와 고유어 수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높임말을 이해할 수 있다. - 외래어, 연어, 속어, 의성어, 의태어를 이해할 수 있다.		

	8학년	- 한국어와 모국어의 낱자, 주소, 이름 표기의 구성 원칙을 비교할 수 있다. - 연결어미와 조사의 의미와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어 문장에서의 생략된 부분을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2학년	- 다양한 문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 문법 표지를 사용해서 문어, 구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어와 모국어의 시간, 시제, 상 등 비교 가능한 언어적 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 - 한국어와 모국어의 복합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차이점을 알 수 있다.
	16학년	- 지역,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언어의 변화와 문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논설문, 서사문, 설명문 등 텍스트의 장르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역사적 접촉으로 인해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한국어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4학년	- 가족, 취미,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문어적 의사소통 포함)
	8학년	- 해당기술 없음
	12학년	- 해당기술 없음
	16학년	- 해당기술 없음

<표24> 미국 외국어교육 표준안(National Standards) 학년별 성취 기준

Ⅲ. 한국어 읽기 교육 동향 및 요구조사 분석

1. 한국어 읽기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읽기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읽기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목적별, 대상별로 한국어 교재 및 읽기 교재를 선별하고 각 교재의 주제, 어휘, 텍스트 유형, 과제 및 활동, 문화 항목 및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개발된 한국어 읽기 교재를 교육 목적(일반 목적, 학문 목적, 직무 목적, 민족 교육 목적)과 기관 유형(국공립 기관, 대학 기관, 민간 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재 유형	권 수
기능 분리형 읽기 교재	32권
통합 교재	91권
읽기와 타 영역 간 기능 통합 교재	7권
합계	130권

<표25> 분석 대상 교재 수

먼저 한국어 교재는 통합 교재와 기능 분리형 교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합 교재의 경우 대부분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을 목표로 하므로 통합 교재 내에서 읽기는 문법, 듣기, 말하기, 쓰기의 다른 언어 기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통합 교재의 출간된 교재³⁾ 중 가장 대표적인 교재로는 일반 목적을 위한 각 대학 기관의 교재들과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한 ‘세종 한국어’가 있다. 이러한 기관의 통합 교재는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 교재 내 읽기는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등의 다른 기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통합 교재 내 읽기 텍스트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선정된 각 과의 주제와 관련 있는 텍스트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통합 교재 중 학문 목적과 직무 목적을 위한 교재는 주로 민간 기관에서 발간되었으며 이중 학문 목적의 경우 ‘경영’, ‘인문’등 특정 전공자를 위한 교재가 주

3) 경희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세종 한국어 등

로 발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재에 실려 있는 읽기 텍스트의 경우 특정 전공을 공부할 때 선행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지식들을 담고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한 텍스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직무 목적을 위한 교재의 경우 실제 외국인들의 업무 상황을 고려해 듣기와 말하기 기능에 집중하고, 읽기의 경우 간단한 서류 형식 등을 포함해 극히 제한적인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교육의 특수 목적 중 하나인 민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교재로는 맞춤 한국어(국립국제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이 있다. 이 교재들의 경우 재외동포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민족 교육을 목적으로 편찬된 교재들이므로 교재 내 읽기 텍스트의 경우 교육용 텍스트이며 일기, 안내문, 게시판, 광고 등 실생활에서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교재들 역시 대부분은 국공립기관을 통해 발간되었다. 이러한 교재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의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교재 내 읽기 텍스트 역시 소개 글, 전자우편(이메일), 광고문, 안내문, 설명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기초 법질서, 한국 사회,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 등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합 교재와 달리 기능 분리형 읽기 교재는 말하기, 듣기 등의 다른 기능과 분리되어 읽기 학습만을 위해 편찬된 교재로 일반 목적과 학문 목적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먼저, 일반 목적의 읽기 분리형 교재로는 ‘경희 한국어 읽기’(경희대)와 ‘연세 한국어 읽기’(연세대)가 대표적이다. 이 두 교재의 경우 주로 중·고급의 학습자들을 위해 발간된 다른 교재와 달리 초급부터 중·고급까지 단계적으로 발간되었다. 이러한 분리형 읽기 교재의 경우 읽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언어가 사용되는 실제 환경에 몰입하여 학습자들이 읽기 기능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 각 교재에 실린 읽기 텍스트를 살펴보면 텍스트의 종류가 기능 통합형 교재에 비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실제 텍스트와 가장 근접한 형태로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 분리형 교재 중 일반 목적에 앞서 발간된 것이 바로 학문 목적의 읽기 교재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읽기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과 맞물려 있는데 유학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 목적을 위한 읽기 교재는 주로 교양 과목 수강과 전공 과목 수

강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텍스트의 종류로는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 유형	교육 목적	교재 명	개발 기관 유형
통합 교재	일반 목적	경희 한국어(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대학 기관
		연세 한국어(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 한국어(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재미있는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교보문고)	
		한국어(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문진미디어)	
		세종 한국어(국립국어원)	국·공립 기관
	학문 목적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1-6(박이정)	민간 기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영 한국어(다락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문 한국어(다락원)	
	직무 목적	비즈니스 한국어(연세대학교 출판부)	대학 기관
		성공의 지름길, 비즈니스 한국어(지문당)	민간 기관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2(다락원)	
		프로 비즈니스 한국어 1~4(한글파크)	
	민족 교육 목적	맞춤 한국어(국립국제교육원)	국·공립 기관
		한글학교 한국어(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회통합 목적	부부공동 학습교재 알콩달콩 한국어(국립국어원)	국·공립 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초급1,2(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중급1,2(법무부)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4(국립국어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1,2(국립국어원)	
		아자아자 한국어 1~2(국립국어원)	
기능 분리형 읽기 교재	일반 목적	경희 한국어 읽기 1~5(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하우)	대학 기관
		연세 한국어 읽기 1~6(연세대학교 출판부)	
		서강 한국어 읽기 6(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즐거워 한국어 읽기(연세대학교 출판부)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어 독본(연세대학교 출판부)	
		생각하는 한국어 읽기(연세대학교 출판부)	
		즐거워 한국어 읽기(연세대학교 출판부)	
		처음 배우는 한국어 읽기(연세대학교 출판부)	
		초급 한국어 읽기(국립국어원)	국·공립 기관
		Exploring Korean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민중서림)	민간 기관
		읽으면서 배우는 한국어 연습(한국문화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1(신아)	
		벼리 한국어 읽기 초급 1,2(경진)	
		인터넷으로 배우는 초급 한국어읽기 1,2(제이앤씨)	
	학문 목적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중급 I, II(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대학 기관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고급(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고급 한국어 강독(서울대학교 출판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하위)	민간 기관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5,6(박이정)	
	직무 목적	없음.	
	민족 교육 목적	없음.	
읽기와 타 영역 간의 기능 통합 교재	일반 목적	서강 한국어5A워크북-읽기·말하기(서강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대학 기관
		쉽게 배우는 한국어 초급 읽기·쓰기(랭기지플러스)	민간 기관
	학문 목적	대학 한국어 II(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대학 기관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1,2 읽기·쓰기(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독해: 한국어 고급 학습 자료(한국문화사)	민간 기관

<표26> 분석 대상 교재

2. 한국어 읽기 교육 현황 및 요구조사 분석

2.1. 요구조사 개요

국내외 읽기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읽기 교육의 목표 및 적정 읽기 교육 시간, 읽기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는 국내외 기관의 교사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기관의 범위 설정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의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는 국내외 우수 운영 기관⁴⁾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반 개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대륙별로 한 국가를 선정하여 그곳의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자,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읽기 교육 현황 및 요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4)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설계에 참고·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한국어교육 전공 전문가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자체 개발 교재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오래된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국외 대상 기관: 해외 초·중등학교, 대학기관 등
- 국내 대상 기관: 전문가가 운영·관리하는 우수 운영 기관 등

가. 해외 초·중등학교 기관 대상

최근 3년간 해외에 개설된 초·중등학교 한국어 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11.31.기준)

지 역	국가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아시아	중 국	6	270	6	395					
	일 본	479	15,774	511	17,718					
	몽 골	m	m	m	m					
	대 만	62	3,264	56	2,607					
	태 국	69	22,153	75	24,065	뻗따니 소재 '벤자마 라추릿 중·고등학교' 방콕 소재 '왓 마꿏까리아람 중·고등학교' 동부의 '깔라신학교', '러이엣 학교' 등				
	인도네시아	31	3,316	27	1,507					
	베트남	m	m	3	65					
	필리핀	m	m	m	m					
북 미	미 국	122	10,588	126	12,428	미국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현황(2009. 11월 기준, 문애리 2010)				
						구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정규 교육 과정	초등학교	16	80	1,708
							중학교	9	19	389
		고등학교	46	141	3,481					
	합계		71	240	5,578					
	캐나다	38	2,505	36	2,440					
중남미	파라과이	14	1,674	15	1,809	Colegio Cristiano Sudamericano, Colegio T�cnico Canaan, Escuela Cristiana Americana, Escuela Jardin de Dios, Escuela Cristian Bethel, Colegio San Pablo 등 6개교				
	아르헨티나	4	315	3	217					
	브라질	4	143	5	347					
	멕시코	m	m	m	m					
CIS	키르기스스탄	28	2,597	34	3,000					
	카자흐스탄	18	677	19	579					
	우즈베키스탄	20	7,102	19	7,102					
	타지키스탄	2	469	2	974					
	러시아	38	4,188	37	4,621	'국립 블라디보스토크 제28번 학교' 등				
	이르쿠츠크	m	m	m	m					
	우크라이나	4	441	4	520					
	벨라루스	2	26	2	32					
유럽	체 코	m	m	m	m					
	프랑스	24	2,790	28	2,378	보르도 '프랑수아 마장디 고교' 파리 '빅토르 뒤리 고교'				
	독 일	12	207	13	248					

	노르웨이	1	35	1	34	
	불가리아	2	99	1	155	
	영 국	6	88	7	97	
	네덜란드	m	m	3	54	
오세아니아	호 주	57	6,992	61	8,468	퀸즐랜드주 '갈리오페 초등학교, 글래드스톤 센트럴 초등학교, 글래드스톤 웨스트 초등학교, 글래드스톤 고등학교, 야룬 초등학교
	뉴질랜드	10	702	17	1,284	
아프리카	케 나	m	m	m	m	
	카메룬	m	m	m	m	
계		1,053	86,415	1,111	93,144	
		24개국		26개국		
		23개국 지원		25개국 지원		

<표27> 최근 3년간 해외(국가별)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나. 국외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 대상

국외 전공자를 대상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러시아 등 한국어학과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명	대학명
미국	American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Baylor University, Boston college 등 90개 대학
일본	오사카대학, 도쿄외국어대학, 도야마대학, 니가타여자단기대학, 히로시마대학, 쿠마모토구쿠엔대학, 나가사키외국어대학, 후쿠오카대학, 바이코가쿠인대학, 히메지돗쿄대학, 덴리대학, 주쿄여자대학, 데이쿄대학, 돗쿄대학, 메지로대학, 니쇼가쿠샤대학, 도쿄세이토쿠대학, 간다가이고대학, 순다이가이고전문학교, 교토외국어전문학교 등
중국	북경대학, 북경어언대학, 북경외국어대학, 북경 제2외국어대학교, 대외무역경제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천진사범대학교, 천진외국어대학교, 남경대학교, 남경사범대학교, 산둥대학교, 산둥사범대학교, 산둥과학기술대학교, 곡부사범대학교, 청도대학교, 중국해양대학교, 청도농업대학교, 연태대학교, 상해외국어대학교, 상해사범대학교, 복단대학교, 중국해방군의국어대학, 흑룡강대학교, 길림대학교, 서안외국어대학교, 북방민족대학교, 중산대학교, 광둥외국어대학교, 화북지역 소주대학교 등
호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Griffith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Queensland, University of Sydney 등
러시아	Buryat State University, Far Eastern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Far Eastern State 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rkutsk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등 22개 대학

<표28> 국외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

다.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회원교 대상(2015.1.5.기준)

국내 기관으로는 한국어 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회원교(총 146개 대학) 가운데

전문가가 운영·관리하는 우수 운영 기관(17개 대학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명	기관명	담당자
1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황종배
2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조현용
3	계명대학교	한국어학당	김선정
4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이희경
5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박영환
6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정문권
7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송향근
8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조향록
9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허구생
10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정승철
11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어학당	목정수
12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이경오
13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김원중
1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석재
15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해영
16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허용
17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서원남

<표29> 국내 대학 내 한국어교육 기관

2) 요구조사 대상

요구조사는 국외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의 학습자 78명,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일반 목적 학습자 137명, 국외 한국어 교사 74명, 국내 한국어 교사 40명 등 총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요구조사 내용

요구조사 항목은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자 및 한국어 교사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크게 조사 대상자 기초 질문과 읽기 수업 관련 문항, 읽기 수업을 위한 읽기 텍스트 및 주제 선호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대상

: 한국어 학습 목적, 한국어 학습 기관, 한국어 학습 기간, 주당 수업 시간, 읽기 교육 내용, 읽기 교육 자료 등

나.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자 및 한국어 교사 대상

: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업 개설 현황, 기관별 한국어교육 목적, 주당 수업 시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읽기 교육 현황, 읽기 교육 내용, 등급 체계, 등급별 성취 목표, 읽기 교수·학습 자료, 읽기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및 유형 등

영역	내용	항목
1	기초 자료	소재, 성별, 교육 경력, 학습 목적
2	수업 운영 및 수강 관련	읽기 수업 개설 현황, 읽기 수업 수강 경험, 읽기 수업 시수, 읽기 수업 진행 방식, 읽기 교수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 적정 읽기 수업 시수, 읽기 수업의 중요도, 읽기 수업의 만족도
3	읽기 텍스트 및 주제 관련	희망 텍스트 주제 및 유형

<표30> 설문 문항 구성

4) 요구조사 절차 및 방법

가. 요구조사 절차



<그림2> 요구조사 절차

본 요구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7월 한 달 동안 교사(국내 대학 한국어교육 기관 강사, 국외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 교수, 강사 등 총 50명)와 학습자(국내 대학 한국어교육 기관 수학 학생 총 50명)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조사 항목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설문지를 수정하여 2015년 7월~8월 두 달에 걸쳐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자 및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읽기 교육의 현황을 파악해 읽기 교육의 목표 및 적정 읽기 교육 시간, 읽기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조사 결과는 읽기 교육과정 등급별 목표, 등급별 텍스트 주제 및 유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기관별 현재 읽기 수업 시간 및 적정 교육 시간 파악
- 읽기 교수 및 학습을 통해 기대하는 내용 파악
- 읽기 텍스트 및 주제로 적합한 것 파악

나. 요구조사 방법

해외 기관 관계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면담을 하거나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수합된 요구조사 결과를 국가별, 지역별로 분석해 본 후 읽기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외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및 방문 설문 조사를 통하여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읽기 교육 현황 및 요구조사 분석 결과

1) 국외 한국어 교사 대상 설문 결과

국외 한국학교 및 초·중등 기관 한국어 교사 74명을 대상으로 현재 읽기 수업 시간 및 적정 교육 시간, 한국어 읽기 교수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 읽기 텍스트 및 텍

스트 유형, 텍스트 주제로 적합한 것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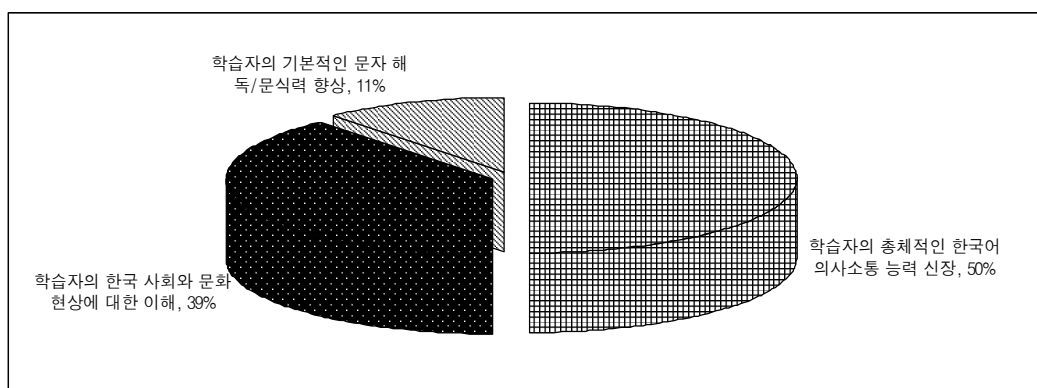
① 현재 읽기 수업 시간 및 적정 교육 시간

	수업 할애 비중		적정 읽기 교육 시간	
	전체 수업 시간	읽기수업 시간	주_회	시간
평균	5.95	1.76	1.96	1.02

국외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읽기 수업 시간 및 읽기 적정 교육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 6시간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읽기는 약 2시간씩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읽기 교육 시간으로는 주2회 1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읽기 교수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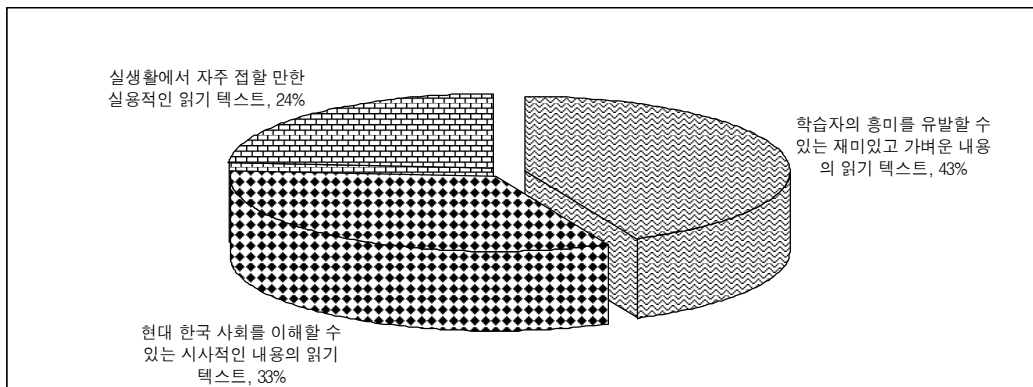
내용	합계
학습자의 총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50%
학습자의 한국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39%
학습자의 기본적인 문자 해독/문식력 향상	11%



국외 한국어 교사의 절반 정도는 읽기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총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자의 한국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39%로 그 뒤를 이었다.

③ 읽기 텍스트로 적합한 것

내용	합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고 가벼운 내용의 읽기 텍스트	43%
현대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적인 내용의 읽기 텍스트	33%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만한 실용적인 읽기 텍스트	24%



읽기 텍스트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고 가벼운 내용의 읽기 텍스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현대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적인 내용의 읽기 텍스트’가 33%,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만한 실용적인 읽기 텍스트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국외 한국학교 및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문학, 교양 관련 텍스트보다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의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총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④ 텍스트 유형으로 적합한 것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 유형을 정리하여 읽기 텍스트 유형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매우 적합하다’는 응답을 5점으로 상정했을 시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로 대부분이 ‘보통이다’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읽기 교육에서 다양

장르	출판권 수
한국어 교육용 문화	4.1
동화	4.1
메시지	3.9
소설	3.8
언어문	3.8
생물문	3.7
계시문	3.7
사회소통 문제 해결	3.7
드라마	3.6
매체 문화	3.5
감성문	3.5
일기 에세이	3.5
실용문	3.5
인내 방송	3.5
광고	3.5
소설	3.5
실화, 미담	3.5
수필	3.5
신문기사	3.5
오락방송 프로그램	3.5
간판포장 문구	3.5
시	3.4
포장 방송 프로그램	3.4
광고	3.4
팩트 프로그램	3.3
신문기사	3.3
인성서	3.2
신문	3.2
전기문	3.2
회화	3.2
음악적 문화	3.1
모서	3.0
평	2.9
계책서	2.9
종교문	2.8
학문	2.8
인성문	2.5

읽기 텍스트의 주제 역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목록을 정리하여 읽기 텍스트 주제로 적합한 것을 고르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읽기 교육의 목표, 읽기 텍스트로 적합한 것, 읽기 텍스트의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와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한국어 교사 대상 설문 결과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회원교 대상(2015.1.5.기준) 총 146개 대학 중 17개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현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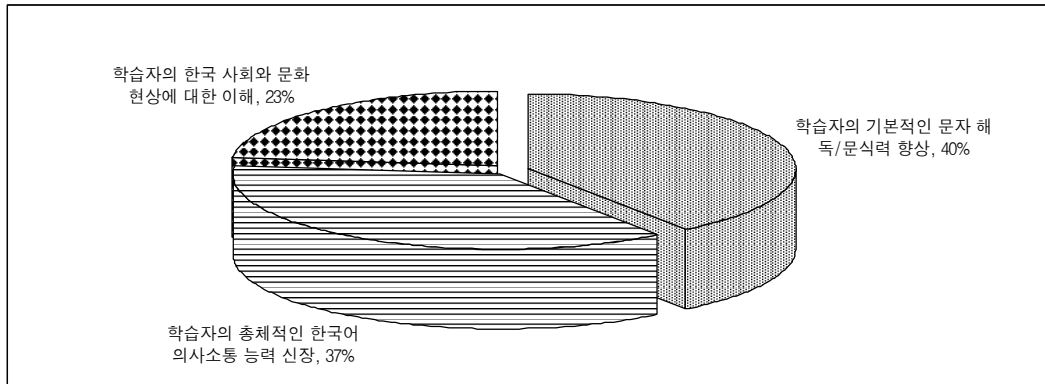
① 현재 읽기 수업 시간 및 적정 교육 시간

	수업 할애 비중		적정 읽기 교육 시간	
	전체 수업 시간	읽기수업 시간	주_회	총 시간
평균	20	4	주 2회	4

국내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업은 주당 20시간, 이 가운데 읽기는 4시간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읽기 교육 시간도 주2회 2시간씩 총 4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읽기 교수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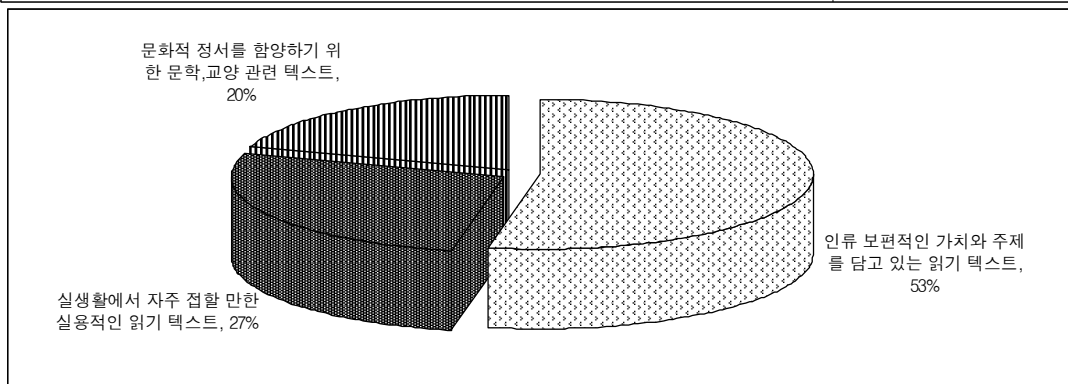
내용	합계
학습자의 기본적인 문자 해독/문식력 향상	40%
학습자의 총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37%
학습자의 한국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23%



국내 한국어 교사들은 국외 한국어 교사들과는 다르게 읽기 교육을 통해 읽기 본연의 기능인 ‘학습자의 기본적인 문자 해독 및 문식력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습자의 총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학습자의 한국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국내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이 성인 학습자이므로 학습자의 변인에 따른 결과로 미루어 짐작되며 읽기에 대한 관점 역시 국내, 국외 교사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③ 읽기 텍스트로 적합한 것

내용	합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주제를 담고 있는 읽기 텍스트	53%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만한 실용적인 읽기 텍스트	27%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문학, 교양 관련 텍스트	20%



읽기 텍스트로 적합한 것에 대한 설문 결과는 읽기 교수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의 응답 순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기본적인 문자 해독 및 문식력을 높이기 위해 ‘인

류 보편적인 가치와 주제를 담고 있는 읽기 텍스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습자의 총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만한 실용적인 읽기 텍스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한국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문학, 교양 관련 텍스트'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20%로 나타났다.

④ 텍스트 유형으로 적합한 것

초급	한국어교육용 담화, 안내 방송, 일기 예보, 픽토그램, 간판/포장 문구, 신분증, 소개글, 광고, 안내문, 기사문, 설명문, 신청서, 계획서, 메시지, 생활문, 드라마, 동화, 감상문, 수필
중급	한국어교육용 담화, 안내 방송, 일기 예보, 픽토그램, 간판/포장 문구, 소개글, 광고, 안내문, 기사문, 설명문, 공증/공문서, 신문기사, 교양방송프로그램, 평, 신청서, 계획서, 보고서, 학업/학술문, 메시지, 매체 담화, 생활문, 사회 소통/문제 해결적 글, 공식적 담화, 드라마, 오락방송프로그램, 동화, 감상문, 수필, 전기문, 시, 소설, 설화/민담, 희곡
고급	소개글, 광고, 안내문, 기사문, 설명문, 공증/공문서, 신문기사, 교양방송프로그램, 평, 신청서, 계획서, 보고서, 선언문, 학업/학술문, 메시지, 매체 담화, 생활문, 사회 소통/문제 해결적 글, 공식적 담화, 드라마, 오락방송프로그램, 동화, 감상문, 수필, 전기문, 시, 소설, 설화/민담, 희곡

국내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등급별 텍스트 유형으로 적합한 것을 조사한 결과 초급에서는 '한국어교육용 담화, 안내 문구'와 같은 정보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메시지'와 같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텍스트가 주를 이루었으나 중·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시, 소설'과 같은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평, 학술문'과 같은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로 확장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텍스트 주제로 적합한 것

초급	가족, 건강, 물건 사기, 미디어, 생활, 수, 인사, 일과 직업, 취미와 여가, 한글과 한국어, 휴일
중급	가족, 건강, 과학, 교육, 뉴스/시사 문제, 미디어, 생활, 수, 예술, 일과 직업, 책과 문학, 취미와 여가, 한글과 한국어, 휴일

고급	건강, 과학, 교육, 뉴스/시사 문제, 미디어, 생활, 예술, 일과 직업, 전문 분야, 책과 문학, 한글과 한국어, 휴일
----	---

텍스트의 주제 역시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일상적인 주제에서 직업, 예술, 시사 문제 등 사회적, 추상적 주제로 확장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 학습자 대상 설문 결과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수학 중인 학습자 13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읽기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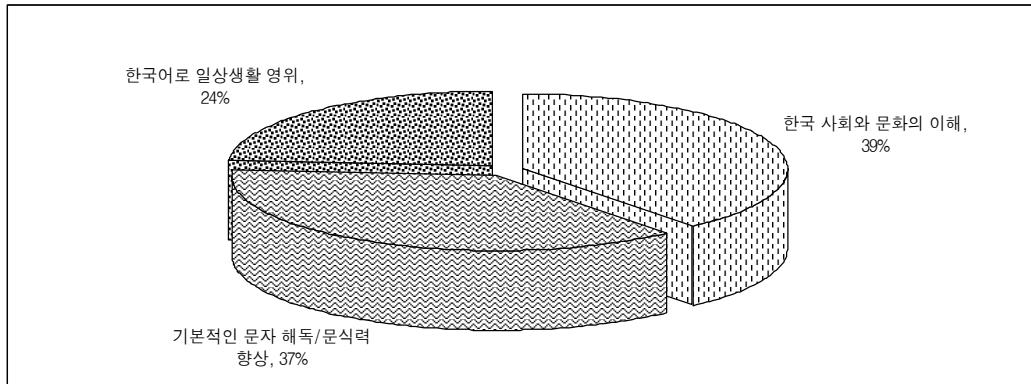
① 읽기 적정 수업 시간

내용	합계
주당 1회 2시간씩(총 2시간)	43.8%
주당 2회 2시간씩(총 4시간)	24.1%
주당 1회 3시간씩(총 3시간)	10.2%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적정 수업 시간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주당 1회 2시간씩 총 2시간 읽기 수업을 희망하는 학습자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당 2회 2시간씩 총 4시간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24.1%, 주당 1회 3시간씩 총 3시간 읽기 수업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10.2%로 나타났다.

② 읽기 수업을 통해 기대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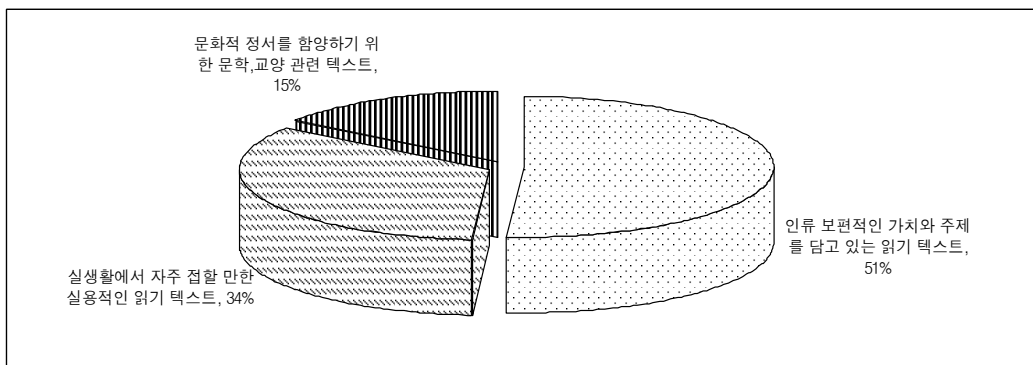
내용	합계
한국 사회와 문화의 이해	39%
기본적인 문자 해독/문식력 향상	37%
한국어로의 일상생활 영위	24%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수업을 통해 기대하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와 문화의 이해’에 대한 응답이 39%, ‘기본적인 문자 해독/문식력 향상’이 37%, ‘한국어로의 일상생활 영위’가 24%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한국어 교사들의 응답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학습자들은 읽기 텍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읽기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기능임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③ 읽기 텍스트로 적합한 것

내용	합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주제를 담고 있는 읽기 텍스트	51%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만한 실용적인 읽기 텍스트	34%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문학, 교양 관련 텍스트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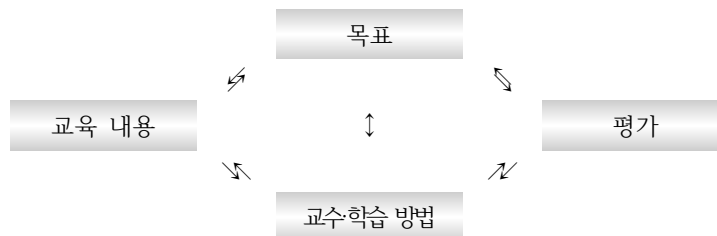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읽기 텍스트로 적합한 것을 조사한 결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주제를 담고 있는 읽기 텍스트’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만한 실용적인 읽기 텍스트’가 34%,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문학, 교양 관련 텍스트’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읽기 수업에서 다양한 유형의 글을 접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내용

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대상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학문 연구나 훈련을 위한 특정한 정규 교과 또는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전(全) 교과라고 정의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정의가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을 교육 경험의 총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교육기관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한다(Jackson, 1992; 배두본, 2000:42-43; Olivia, 2009; 강현석, 2014:26). 후자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교육과정이란 교과를 통해 특정한 지식·기능·가치를 교수 학습할 수 있도록 의도되고, 조직화된 일련의 계획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의도된 것’은 교육의 목적을 말하며 ‘특정한 지식·기능·가치’는 교육의 내용을 일컫는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육 내용을 조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의 목적과 도달 목표, 교수·학습의 내용과 평가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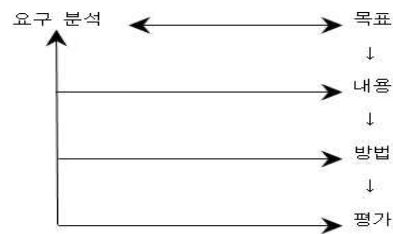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교육·문화적인 철학 그리고 역동적으로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는 외국어교육의 두 가지 큰 목적(해당 언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 목표 문화를 수용하게 하는 것)과도 맞물려 교육과정의 하위 요소인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설계된다.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인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간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그림3>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간의 상관성(Brady, 1992)

<그림3>과 같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는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어야 하며 역(逆)으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는 교육 목표를 충실히 반영한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모두는 순환적 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관계는 교육과정의 어떤 요소로부터도 교육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 현장에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교육과정 설계자가 어떤 요소에도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변형 또는 조작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요구 분석이 교육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내용, 교수, 평가에까지 반영된다. Nunan(1988), Johnson(1989)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설계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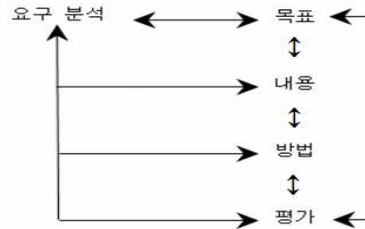


<그림4>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Nunan, 1988; Johnson, 1989)

<그림4>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 사정을 토대로 교육 목표를 조정하고 그것이 교수 내용과 평가에 적용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며 교육과정이 설계된다. 즉,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설계할 때는 학습자의 요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와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 선정과 교육 자료 선정, 교수·학습 활동 계획,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 단계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에 있어서도 시대와 사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기관, 학습자 요구,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과 지역적 특수성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실질적

인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교육과정의 구성요소가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림5>와 같은 형태를 따라야 한다.



<그림5>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모형

한국어교육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이 개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이루어진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읽기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읽기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대전제와 원칙 아래,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동시에 실제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표준 읽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원리

표준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은 읽기 교수요목 설계, 읽기 교수·학습 활동 설계, 읽기 교재 개발, 읽기 평가 계획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 읽기 교육과정은 이러한 교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공통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은 각 교육 현장에서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수업, 평가 등의 객관화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표준화된 지표를 구축하여 이를 다양한 변인에 따라 변형-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표준 교육과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

형(1, 2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1단계」에서 기술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원리는 ‘내용의 포괄성’, ‘사용의 편리성’, ‘자료의 유용성’, ‘적용의 융통성’의 네 가지이다. 또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서는 참조 기준의 충족 원리로 ‘다목적’, ‘융통성’, ‘개방성’, ‘역동성’, ‘사용의 편리함’, ‘비독단적’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표준 교육과정(참조 기준)의 개발 원리로 ‘포괄성(다목적성)’과 ‘편리성’, ‘융통성’의 원리를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 읽기 교육과정 설계의 큰 줄기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개발 원리를 따랐으며 ‘읽기’ 교과와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과정 설계의 구성 원리를 수립하기 위하여 강현석(1999: 153-154), 박현주(2005: 132), 장인실(2007: 384-390), Omstein and Hunkins(2003: 23-245)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표준 읽기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설계 원리를 설정하였다.

먼저 교육과정 내부적 측면에 관한 설계 원리로는 내용의 포괄성과 대표성, 내용의 계열성과 연속성, 내용의 균형성을 설정하였고, 교육과정 외부 요소인 사용자 측면에서의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는 적용의 융통성, 사용의 편리성을 설정하였다.

2.1. 내용의 포괄성과 대표성

표준 읽기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읽기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읽기 교육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주어진 항목 내에서 필요한 것을 단순히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부 교수 활동의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읽기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식, 기술, 전략, 문화에 관한 대표적인 항목을 선정하여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각 학습 등급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 능력 수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 읽기 교육과정은 다양한 변인(학습자 요인, 환경 요인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되어 읽기 교육에 있어서 객관적인 준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읽기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읽기와 관련하여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과업들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가 담고 있는 지식, 기능, 주제, 문화, 텍스트 유형, 텍스트 길이, 텍스트 특성 등의 요소

들이 학습자의 실제 읽기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잠재된 과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과업 중 대표성과 타당성을 갖춘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2.2. 내용의 계열성과 연속성

‘계열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등급별로 지속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속성’은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주요 개념이나 주제, 형태를 가진 텍스트를 연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 읽기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교육과정의 각 요소를 수직적으로 배열하되 동일한 주제를 여러 등급에서 확장·심화되는 나선형 구조의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여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읽기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 읽기 교육과정은 순환적이면서도 연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3. 내용의 균형성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각 구성 요소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고 이들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결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때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교육과정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내용 설계의 각 측면에 균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 요소만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측면을 골고루 포함하여야 한다. 균형 잡힌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읽기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루 신장시켜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읽기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방법, 태도의 세 범주가 고루 다루어져야 한다.

2.4. 적용의 융통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국내의 초·중등학교 국어(외국어) 교육과정과 같이 동일한 목표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교수 환경(지역)이나 교수 목표, 학습자 연령, 학

습 동기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탄력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즉,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한국어 읽기 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환경에서의 적절한 변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수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축소 또는 확장하는 등의 개작이 유연하도록 개방적인 체계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 변인, 지역적 변인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부 또는 외부의 여러 측면과의 상호적 연계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등급, 난이도 등 상하적인 위계에 있는 각 요소 간의 수직적 연계와 적용, 다른 영역(듣기, 말하기, 쓰기)과의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적용 또한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2.5. 사용의 편리성

‘사용의 편리성’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먼저 표준 읽기 교육과정의 사용자(교육과정 설계자, 교재 집필자, 교사, 평가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기술 내용이 상위 수준인 교육 목표보다는 구체화되고 실제 교수 학습 차원의 활동보다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쉽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기술되어 사용자에게 ‘매우 친절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읽기 교육과정은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다양한 범주로 분리되면서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각 요소 간의 조합이 용이하도록 내용이 설계되어야 하는데 표준 읽기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각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조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어진 요소 중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과 조건들을 조합하여 기관의 읽기 교육과정 설계, 읽기 교육자료 선택, 읽기 과제와 활동 고안 등이 용이하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계화, 범주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요소를 조합할 때에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 간의 수평적 상관성을 염두

에 두고 각 범주가 긴밀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 읽기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방법, 태도를 대범주로 설정하고 범주의 하위 구성 요소로 문자·어휘·문법, 내용, 텍스트의 구조와 유형, 읽기 기술 및 전략, 태도 등을 두어 한국어 표준 읽기 교육과정의 세분화된 내용 체계를 마련하였다.

3.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내용

3.1. 성격

읽기는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읽기에서의 독자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독자의 예측 과정으로서 목적을 위한 이해 과정(Smith, 1982; Goodman, 1975)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독자의 언어적 처리 과정 등 여러 정보 체계가 동시에 상호 작용하는 과정(Taylor, 1983; van Dijk, Kintsch, 1983)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또 독자가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과정(Wallace, 1992)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처럼 읽기란 목적에 따라 여러 인지 과정 및 지식이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읽기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정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독자와 글(글쓴이) 사이의 상호 작용과 과정(의사소통 과정, 글을 이해하는 과정, 독자의 배경 지식이 관여하는 과정, 여러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는 독자가 글과 상호 작용하면서 자신의 언어적 지식 및 선행적 지식을 포함한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글쓴이의 메시지와 의도를 파악해가는 과정(최연희, 2006: 11-16)이라고 할 수 있다.

읽기의 개념적 정의가 비슷하더라도 읽기 교육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을 지닌다. Grabe와 Stoller(2002)는 외국어 읽기가 모국어 읽기와 다른 점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언어적/ 처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국어 읽기에서는 구두 언어로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 구조를 이미 습득한 후 그 단어나 문법 구조를 문자 언어로 접하게 되지만 외국어 읽기에서는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문자 언어 학습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둘째, 외국어 읽기에서는 글의 구성, 문장, 연

결 등에 대한 담화적 지식이 부족하다. 셋째, 외국어교육에서의 독자는 모국어로서 국어를 배우는 독자에 비해 글을 접하는 기회가 매우 적다. 넷째, 외국어교육에서의 읽기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언어적 차이의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외국어 읽기는 모국어 읽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서의 읽기는 모국어 읽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구어를 습득한 후에 문어를 습득하는 모국어 학습자와는 달리 외국인 학습자는 문어인 읽기 기능을 통해 다른 기능을 학습해 나가므로 외국어 교육에서 읽기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정보와 지식의 습득 수단 및 문화 수용의 통로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의 읽기 교육은 한국어 읽기를 통해 다른 언어사용의 기능을 신장시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맥락을 스스로 인식, 적용하고 조절해가며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를 길러 냄과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고 자발적으로 읽는 습관을 길러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2. 목표

한국어 읽기 교육은 이해와 사용의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식, 방법, 태도를 모두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읽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어 어휘와 문법과 관련된 읽기의 기초 지식을 안다.
- 나. 한국어로 표현된 글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한다.
- 다. 한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글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 라. 한국어로 표현된 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
- 마. 한국어 읽기에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읽는 태도를 기른다.

- 1) 한국어 어휘와 문법과 관련된 읽기의 기초 지식을 안다.
- 한글의 짜임을 아는 것, 즉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고 그 결합 방식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간단한 글자부터 복잡한 글자까지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다.

- 쉽고 간단한 낱말과 문장을 정확히 소리 내어 읽고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2) 한국어로 표현된 글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한다.

- 글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글의 의사소통 기능과 쓰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를 들어 안내문이나 제품 사용 설명서, 표지판 등이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짐을 안다.)

3) 한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글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 한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글을 몇 가지의 유형(정보 전달의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등/설명적인 글, 논증적인 글, 문학적인 글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구조(미시적, 거시적 구조 등)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글의 유형에 따른 글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적인 다양한 읽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읽기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한국어로 표현된 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어로 표현된 글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어휘와 문법, 글의 구조, 주제 등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문화적 관점에 기반하여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을 할 수 있다.

5) 한국어 읽기에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읽는 태도를 기른다.

- 한국어로 된 글을 읽는 읽기 자체에 흥미를 갖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며 자발적으로 읽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읽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3.3. 등급 체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는 등급 체계를 1급부터 7급까지로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설계하였는데 이는 1급에서 2급, 3급에서 4급, 5급에서 7급 간의 등급별 성취 기준 및 교육 내용이 큰 대비 없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등급 체계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등급 체계
최상급(7급)	고급
고급(5-6급)	
중급(3-4급)	중급
초급(1-2급)	초급

<표31> 표준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등급 체계

3.4. 교육 시간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언어의 네 기능을 통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읽기’ 영역에만 한정하여 교육 시간을 산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표준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시간을 산출한다.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시수를 근거로 읽기교육 시간을 산출하였고, 다음으로는 읽기교육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 읽기 교육 시간을 산출하였다.

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 근거한 교육 시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는 10주, 주당 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200시간의 교육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다섯 영역을 고루 배분하여 읽기 교육 시간을 산출하였을 때 읽기 수업에 최대로 할애되는 시간은 20시간이 된다.

2) ‘요구조사 결과’에 근거한 교육 시간

국내와 국외,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교육 현황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와 국외의 교육 시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 읽기 교육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읽기 수업에 전체 교육 시간의 20%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읽기 교육 시간으로는 주2회 2시간씩 주당 총 4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주, 전체 20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의 경우 읽기 교육 시간은 주당 4시간으로 한 등급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40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다. 한편 국외 읽기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수업 시간 중 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는 적정 읽기 교육 시간으로 주2회 1시간, 학습자는 주1회 2시간 읽기 수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외의 경우 적정 읽기 교육 시간은 주당 2시간, 16주의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시간을 산출하면 한 등급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총 32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다.

구분	국내	국외	
적정 읽기 교육 시간	주2회*2시간=4시간	교사	주2회*1시간=2시간
		학습자	주1회*2시간=2시간
한 등급 이수 시간	주 4시간*10주=40시간	주 2시간*16주=32시간	

<표32>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교육 시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읽기 교육 시간과 국외의 읽기 교육 시간에는 8시간의 간극이 나타나는데 이는 국외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 체계의 하위 범주인 지식, 방법(기술 및 전략), 태도의 비중을 달리하여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외 읽기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은 지역별 교육 여건과 환경, 교육 대상, 목적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교육 시간은 고정시키지 않고 준거로서의 역할로만 제시하고자 한다.

3.5. 내용 체계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는 언어 지식적인 측면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능력이 있다.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어휘와 문법,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장르의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지식, 즉 담화 구조나 장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읽기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첫 번째 범주로 ‘지식’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 지식적 측면의 내용을 실제로 응용하기 위한 ‘방법’의 범주 설정도 필요하다. 방법의 하위 범주로는 읽기 기술 및 전략을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읽기와 관련된 정의적 요소인 ‘태도’ 범주를 추가로 설정하여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지식, 방법, 태도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읽기 능력의 신장을 위한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를 세 가지의 독립된 범주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	방법		태도
	기술	전략	
• 문자·어휘·문법 • 텍스트 주제 • 텍스트 유형 • 텍스트 구조	• 사실적 이해 • 추론적 이해 • 비판적 이해 • 감상적 이해	• 상위 인지적 전략 • 인지적 전략 • 보조적 전략	• 가치와 중요성 • 동기와 흥미 • 읽기의 생활화

<표33>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내용 체계

1) 지식

한국어 읽기 학습에서의 지식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넘어 의미를 언어화하거나 언어에서 의미를 알아내고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식은 한국어 학습의 지적 기반으로서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는 문자·어휘·문법, 텍스트 주제, 텍스트 유형, 텍스트 구조로 나누어진다. 먼저 문자·어휘·문법 요소와 관련된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의 식별, 철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 등을 포함한 음

성·음운의 인식, 문자소 해독 등 읽기 과정에 수반되는 인지적 행위가 해당되며 읽기를 위한 기저의 지식이 되는 어휘, 문법에 대한 학습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등급별로 다룰 수 있는 텍스트의 주제와 텍스트 유형을 제시하고 글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구조 파악 방식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등급별 내용 기술에 제시된 텍스트 구조는 크게 문장 수준과 담화 수준으로 대변되는 텍스트의 구조, 그리고 텍스트 유형에 기반한 텍스트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문장과 담화 수준의 텍스트 구조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문장 단위로부터 시작해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담화 수준에 이르는 텍스트 구조를 지칭한다. 문장 구조는 단순한 단문이나 대등, 종속 접속문으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부터 내포문을 포함한 복문 구조를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배치하였으며, 담화 구조는 도입, 본문, 마무리의 일반적인 텍스트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의 완성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 중, 고급의 텍스트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문장과 텍스트의 두 가지 층위에서 텍스트 구조를 기술한 것은 텍스트의 기초가 되는 문장 층위의 미시적 구조에 대한 지식과 텍스트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텍스트 층위의 거시적 구조에 대한 지식이 읽기에서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특정 텍스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설명적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 서사적 텍스트를 별도로 등급별 내용 기술에 포함시킨 것은 텍스트의 유형에서 제시한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설명적 텍스트),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논증적 텍스트),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서사적 텍스트)를 고려한 것이다. 학생들이 텍스트 유형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지식으로서 텍스트의 구조를 학습하는 것은 해당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중심 내용과 이를 부연하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는 위계형 구조와 앞, 뒤의 내용이 연관되어 이어지는 연쇄형 구조로 나누는데,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는 위계형 구조에 그리고 서사적 텍스트는 연쇄형 구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고급 수준 이상에서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는 논증적 텍스트를 제시하고 초급과 중급에서는 설명적 텍스트와 서사적 텍스트로 이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장과 문장 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나열, 비교/대조, 예시, 원인/결과, 문제/해결 등의 구조는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의 대표적인 미시 구조인데, 이에 대한 내용 지식을 한국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까지 배치함으로써 연쇄형 구조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서사적 텍스트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순한 구조부터 상황, 배경, 설명, 강조 등의 문학적 장치를 포함한 복잡한 서사 텍스트의 구조를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 서사적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2) 방법

읽기 영역의 방법 범주는 내용 확인, 추론, 평가, 감상 등으로 구성된다.⁵⁾ 독해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내용과 내용 사이에 생략된 부분을 배경 지식 등을 동원하여 채우거나 복원해 넣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가치관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이념 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성찰이나 내면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방법 범주가 내용 확인, 추론, 평가, 감상 등으로 설정된 것은 독해의 인지적 과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방법은 읽기 내용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읽기를 가르치는 목적이 읽기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지 않고 읽기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읽기에 대한 선행적 지식을 아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절차적 지식을 통해 읽기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한국어 읽기에서의 기술은 텍스트를 읽고 해석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와 과정을 의미하며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사실적 이해는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확인이 이에 해당한다. 추론적 이해는 텍스트에 숨겨진 의도나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넘어 텍스트 내 정보들 간의 암시적 관계와 텍스트 내용과 학습자의 배경 지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비판적 이해는 글의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읽기 영역 평가 틀을 살펴보면 ‘내용 확인, 추론, 평가 및 감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원리 범주는 낱말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의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독해의 실재를 고려할 때 내용 확인, 추론, 감상, 평가 범주 모두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읽기 교육과정에서도 사실적 독해 기능, 추론적 독해 기능, 비판적 독해 기능, 감상적 독해 기능이 잘 안배되어야 한다.

내용과 자료 및 논증 방식과 표현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며 정확한지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으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정확성, 가치 등에 대한 판단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 등의 텍스트를 읽고 등장인물의 심정을 파악하는 등의 감상적으로 독해하는 감상적 이해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독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읽기 전략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전략은 읽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읽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 능력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구성하려고 할 때 수반되는 작용인 전략은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텍스트 사이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에서의 전략 범주는 크게 상위 인지적 전략, 인지적 전략, 보조적 전략으로 나누었다. 상위 인지적 전략은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인지적 전략은 음소, 음절, 단어, 절, 문장으로 조합의 범위를 확장해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상향식 전략과 작가나 세상에 대한 지식, 유추를 통해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향식 전략으로 구성된다. 또한 보조적 전략은 인지적이나 정의적인 활동 외에 보조적인 방법을 통하여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본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기술과 함께 각각의 텍스트의 분석과 이해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여 읽기의 교수·학습을 돕고자 한다.

3) 태도

좋은 독자란 읽기를 잘 수행하는 것과 함께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독서하는 습관을 갖춘 독자를 의미한다. 한국어 읽기 교육의 목적이 한국어 텍스트를 통하여 한국어 구문 및 표현을 익히고 텍스트에 반영된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간접 경험하며 더 나아가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초급 과정부터 학습자들로 하여금 읽기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하며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읽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하였다.

3.6. 등급별 성취 기준

등급별 성취 기준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 영역의 등급별 목표를 참고하고 본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이루는 지식, 방법, 태도의 세부 내용이 고루 포함되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언어 능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해석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글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더 높은 단계에서는 글을 감상적인 태도로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 초급

초급 단계는 한글의 자모를 익히고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 한글의 자모를 식별하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 의미가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간단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속 표지나 지시문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단어와 문장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쉽고 간단한 주제의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2) 중급

중급 단계는 친숙한 소재나 비전문적인 내용으로 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접하고 읽기 능력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 한자어의 구성을 알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해할 수 있다.
- 친숙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실용문을 읽고 주요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설명하는 글을 읽고 글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할 수 있다.
- 사회·문화적 소재의 글을 읽고 글에 나타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 관심 있는 분야의 실용문이나 비전문적인 글을 사전에 활용하여 읽을 수 있다.

-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글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짧고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출현 빈도가 보통인 속담과 관용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글을 읽고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3) 고급

고급 이상의 단계는 친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소재와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전문 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접하고 읽기 능력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글의 장르에 따른 문체와 어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자주 접하는 속담과 관용 표현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 전문 영역에서 쓰이는 한자 어휘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함축적, 은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복합적인 내용의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친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소재(시사, 전문 분야 등)에 관한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술적인 글을 읽고 핵심 개념과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글을 쓴 목적과 이유를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 복합적인 사안을 다룬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읽을 수 있다.
- 문학 작품을 읽고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 맥락적 단서나 어휘 분석을 활용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며 읽을 수 있다.
- 사회·문화적 소재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적절성이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
- 논점이 뚜렷한 글을 읽고 자신만의 관점 또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 새로운 관점의 글을 읽고 자신의 입장과 비교할 수 있다.

3.7. 등급별 내용 기술

1) 초급

가. 지식

문자·어휘·문법

- 자모와 음절, 음소를 구별하는 음성 자질, 단어의 음성학적 조성
- 장소 관련 어휘, 교실 관련 어휘, 가족 관련 어휘, 음식 관련 어휘, 날짜 관련 어휘, 숫자 관련 어휘, 날씨 관련 어휘, 취미 관련 어휘, 교통 관련 어휘, 쇼핑 관련 어휘, 외래어 등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된 기본적인 문장 구조, 서술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등 문장의 종류,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으로 구성되는 의문문, '그리고', '그러나' 등과 같은 자주 쓰이는 접속사, 기본적인 조사(이/가, 은/는, 을/를, 에 등), 기본적인 연결어미(-고, -아/어서, -지만 등), 기본적인 시제 표현, '안'과 '-지 않다'로 이루어지는 부정문, 'ㄴ', 'ㄹ', 'ㄷ' 불규칙 동사

텍스트 주제

- 가족 소개, 약속, 하루생활, 날짜, 요일, 시간, 가격, 자기소개, 개인 정보, 인사말, 한글 소개, 한국어 소개

텍스트 유형

- 【정보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한국어교육용 대화문/담화문, 픽토그램(장소, 위치, 규칙, 일기예보 등), 지도(노선도, 관광지 약도 등), 안내 문구(목적지, 시간, 특정 정보, 출입, 방향 등), 이름, 주소, 학년반 표시, 신분증, 명함, 티켓(교통편, 공연/장소 입장권 등), 화폐, 간판, 제품명, 메뉴, 일정표(시계, 달력, 시간표, 다이어리 등), 일기예보, 안내문(미아 찾기, 간단한 공지), 내복약 설명서, 현금 자동 지급기 메뉴
-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텍스트】
간단한 문자/SNS 메시지(인사, 질문, 약속 확인, 축하, 감사 등), 축하 카드, 초대장, 간단한 안부/감사 편지,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일기

텍스트 구조

- 【문장과 담화 수준의 텍스트 구조】
단문이나 간단한 대등, 종속 접속문으로 구성된 짧은 글(4~8문장, 1~2문단), (도입)-본문-(마무리) 중 일부가 빠진 불완전한 3단 구성, 동일한 수사 구조가 부분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순 반복 구조
- 【텍스트 유형에 기반한 텍스트 구조】
▷ 설명적 텍스트: 중심 내용과 이를 부연하는 세부 내용의 위계형 구조가 불완전함. 문

장의 나열이 주를 이룸. 세부 내용 제시도 예시나 간단한 원인, 이유 설명 정도 수준
▷서사적 텍스트: 앞, 뒤의 내용이 연관되어 이어지는 연쇄형 기본 구조를 따름. 사건의 상세화는 나타나지 않음.

나. 방법

기술

➤ 사실적 이해

-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을 식별하여 읽는다.
-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며 읽는다.
- 문장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는다.
- 글의 중심 소재를 찾는다.

전략

➤ 상위 인지적 전략

- 집중하기, 오류 모니터하기, 메시지의 중요한 측면 인지하기, 읽기 속도 조절하기, 멈추고 생각하기, 읽기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자기 질문하기

➤ 인지적 전략

- 쉽고 간단한 어휘를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문장 구조에 주의 기울이기, 문법 형태 이용하기, 예상하기, 다시 읽기, 시각적 이미지 활용하기

➤ 보조적 전략

- 표시하면서 읽기, 메모하면서 읽기, 사전을 찾으면서 읽기

다. 태도

태도

- 글자, 낱말, 문장 및 한국어로 된 글에 흥미를 갖는다.
- 글에 대한 경험과 반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2) 중급

가. 지식

문자·어휘·문법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구성과 차이
- 건강과 신체 증상 관련 어휘, 사회 관련 어휘(친구, 동료, 선후배 등), 공공기관 관련 어휘,

집과 주거 관련 어휘, 초대, 방문, 모임 관련 어휘, 성격과 감정 관련 어휘, 공연과 감상 관련 어휘, 여가 생활과 문화 관련 어휘, 여행과 숙박 관련 어휘

- 다양한 의미의 조사((이)나, 밖에, 에다, 만큼, 더러/보고 등), 회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더, -더라고, -던, -던데 등), 비교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으)ㄴ/는 만큼, -에 비해(서)), 추측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나 보다/(으)ㄴ가 보다 등),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므로, -(으)로 인해, -길래, -는 바람에 등),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아/어도 등),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피동 표현, 부정 표현(아무 등), 반말

텍스트 주제

- 가족, 건강, 교육, 사건, 사고, 재해, 음식과 요리, 주거와 집, 초대, 방문, 모임, 교통, 일상 생활, 성격과 감정, 날씨와 기후, 공연과 감상, 직장 생활, 여가와 문화, 여행과 숙박

텍스트 유형

- 【정보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친교적 자기소개서, 제품 광고, 간단한 구인/모집 광고, 시설 이용 안내문, 경고/사용불가 안내문, 간단한 주택 매매 광고문, 자세한 길 안내문, 직장 내 표지/안내문, 관공서 이용 절차 안내문, 플래카드의 기본 정보, 평이한 상품/제품 설명서, 여행 안내문, 여행 광고문, 호텔/항공 예약 사이트, 영화/공연 포스터, 분실물 안내문, 사진 신문 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신문 기사, 연예나 사회 관련 뉴스 헤드라인, 평이한 인터뷰 기사, TV 프로그램명, 책/영화/공연 제목, 한 줄 정도의 서평/영화평/공연평, 영화/공연 포스터, 요리/조리법, 일상생활에 관한 블로그/SNS, 평이한 성격의 텍스트, 시험지 지시문, 성적표, 그래프/도표, 공익광고, 제품광고, 구인/모집 광고, 미술관/박물관 설명문, 친숙한 대상에 관한 설명문

-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노래 제목, 평이한 노래가사, 평이한 수필/여행 감상문/독서 감상문, 평이한 소설/시/시나리오/희곡/만화의 일부분

-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

평이한 입사 지원서, 학업 계획서, 평이한 논설문, 평이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평이한 서평/영화평/공연평, 평이한 제안서

-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

안부/축하/감사/위로/격려/문의 메시지/전자우편(이메일)

텍스트 구조

- 【문장과 담화 수준의 텍스트 구조】 복잡한 대등, 종속 접속문, 간단한 내포문을 포함한 복문으로 구성됨(2~3문단), 도입-본문-마무리의 완전한 3단 구성을 갖추었음. 전반적으로 단순, 반복 구조를 보이거나 일부 복합적이고 변형된 구조가 나타남.

- 【텍스트 유형에 기반한 텍스트 구조】

▷설명적 텍스트: 중심 내용과 이를 부연하는 세부 내용의 위계형 구조를 갖추. 세부 내용 설명 시 간단한 나열, 비교/대조, 예시, 원인/결과의 미시 구조가 나타남.

▷논증적 텍스트: 주장 내용과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위계형 구조를 갖춘. 세부 내용 설명 시 간단한 비교/대조, 예시, 원인/결과, 문제/해결의 미시 구조가 일부 나타남.

▷서사적 텍스트: 앞, 뒤의 내용이 연관되어 이어지는 연쇄형 기본 구조를 따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순한 구조가 주를 이룸. 간단한 상황, 배경 설명 일부 나타남.

나. 방법

기술

➤ 사실적 이해

-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글의 중심 소재를 찾는다.
- 글의 핵심 어휘를 찾는다.
- 각 단락별로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을 구분한다.
- 각 단락별로 중심 내용을 찾는다.
- 글의 인물, 배경, 사건을 파악한다.

➤ 추론적 이해

- 글의 주제문을 찾고 주제를 추론한다.
- 작가가 글을 쓴 의도나 동기,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나 문장, 단락을 찾는다.
- 작가의 감정이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나 문장, 단락을 찾는다.
- 시대적, 사회 배경,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의미를 해석한다.

➤ 비판적 이해

- 글을 읽고 소재와 관련된 작가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글을 읽고 작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감상적 이해

- 문학 작품을 읽고 작가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 문학 작품을 읽고 작가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문학 작품을 읽고 작가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전략

➤ 상위 인지적 전략

- 자신의 과정 평가하기, 집중하기, 읽기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자기 질문하기, 이해에 있어서 실패가 감지될 때 행동을 수정하기, 읽기 속도 조절하기, 읽기 방법 조절하기, 읽기 방법 생각하기, 멈추고 생각하기, 평가하기

➤ 인지적 전략

- 쉽고 간단한 어휘를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문장 구조에 주의 기울이기, 문법 형태 이용하기, 예상하기, 다시 읽기, 시각적 이미지 활용하기, 문법 형태 이용하기, 음절로 나눠 읽기, 각각의 대명사 이해하기, 문장 구조에 주의 기울이며 읽기,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며 읽기,

제목이나 사진 이용하여 내용 추측하기, 훑어 읽기, 건너뛰기, 배경지식 이용하기, 문맥 이용하기, 다시 읽기, 예상하기, 글의 구조 파악하기

➤ **보조적 전략**

- 핵심 어휘나 내용에 표시하면서 읽기, 메모하면서 읽기, 사전을 찾으면서 읽기

다. 태도

태도

- 읽기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가지며 다양한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는다.
- 읽기를 통해 한국과 자국의 일상생활과 예절에 대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한다.
- 읽기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 세계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고 자신의 문화와 다른 한국의 문화를 이해한다.
- 읽기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능동적인 태도로 임한다.

3) 고급

가. 지식

문자어휘·문법

- 문체와 어조
- 건강과 신체 증상 관련 어휘, 과학기술 관련 어휘, 교육 관련 어휘, 사회 문제(정치, 경제, 환경, 사건, 사고 등) 관련 어휘, 예술 관련 어휘, 직업 관련 어휘, 전문 분야 관련 어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 일상생활, 미디어 등에서 접하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 등
-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표현(주체, 객체, 상대 높임), 문어에서 사용되는 인용 표현(-다는 것이다, -다는 말이다, -에 의하면(따르면) 등),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표현(-(으)ㄴ/는/(으)ㄴ 듯하다, -(으)ㄴ/는/(으)ㄴ 모양이다, -(으)ㄴ지도 모르다 등), 회상을 표현하는 연결어미 (-더라니, -더니만 등), 대조·대립을 나타내는 연결 표현(-(으)나, -(으)ㄴ 반면에, -(으)면서도, -고도 등),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표현(-기에, -(으)ㄴ/는 덕분에(탓)에, -(으)ㄴ 나머지 등),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 표현(-느니, -(으)ㄴ 바에야, -다기보다는), 조건·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자면, -지 않고서는, -는 날에는, -다고 치다 등)

텍스트 주제

- 건강, 과학, 교육, 뉴스/시사 문제, 미디어, 생활, 예술, 일과 직업, 전문 분야, 책과 문학, 한글과 한국어, 휴일

텍스트 유형

·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설명문, 인터넷 게시 글(정보 제공), 인터넷 뉴스, 신문 헤드라인, 일반적인 신문/잡지 기사, 전문적인 주제의 신문 기사, 다큐멘터리 자막, 시사 프로그램 자막(정보 제공), 영화/드라마 자막, 생활 과학 상식, 백과사전(일반적인 정보), 자신의 전문 분야 강의 자료(PPT/간단한 강의안), 업무 보고서, 각종 계약서

·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수필/소설/시/시나리오/희곡/만화, 우화/설화/민담

·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학업 계획서, 관찰 보고서, 연구 계획서, 학술 보고서, 학술 논문, 제안서, 기획서, 논설문, 대자보, 인터넷 게시 글(의견), 논설(논평/사설/칼럼), 시사 프로그램 자막(의견피력), 토론 프로그램 자막서평/영화평/공연평

·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

사회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서/건의문/상담문, 일반적인 축하/기념사, 인터넷 댓글, 종교적인 글(성경/경전 등)

텍스트 구조

· 【문장과 담화 수준의 텍스트 구조】

복잡한 복문으로 구성됨(3문단 이상), 도입-본문-마무리의 완전한 구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부연, 상세화 등이 추가된 풍부한 구조. 전체적인 구조는 복합적이고 변형된 구조

· 【텍스트 유형에 기반한 텍스트 구조】

▷ 설명적 텍스트: 중심 내용과 이를 부연하는 세부 내용의 위계형 구조를 갖춘. 세부 내용 설명 시 비교/대조, 예시, 원인/결과의 다양한 미시 구조가 나타남.

▷ 논증적 텍스트: 주장 내용과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위계형 구조를 갖춘. 세부 내용 설명 시 비교/대조, 예시, 원인/결과, 문제/해결, 진술에 대한 평가, 주장에 대한 반론 등의 다양한 미시 구조가 나타남.

▷ 서사적 텍스트: 앞, 뒤의 내용이 연관되어 이어지는 연쇄형 기본 구조를 따름. 상황, 배경 설명, 강조 등의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도입한 미시 구조를 보임.

나. 방법

기술

➤ 사실적 이해

-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 글에서 세부 정보를 찾는다.
- 글에 나타난 지시어나 지칭어의 대상을 파악한다.
- 글에 나타난 도표나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의 의미를 해석한다.

- 글의 중심 소재를 파악한다.
- 글의 제목을 이해한다.
- 담화 표지에 유의하여 글 전체의 조직 및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추론적 이해

- 글의 제목, 소재를 통해 주제를 추론한다.
- 문장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다.
- 단락이나 문장의 순서를 파악한다.
- 글 제목을 추측한다.
- 전후 이야기를 유추한다.
- 문맥에서 의미를 추론한다.

➤ 비판적 이해

- 글에 나타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 글을 쓴 목적과 이유를 파악한다.
- 글의 논점을 파악한다.
- 글의 분위기를 파악한다.
- 글 내용의 정당성이나 적절성을 평가한다.

➤ 감상적 이해

- 텍스트의 미적 구조와 글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양상을 이해한다.
-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이해하고 글의 가치를 판단한다.
- 텍스트의 내용이나 문학적 구조 속에 나타난 비유, 정서, 인물의 심리 및 삶의 태도를 음미한다.
- 텍스트만을 고립적으로 읽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전략

➤ 상위 인지적 전략

- 글을 읽는 목적 설정하기, 글 읽는 속도 조절하기, 글의 유형에 따라 읽는 방법 정하기, 글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읽기, 글을 읽으면서 잘못된 이해 알아차리고 멈추거나 다시 읽기, 읽기 과정이나 전략을 인식하면서 글 읽기

➤ 인지적 전략

- 글의 부분에 주의 기울이기, 번역하기, 문장 구조에 주의 기울이기, 음절로 나누기, 어절로 나누기, 환언하기, 각각의 지시대명사 이해하기, 문법 형태 이용하기, 제목 이용하기, 훑어 읽기, 건너뛰기, 배경지식 이용하기, 문맥 이용하기, 가려 읽기, 다시 읽기, 마음에 그림 그리기, 번역하지 않기, 예상하기, 감정 조절하기

➤ 보조적 전략

- 핵심 어휘나 내용에 표시하면서 읽기, 메모하면서 읽기, 사전을 찾으면서 읽기, 보조 읽기 자료 사용하기

다. 태도

태도

- 읽는 목적에 맞게 좋은 글을 스스로 찾아 읽을 수 있다.
- 자발적인 글 읽기를 통해 글의 내용에 공감하고 읽는 즐거움을 깨닫는다.
- 다른 사람과 글 읽기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 학술적인 글을 통해서 학문적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읽기 태도를 지닌다.
- 읽기 텍스트를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역사·문화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태도를 갖는다.

3.8. 등급별 교수 방안

1) 초급

- ① 한글의 자모를 식별하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알게 한다.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익는 것은 글자의 해독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여 한글 자음과 모음의 종류를 알고 그 결합 방식을 파악하게 한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이 이루어지는 한글 자모음표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법은 한글 자모의 결합 방식과 소리와 철자의 대응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교육 방법이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을 이해한 후에는 간단하고 쉬운 한 글자 낱말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글자의 짜임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둔다.

- ② 일상생활 속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음운 식별과 단어의 재인을 지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쉬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장소 관련 어휘, 쇼핑 관련 어휘 등을 제시한다.

③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낱말과 문장 단위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하되 소리와 글자가 다른 경우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학습한 변화의 원리를 동일한 변화가 있는 다른 낱말이나 문장에도 적용하여 읽을 수 있게 한다.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글자의 모양과 발음을 연결시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글자의 뜻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단어와 문장을 바르게 읽게 한다.

한국어의 어휘는 소리대로 표기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다는 것을 터득해야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문장은 어절 단위 혹은 구나 절 단위로 끊어서 읽어야 하며 어절의 경우에도 단어 뒤에 오는 다양한 조사와 어미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발음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 단어와 문장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발음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교수의 초점을 둔다.

⑤ 의미가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게 한다.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띄어 읽으면 읽기의 유창성을 높일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띄어 읽기는 글의 의미 단위와 일치될 때 가장 적절하다. 띄어 읽기의 방법을 알고 어절별 띄어쓰기를 고려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며, 문장 부호의 쓰임에 따라 알맞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⑥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간단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음운 식별에서 나아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유창한 읽기를 위해 필수

적이다. 초급 단계 학습자의 경우 읽기 소재 및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은 있되 언어에 대한 지식은 적으므로 배경 지식이 언어에 대한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급

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이해하게 한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이해는 한국어 어휘 인식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에 대한 발전적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한자어의 구성과 외래어 표기 규칙 등의 제시를 통해 한국어 어휘에 대한 이해와 확장을 돕도록 한다.

② 친숙한 사회적 소재의 글, 설명문, 실용문 등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준다. 따라서 글의 종류에 맞게 글의 구성이나 단락의 흐름에 맞게 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때 글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핵심어 찾기, 단락의 중심 내용 찾기, 단락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여 대강의 내용 파악하기 등의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설명문의 경우 전체의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장르의 특성에 맞게 문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나 그림을 이용해 글의 구조와 내용을 도식화해 보는 것도 주요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이나 게시문, 신청서와 같은 실용문의 경우 해당 장르의 구성상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구성이 중요한 생활문, 기행문과 같은 글의 경우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며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의미를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경우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

도 좋지만 앞뒤 문맥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는 전략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읽기는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의미를 재구성할 때 더욱 의미 있는 학습이 된다. 읽기 학습 시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 속의 내용을 확인, 해석, 추론, 비판,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미리보기, 질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자는 글을 읽으며 자신의 지식, 경험, 생각, 판단 등을 글의 내용 이해에 적용함으로써 글을 더욱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이는 텍스트 속에 담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짧고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게 한다.

한국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담긴 한국인의 생활, 사상, 가치관, 삶의 자세, 고유의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먼저, 학습자들은 짧고 단순한 한국의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학 작품의 장르에 따라 그 방법과 전략을 달리할 수 있는데 간단한 수필의 경우 시간적 순서나 인과 등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소재에 대한 작가의 태도, 감정 등을 추측하고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구성의 단편 소설의 경우 소설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파악해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여 줄거리를 구성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출현 빈도가 높은 속담과 관용 표현을 익히게 한다.

한국의 속담과 관용 표현에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어 이를 학습함으로써

써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의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도가 높은 속담이나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도록 한다.

⑥ 다양한 글을 읽고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의 차이점을 알게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읽기 텍스트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읽기 텍스트를 통해 획득한 문화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익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해야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011)에 따르면 해당 급 문화 영역의 목표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는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것,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한국인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 나이, 성,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 사회적 변수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에서 학습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호칭, 사회생활 등의 한국의 문화를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읽기 수업이 실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읽기 텍스트와 관련지을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살펴보면 한국의 전통 놀이 해 보기, 여러 가지 명절의 풍습 경험하기, 나이, 성,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하기(반말과 높임말 사용), 적절한 호칭으로 상대방 부르기, 한국인의 개인적 활동(동아리, 모임 등)에 참석하기, 한국인의 사회적 생활(학교생활, 직장 생활 등)에 참여하기, 특별한 날 먹는 음식 경험해 보기(생일, 이사), 한국인의 특별한 행사(결혼식, 잔치, 집들이 등)에 참석하기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3) 고급

① 글의 장르에 따른 문체와 어조의 차이를 알게 한다.

작가의 태도나 개성이 드러나는 문체의 특성과 어조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

은 글의 장르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종류의 글에 나타난 문체의 특성(추상적, 해설적, 요약적, 구체적, 사실적 서술)이나 사건에 대한 작가의 어조(해학적, 냉소적, 반어적, 풍자적 어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지도한다.

- ② 출현 빈도가 높지 않은 어휘와 표현을 일부 알고 함축적인 의미의 표현을 이해하게 한다.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쓰이는 어휘와 표현, 공식 담화에 나타나는 격식적인 어휘와 표현, 글에 나타난 함축적 표현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영역(직업/학술 분야 등)에서 쓰이는 한자 어휘의 일부, 자주 접하는 속담과 관용 표현의 대부분과 자주 접하지 않는 일부 속담과 관용어, 공식 담화(연설문, 강연록, 신년사, 송년사, 축사, 기념사 등)에 나타난 격식적인 표현,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함축적 표현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다룬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진행한다.

- ③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복합적인 내용의 글과 친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소재에 관한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분야나 소재(환경/과학기술/교육제도 등의 시사 문제, 직업 영역/학술 영역 등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읽을 때는 세부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보다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핵심어 찾기, 단락별 중심 문장 찾기, 훑어 읽기, 중요하지 않은 내용 건너뛰기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한다.

- ④ 장르에 따른 글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고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고급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글을 접하게 되고 비교적 길고 복합적인 구성의 글을 읽어야 한다. 이때 장르에 따른 글의 구성의 차이와 주요 정보를 파악하는 방

법을 지도하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문에서는 설명의 대상과 목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논설문에서는 글쓴이의 주장과 논거를 중심으로 글을 읽게 한다. 감상문을 읽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경험과 반응을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룰 수도 있다. 사건/사고 등을 다룬 기사문에서는 일어난 일의 인과관계와 시간적 순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하며, 기사문, 광고문, 광고 등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학 작품의 갈래(시, 소설, 수필, 희곡, 동화 등)에 따른 감상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⑤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글을 쓴 목적과 이유를 파악하게 한다.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텍스트의 내용만을 고립적으로 읽지 않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텍스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언문, 문화 해설서, 전기문 등의 글을 읽을 때에는 관련된 배경을 이해하고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을 쓴 목적과 이유, 글쓴이의 의도 등을 추측하게 할 수 있다.

⑥ 목표 문화와 관련된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문화와 관련된 글을 읽을 때는 독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문화적 관점, 가치관,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이념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글을 읽은 후에 자신의 문화와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하거나 같은 소재를 다루되 다른 관점으로 쓰인 새로운 텍스트를 읽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추론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논점이 뚜렷한 글을 읽고 자신만의 관점 또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논평, 사설, 칼럼 등 글쓴이의 논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에 나타난 주장이나 근거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게 한다. 또한 글에 나타난 논점과 주장, 근거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주장과 논리에 동의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9. 등급별 평가 방안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자의 배경 지식,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읽기 능력, 읽기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1) 초급

- ① 글자, 낱말, 문장 읽기와 적절한 띄어 읽기는 읽기 수업에서 돌아가며 읽기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간에 서로 평가하게 하는 동료 평가도 가능하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읽기 수준을 자연스럽게 점검해 보게 된다.
- ② 학습자들이 한글의 자모를 식별하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아는지 평가할 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종류를 알고 그 결합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음운 변동이 없는 낱말이나 문장부터 연음 현상, 다양한 음운 규칙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 ③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지나 표지어의 의미를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빈도수가 높고 난이도가 낮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사물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직접 말해 보게 하거나 그림과 사물을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 ④ 일기, 편지 등 간단한 생활문을 읽고 글의 종류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메모, 영수증, 광고문 등 간단한 실용문을 읽고 학습자가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2) 중급

- ① 실제의 언어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을 잘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② 친숙한 사회, 문화 등의 소재를 다룬 간단한 글을 읽고 글의 장르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주제와 중심생각 파악하기 등의 내용 확인과 내용 추론에 대한 읽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단락의 중심 문장 파악하기, 요약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글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이때 글에 나타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바꿔 쓰기를 통해 자신의 말로 바꾸어 요약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 사건, 배경의 파악, 글을 쓴 의도나 동기,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절 찾기, 작가의 감정이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나 문장, 단락 찾기 등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 ④ 읽기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형, 서술형의 평가뿐만 아니라 발표, 감상문 쓰기, 요약하기, 과제 수행 등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관한 폭넓은 평가가 되도록 한다.

3) 고급

- ① 친숙하지 않은 소재를 다룬 글을 읽고 글의 장르를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생략된 내용 파악하기, 표제어 읽고 글의 내용을 추측하기, 다양한 장르의 전문적인 글 읽고 주요 내용 파악하기, 작가 의도 파악하기, 함축된 의미 이해하기 등 추론적 사고에 의한 읽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글에 나타난 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을 추측하기, 문맥을 통해 인물의 마음이나 처지를 파악하기, 글에 나타난 사건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표현하기, 문학적인 글에 대한 감상과 비평, 글의 가치 판단하기 등의 읽기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습자들과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 ③ 평가에 사용되는 글은 복잡한 문단의 연쇄로 이루어진 것, 격식적인 표현을 포함한 것,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 등으로 구성하되, 글 속의 단편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글 전체에 대해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구성한다.
- ④ 읽기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형, 서술형의 평가뿐만 아니라 발표, 감상문 쓰기, 요약하기, 과제 수행 등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관한 폭넓은 평가가 되도록 한다.

V.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

본장에서는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의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읽기 교육 모형에서의 수업 절차는 읽기 과정을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은 후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선행 지식이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선행 지식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텍스트 기반(text-based) 지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글을 읽기 전에 주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며 읽는 목적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그림, 표 등 글과 관련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읽을 자료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읽을 글의 내용 및 형식과 관련한 스키마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글의 이해에 필수적인 언어나 배경지식을 이 단계에서 준비시켜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읽기 단계는 개인 활동, 짝 활동, 소그룹 활동으로 글을 읽고 과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읽기 전략의 연습과 담화의 이해가 활동의 핵심이 된다. 대체로 읽기 단계의 활동은 글의 전반적인 이해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이해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은 후 단계는 학습자가 읽은 것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과 연결하거나 읽은 것을 토대로 하여 또 다른 교실 활동을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돕는 단계이다. 읽기에 필요한 특정 문법 구조나 어휘 학습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아울러 문자 언어 처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어휘 학습이나 문법 구조 파악 연습도 필요하다. 또 읽기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단계는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과 이해가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된 과제 활동을 통해 심화하고 내재화하여 학습자 내면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수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적 이해를 위한 읽기

사실적 이해를 위한 읽기 교육에서는 텍스트의 구조와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상의 정보와 구조상의 정보를 이해하며 읽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보에 대한 사실적 이해는 추론적 이해나 비판적 이해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독해 기능이다.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 속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사실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심 생각 찾기 전략을 활용한 수업 모형

단계	활동
1단계	- 학습 동기 유발 - 시각 자료를 통한 관심 유도하기 - 중심 생각 찾기 시범 및 설명
2단계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글의 구조 파악하기 -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3단계	- 요약하기 - 나라별 또는 사람별로 같은 주제에 대해 비교·대조하기

- 대상: 중급
- 텍스트 주제: 한국의 온돌
- 제목: 온돌의 역사는 바로 집의 역사이다
- 학습 주제: 글에 나타난 정보 이해하기
- 학습 목표: 설명문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읽기 전 단계]

◎ 학습 동기 유발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발문을 한다.

*교사: 여러분 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에 집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요? 무엇을 이용해요?
겨울 날씨가 아주 추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텍스트 주제와 장르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동기를 이끌어 냈다면 다음으로는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다. 여러 나라의 특별한 전통적 난방 방식이나 기구와 관련된 사진 또는 그림 자료들을 준비해서 보여 주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낸다. 현대식 난방 형태도 보여 준다. 이때 학습자들이 읽기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본 드라마 속 코타츠	* 러시아 페치카
	
* 몽골 게르 연통	* 한국 드라마 속 전기장판
	

교사: 이 사진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물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요?

본문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본문 내용을 유추하게 한다.

교사: 여러분은 ‘난방’이라는 말을 들어 봤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 - 장르 특성 학습, 내용 예측

설명문 갈래에 따른 특성을 알려 줌으로써 형식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른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명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

◎ 사실적 이해를 위한 읽기 활동 제고

작품을 읽기 전 주요 어휘 및 설명문 특유의 설명 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텍스트를 구조에 따라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읽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사실적 글 읽기에 필요한 전략을 이해하고 그 전략에 따라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실적 이해를 위한 읽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정보와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글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중심 내용 찾아 요약하기 등을 해 보게 한다.

한국의 온돌

기록에 의하면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현재의 ‘온돌’과 같은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 왔으나 ‘온돌’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에도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것이 있었으나 한국과 달리 부분적인 온돌이었다는 것이 흥미를 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중국의 온돌처럼 일부분만 온돌을 두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구려의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인의 인정과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이나 팔을 붙들고 인사를 하는 등의 접촉을 좋아하는 성격이 바로 이 온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온돌은 열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돌은 앉는 자세도 바꿨다. 차가운 바닥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의자 생활을 하는 반면 온돌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몸 전체로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대신 앉기에 편하도록 옷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의 상의는 몸에 맞게 되어 있지만 하의가 유난히 넓고 편하게 만들어진 것은 바로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돌은 집의 구조와 관계가 많다. 서양식 난방구조에서는 전체 난방을 할 수 없으므로 잠자는 침실에만 난방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러 공간은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다.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밥을 먹으면 식당이요, 손님이 오면 응접실이요,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 된다.

최근 들어 서양식 건물 형태와 난방 방식이 많이 반영되면서 우리의 따뜻한 온돌이 점

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온돌과 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인정마저 없애버리는 건 아닐지 두렵다.

◎ 전체 내용 확인하기

사실적 읽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 사실, 지식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독자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교사는 그 대상과 정보 파악에 목표를 두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읽기 단계에서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훑어 읽도록 한다. 처음 읽을 때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큰 틀만 나눠 보게 한다. 그런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교사: 온돌이 뭐예요? 한국의 온돌은 중국의 온돌과 어떻게 달라요?

온돌 환경을 가진 집의 구조는 어때요?

◎ 세부 내용 및 중심 내용 파악하기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었다면 이번에는 핵심 어휘, 중심 문장에 밑줄 긋기 전략을 사용하여 핵심 내용과 주제에 더욱 집중하도록 한다.

교사: 온돌과 한국인의 성격은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온돌이 한국인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서양식 난방 구조를 가진 집과 온돌환경의 집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니까?

[읽은 후 단계]

사실적 읽기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글의 구조, 문단의 연결 관계에 유의하면서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요약하게 한다. 글 전체의 연결성과 통일성을 확인한다. 요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로 바꾸어 요약해 본다. 사실적 읽기를 통해 파악한 정보 및 필자의 주장에 대해 옆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게 해 보는 것도 좋다. 또는 각 나라별 또는 사람별로 같은 주제에 대해 비교·대조하여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교사: 여러분 나라의 난방 방식이나 난방 방식의 영향을 받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추운 나라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어떤 난방 방식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의 활동 후 ‘쓰기’ 과제와 연계하는 것도 좋다.

교사: 각 나라의 난방 방식과 난방 방식의 영향을 받은 생활 습관, 난방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더 나아가 본 텍스트 주제(온돌)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 자국의 문화와 한국의 온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2. 추론적 이해를 위한 읽기

추론적 이해는 텍스트 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배경 지식, 원인과 결과나 시간 순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고 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와 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글의 목적 등을 추론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의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 담화 상황이나 맥락 추론하기, 작가의 태도와 화자의 의도 추론하기,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화제 추론하기 등을 통해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 추론적 전략을 활용한 수업 모형

단계	활동
1단계	- 글의 제목을 이용해 학습 내용 유추하기 -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학습 동기 유발하기 - 시각 자료를 통한 관심 유도하기 - 주제 관련 시각 자료의 의미 추론하기

2단계	- 전체 내용 훑어보고 내용 예상하기 -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 파악하기 -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추론하기
3단계	- 그림 표지의 의미 추론하기 - 한국 문화가 담긴 그림 표지 재생산하기

- 대상: 초급
- 텍스트 주제: 대중교통
- 제목: 결혼 교통 안내
- 학습 주제: 내용을 파악하여 제목 추론하기
- 학습 목표: 교통에 관련된 안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읽기 전 단계]

◎ 학습 동기 유발

교사는 글의 제목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학습자들로 부터 이끌어 낸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 안내 표지판, 교통 안내 문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다양한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읽기 주제와 자신들의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주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 여러분은 버스를 타요? 지하철을 타요?

언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무엇을 봤어요?

◎ 학습자들의 스키마 활성화

텍스트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했다면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내용을 추론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이 시각 자료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다.

☒ 다음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본 표지에 ☒를 하십시오.
 These are signs for transportation. Indicate ☒ to the signs you have seen before.



교사: 다음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본 표지에 V를 하십시오.

1. 다음 표지는 어디에서 봤어요? 무슨 의미예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2. 다음 표지는 어디에서 봤어요? 무슨 의미예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3. 다음 표지는 어디에서 봤어요? 무슨 의미예요? 왜 이 표지가 있어요? (손대지 마세요.)

◎ 픽토그램의 의미 파악하기

☒ 알맞은 것을 연결하십시오. Match each sign with the correct explanation.

- | | | |
|----|---|-------------------|
| 1) |  | • ① 기대지 마십시오. |
| 2) |  | • ②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
| 3) |  | • ③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
| 4) |  | • ④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각각의 사인을 보고 표지판의 내용을 학습자로 하여금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원래의 의미를 찾아 연결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표지판들의 의미와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켜 본 텍스트를 실제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표지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일임을 주지시키도록 한다.

[읽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추론적 글 읽기에 필요한 전략을 이해하고 그 전략에 따라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안내문의 경우 텍스트 생산의 의도, 즉 텍스트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하고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 작용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표현 전략을 파악하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나서 탑니다.
2. 지하철, 버스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합니다.
3. 지하철, 버스 안에서는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4. 지하철, 버스 안에서는 휴대 전화 통화를 짧게 합니다.



◎ 전체 내용 훑어보고 내용 예상하기

안내문을 활용한 추론적 읽기는 안내문의 특성을 파악하고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며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추론하고 실생활에서 따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읽기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단계가 초급인 만큼 텍스트 이외에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해 먼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게 도와서 텍스트 읽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준다. 위에 제시된 텍스트의 경우 녹색의 띠, 아래쪽의 삽화 등을 통해 지하철이나 버스에 대한 텍스트라는 것을 추측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 비어 있는 곳에 텍스트를 읽고

제목을 스스로 추론해 봐야 한다는 것도 미리 언급하도록 한다.

◎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가 텍스트 전체를 훑어 읽도록 한 뒤 각각의 항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 후에는 관련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안내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교사: 이런 글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사람이 내리고 탑니까? 타고 내립니까?

지하철에 할아버지가 탔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과 버스에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크게/작게 이야기합니까?

지하철과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추론하기

안내문이라는 간단하고 명료한 텍스트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공유해야 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텍스트의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한 학습자들이 그 텍스트가 함유하고 있는 숨겨진 메시지를 추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접점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교사: 왜 사람이 내린 후에 타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까?

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까?

지하철에 있는 교통약자석은 무엇입니까?

왜 지하철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1) 빈칸에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Choose the title for the blank above.

- | | |
|------------|------------|
| ① 대중교통 안내 | ② 대중교통 예절 |
| ③ 대중교통의 이용 | ④ 대중교통의 종류 |

2) 내용에 맞는 그림을 모두 고르십시오. Choose all the pictures that fit the text above.



[읽은 후 단계]

교통 표지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표지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본다.

교사: 여러분, 제가 한국의 길거리나 지하철역, 공공장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역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표지판을 만들어 다른 학습자들이 추론하도록 하는 활동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 활동으로 연계하여 자신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비판적 이해를 위한 읽기

비판적 이해는 텍스트의 내적 의미의 이해를 넘어 텍스트의 존재 자체가 지니는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비판적 읽기가 텍스트 외적인 읽기 요인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내용 이해를 넘어서서 텍스트 생

산의 의도, 즉 저자의 집필 의도를 파악하고 텍스트 생산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인 맥락과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텍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해결 방향을 설계하고 형식면에서 텍스트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창안해 내게 하는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 비판적 전략을 활용한 수업 모형

단계	활동
1단계	- 글의 제목을 이용해 학습 내용 유추하기 - 시각 자료를 통한 관심 유도하기 - 새로운 개념 및 어휘 소개하기
2단계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텍스트 구성 요인 파악하기 - 내용과 의도 파악하기 - 질문하기 - 타당성 및 신뢰성 판단하기
3단계	- 견해를 정하여 텍스트 생성하기 -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반응 수용하기

- 대상: 중급
- 텍스트 주제: 결혼과 가정
- 제목: 결혼 ‘안’ 하는 사람과 결혼 ‘못’ 하는 사람
- 학습 주제: 내용과 의도 파악하기
- 학습 목표: 기사문을 읽고 내용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읽기 전 단계]

교사는 글의 제목을 이용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즉, 결혼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게 하면서 주제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때 학습자들이 읽기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텍스트의 소재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으로 소재에 대한 이

해를 넓혀 갈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동기 유발

교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텍스트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동기를 이끌어 냈다면 다음으로는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시각 자료를 제시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시각 자료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 이해 질문을 한다.

◎ 스키마 활성화

교사: 한국의 인구 정책 포스터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사: 1970년~1980년대와 1990년~현재의 출산 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이러한 출산 정책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기사문의 구조 예시 제시

텍스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였다면 이번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사문의 구조를 익히게 하기 위해 도표를 해석하는 글을 읽게 한다. 이 단계는 본격적인 읽기 단계는 아니지만 문제의 현황, 변화 과정, 변화의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나타낸 도표를 보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한 글을 통해 기사문의 전형적인 구조를 학습자가 인지하도록 돕는다.

2 다음 그래프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십시오.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9세 중 결혼하지 않은 비율은 2000년에 27.4%에서 2010년에는 44.3%로 10년 사이에 16.9% 증가했다.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자는 주택·동료·이라고 응답했으며 여자는 라고 응답했다.



지난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1.2명으로 벨라루스, 체코, 폴란드 등과 함께 세계 193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뒤를 이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로 1.1명으로 조사됐다.

[읽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비판적 글 읽기에 필요한 전략을 이해하고 그 전략에 따라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사문의 경우 텍스트 생산의 의도, 즉 저자의 집필 의도를 파악하고 텍스트 생산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인 맥락과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에 숨겨진 텍스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표현 전략을 파악하고 이러한 표현 방법을 선택한 데서 저자가 노리는 효과에 대해서도 간파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결혼 ‘안’ 하는 사람과 결혼 ‘못’ 하는 사람

최근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정도가 결혼이 인생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미혼 남녀 비율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5월 현재 결혼하지 않은 2, 30대 남녀의 비율은 25.9%로 10년 후에는 31.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2, 30대의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직

장인 김지훈(35) 씨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주말이 되면 수상 스포츠, 암벽 등반, 사진 촬영 등의 취미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휴가를 이용해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광고 회사에 다니는 이은지(36) 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 사귀는 남자 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은지 씨는 회사에서 받은 월급 중 일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남은 돈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 쓰고 있다. 특히 자기 계발과 건강 관리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주말에는 외국어를 배우고 요가나 수영과 같은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결혼을 하면 집안일과 육아 등으로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독신의 삶을 즐기며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많았다. 게다가 남성의 8.2%, 여성의 5.6%는 결혼을 계획했다가 연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은 ‘수입이 적어서(34.1%)’, 여성은 ‘결혼 비용이 부족해서(21.5%)’였다. 실제로 여자 친구와 3년째 연애 중인 박준호(35) 씨는 요즘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여자 친구와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결혼 비용, 신혼집, 육아 등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결혼을 서두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결혼 후 대출금을 갚으며 아이까지 낳아 키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혼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초 실시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 30대 미혼 남녀의 48.1%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이었으며 불안정한 일자리,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현재 2,30대의 젊은 층은 대학 졸업 후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어렵게 취직할 후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 비용, 집값,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역시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전체 내용 확인하기/텍스트 구성 요인 파악하기

기사문을 활용한 비판적 읽기는 기사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훑어 읽도록 한 뒤 설문 조사, 통계 자료 등 텍스트에 제시된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런 다음 교사가 질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답을 찾게 한다.

교사: 현재 한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 내용과 의도 파악하기/질문하기

텍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가 파악되었다면 이번에는 내용과 의도 파악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기사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글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기사문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찾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저자의 의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 2,30대의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글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 타당성, 신뢰성 판단하기

텍스트 내용의 수용과 관련하여 텍스트 내용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텍스트의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키고 상상이나 추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고 나아가서는 종합적인 텍스트의 가치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텍스트에 제시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학습자들의 의견을 묻고 각자의 생각을 다른 학습자와 토론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합니까?

개인의 행복 추구에 맞서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텍스트에 제시된 해결 방법에 동의합니까?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읽은 후 단계]

비판적 읽기를 통해 재구성한 의미를 비평문의 형식으로 써 보는 활동으로 연계

하거나 텍스트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더 조사하여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은 후 글의 주제와 핵심 정보를 찾아 내용을 정리한 후 학습자의 견해를 덧붙여 정리해 보는 쓰기 활동으로의 연계도 가능하다.

교사: 결혼의 변화 양상과 관련된 글을 여러 편 찾아 비판적으로 읽고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결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니게 하며 한국의 전통문화 중의 하나인 궁합을 소개하는 글을 제시하여 더 읽어보게 하고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익히게 한다.

4. 감상적 이해를 위한 읽기

감상적 이해를 위한 읽기 교육에서는 텍스트의 미적 구조와 글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양상을 이해하고 작중 인물이나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며 감상적인 태도로 텍스트를 읽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상적 이해를 위한 읽기 교육에서 다루는 제재는 주로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 작품이다. 학습자들에게 문학 작품을 통한 읽기 지도를 함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이나 문학적 구조 속에 나타난 비유, 정서, 인물의 심리 및 삶의 태도를 감상적인 태도로 음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감상적 이해를 위한 읽기 교육에서는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글에 담긴 필자의 의도나 함축된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에 공감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읽기 활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읽기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 심미적 읽기 수업 모형

단계	활동
1단계	- 텍스트 주제와 장르에 대한 도입 질문하기 - 문학적 경험 유도하기
2단계	-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상력 조장하기 - 작품에 대해 탐구하기 - 문학 작품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견해 관련짓기
3단계	- 텍스트 생성하기(주요 장면 다시 써 보기) - 토의하기(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의견 교환하기)

- 대상: 고급
- 텍스트 주제: 한국의 소설
- 제목: 소설 ‘소나기’
- 학습 주제: 문학 작품 감상하기
- 학습 목표: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할 수 있다.

[읽기 전 단계]

◎ 학습 동기 유발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발문을 한다.

교사: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문학 작품을 자주 읽습니까?(시, 소설, 수필, 희곡...)

한국의 문학 작품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텍스트 주제와 장르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동기를 이끌어 냈다면 다음으로는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읽기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TV드라마 소나기 속의 한 장면 감상 	*소나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와 만화 포스터 
*소나기 마을, 소나기 축제 포스터 	

교사: ‘소나기’라는 소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의 자료들(동영상, 사진)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추측해 보게 하고 작품의 제목을 이용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 - 장르 특성 학습, 내용 예측

문학 작품의 갈래에 따른 특성을 알려 줌으로써 형식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른 올바른 감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소설 장르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

<판서>

1. 소설의 구조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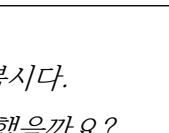
2. 감상의 초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각 전개 단계에 따른 주요 사건을 문장 단위로 제시하거나 그림(사진) 자료로 제시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예측해 보게 한다. 각 장면에서 예측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함께 구성해 본 후 각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심정을

예상해서 말해 보게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등장인물의 태도 및 감정을 연관시켜 심미적인 태도의 감상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지도한다.

<주요 사건>

발단	소년은 개울가에서 운 초시네 증손녀를 만난다. 어느 날 소녀는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소년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		
전개	소년이 개울가에서 소녀 흉내를 내다가 소녀에게 들켜지 도망간다. 소녀가 산에 올라가자고 제의한다. 산에서 꽃을 꺾다가 다친 소녀의 상처를 소년이 경성젓 보살피 준다.		
위기	산에서 소나기를 만난 소년과 소녀는 비를 피한다. 물이 불어난 도랑을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넌다.		
절정	소녀는 다시 만난 소년에게 대추를 주면서 이사 간다며 쓸쓸해 한다. 소년은 소녀를 위해 호두를 뚫다.		
결말	소년은 소녀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한다. 소녀는 추억 어린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물에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교사: 자료를 보고 작품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 장면에서 소녀(소년)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 감상적 이해를 위한 독서 활동 제고

작품을 읽기 전 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텍스트만을 고립적으로 읽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읽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감상적 글 읽기에 필요한 전략을 이해하고 그 전략에 따라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감상을 위한 읽기에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경험과 반응을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문화적 현상을 이해

하고 나아가 사회적 이념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학습자의 경우에는 문체의 특성이나 작가의 어조 등도 파악해 보게 한다.

소나기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뻥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째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별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뺨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중략)

소녀의 입술이 파아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 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 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는 안고 온 꽃뭉치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발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 놓은 수수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의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치가 망

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똑 그쳤다. 밤이 멀게졌다.

수숫단 속을 벗어 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히었다. 걸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그 뒤로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 몰래 5학년 여자 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소년은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 쪽 개울둑에 소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소년은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 동안 앓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 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인제 다 나았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 날 재밌었어……. 그런데 그 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년은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 났다. 그 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힌 일이 있지? 그 때 네 등에서 옴은 물이다.”

소년은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하략)

◎ 전체 내용 확인하기, 텍스트 구성 요인 파악하기

문학 작품을 활용한 감상적 읽기는 작품 감상을 통해 목표 문화를 이해하고, 작품 속에 담긴 목표 문화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학습자의

정서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목표 문화의 이해와 학습자 개인의 정서적 성장에 목표를 두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읽기 단계에서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훑어 읽도록 한다. 그런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교사: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소설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 내용과 의도 파악하기, 전략 사용하기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었다면 이번에는 마음에 그림 그리기, 이어질 내용 예상하기, 감정 조절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문학 작품의 감상에 더욱 집중하도록 한다. 감상적인 태도로 글을 읽으면서 텍스트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미 외에 함축적, 은유적 표현, 작가의 의도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 추가적으로 알게 된 당시의 시대상이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게 한다.

교사: 이 작품에서 ‘소나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녀의 마지막 말을 통해 무엇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이 소설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 이해하기, 작중 인물에 공감하기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해 작가 또는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게 하거나 문학 작품 속의 경험이나 사건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게 유도한다. 학습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정서적 감응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유용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점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이 감상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 읽기 지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학습자는 한국어 문학 작품을 활용한 읽기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 목적 달성 외에도 문학의 향유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문학 작품을 심미적으로 읽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감상을 묻고 각자의 생각을 다른 학습자와 토론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 여러분이 만약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작가가 작품 속에 이러한 장면을 넣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을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읽은 후 단계]

감상적 읽기를 통해 학습자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반영하여 작품에 나타난 사건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해 보게 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창의적으로 개작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는 소설 소나기와 유사한 자국의 문학 작품에 대해 조사해 보고 다른 학습자들과 여러 작품의 차이에 대해 비교 탐구를 함으로써 토의 시간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읽기 수업에서는 작품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토의의 주제를 정할 수 있는데 소설 작품의 경우에는 주제나 인물의 성격, 서술 방식, 작품 속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시 작품을 다루는 경우라면 주제, 수사법, 시 속에 나타난 상징과 비유, 작품 속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 등을 주제로 토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학습자들과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읽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토의 활동을 통해 각자의 글 읽기 경험을 공유하여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통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사: 여러분이 소년(또는 소녀) 입장이 되어 소설 ‘소나기’ 속의 주요 장면을 상상하여 다시 써 보십시오.

교사: 여러분 나라에도 한국 소설 ‘소나기’와 비슷한 주제나 소재를 다룬 문학 작품이 있습니까? 그 작품에 대해 조사해 보고 유사점과 공통점을 찾아 비교 문화적인 관점으로 토의해 보십시오.

VI.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실제

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적용

1.1. 등급별 성취 기준 활용 방안

읽기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3.6절에서 제시된 읽기 교육과정의 등급별 성취 기준에 따라 읽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읽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급

성취 기준	· 한글의 자모를 식별하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 의미가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간단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속 표지나 지시문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단어와 문장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쉽고 간단한 주제의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활용 방안	· 한글의 자모 학습 후 간판이나 책 제목,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에 적힌 낱말이나 문장 등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다. 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서점, 상점 등의 간판, 책 제목,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제목(헤드라인) 등을 정확하게 발음하며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 개인적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가 쓰인 간단한 텍스트를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명함, 편지 봉투 등에 적힌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읽고 의미가 드러나도록 띄어 읽기를 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시각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안내문, 게시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 식당 메뉴판, 동아리 모집 게시글, 공연 안내문, 광고 전단지 등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간단하고 친숙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주제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기소개 및 가족 소개, 하루 일과, 특별한 날의 일기 등과 같은 주제의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간단한 안부 편지나 전자우편(이메일)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의 편지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읽고 주요 내용(안부, 용건)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수, 날짜, 시간, 가격 등)가 표시된 기차표, 비행기 표, 가격표, 시간표 등을 읽고 정보의 주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비행기 표, 여행 일정표, 영화관 시간표, 기차표, 슈퍼마켓의 가격표, 일기예보 등을 읽고 핵심이 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간단한 주제의 짧고 복잡하지 않은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예) 여행지에서 쓴 엽서, 여행을 다녀온 경험, 한국에서 체험한 일 등을 쓴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여행 경험, 한국 생활 경험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

2) 중급

성취 기준	· 글의 장르에 따른 문체와 어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자주 접하는 속담과 관용 표현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 전문 영역에서 쓰이는 한자 어휘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함축적, 은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복합적인 내용의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친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소재(시사, 전문 분야 등)에 관한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술적인 글을 읽고 핵심 개념과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글을 쓴 목적과 이유를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 복합적인 사안을 다룬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읽을 수 있다. · 문학 작품을 읽고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	---

	· 맥락적 단서나 어휘 분석을 활용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며 읽을 수 있다. · 사회·문화적 소재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적절성이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 · 논점이 뚜렷한 글을 읽고 자신만의 관점 또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 새로운 관점의 글을 읽고 자신의 입장과 비교할 수 있다. · 학술적인 글을 통해서 학문적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읽기 태도를 지닌다.
활용 방안	·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다룬 신청서, 안내문, 게시 글 등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은행 통장을 개설하는 신청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신청서, 건강을 위한 건강 수칙 등을 읽고 전체 글의 단락 구성 및 단락에서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결혼, 생일, 졸업 등의 초대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청첩장, 생일 초대장, 졸업식 초대장 등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자신의 경험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 인물이나 공간을 묘사하는 글 등 자신과 친숙한 소재의 긴 글을 읽고 내용과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예) 외모나 공간을 묘사하는 글, 문화 차이로 인한 일화, 여행을 다녀온 후에 쓴 기행문, 이상형 소개의 글 등을 읽고 내용뿐만 아니라 글의 구조 또한 파악할 수 있다. · 자신과 관계있는 직장, 학교 등과 같은 주제의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업무 관련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 도서관 이용 안내 등을 읽고 주의 사항, 지시 사항 등 주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의성어, 의태어가 쓰인 광고문, 게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영화 포스터, 식당 전단지, 상품 광고지 등을 읽고 영화, 식당,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 글쓴이의 의도, 핵심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복잡하지 않은 주제의 글을 읽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이용해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예)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는 신문 사설, 독자 투고 등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 주장하는 바를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복잡하지 않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드라마나 영화의 줄거리, 드라마나 영화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물의 성격에 대한 글 등을 읽고 내용 및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짧고 간단한 시, 수필, 단편 소설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글쓴이의 태도,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국의 문화와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시대적인 한국적인 배경이 드러나지 않은 현대 작가(박완서, 은희경 등)의 단편소설을 읽거나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수필(피천득의 인연 등), 잘 알려진 시를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

3) 고급

성취 기준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 한자어의 구성을 알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해할 수 있다. · 친숙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실용문을 읽고 주요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설명하는 글을 읽고 글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할 수 있다. · 사회·문화적 소재의 글을 읽고 글에 나타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 관심 있는 분야의 실용문이나 비전문적인 글을 사전을 활용하여 읽을 수 있다. ·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글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짧고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출현 빈도가 보통인 속담과 관용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글을 읽고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활용 방안	· 논설문을 읽고 글의 구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음 단락에 나올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예) 찬반 주장이 있는 토론문,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신문 사설 등을 읽고 서론, 본론, 결론 등의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태도를 알 수 있고 본론까지 읽고 결론에 나올 내용을 추론하거나 서론을 읽고 다음 단락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전문 영역에 속한 경제, 사회, 정치, 과학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글, 신문 기사 등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어휘나 표현의 함

	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예) 경제 관련 특집 기사(불황, 환율 등), 과학 관련 글(무인 자동차 등)을 읽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본문에 제시된 표현(불황의 늪에 빠지다,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다, 인공지능 시대가 머지않다 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관심 분야나 전공 분야의 학술적인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자신의 전공 분야나 관심 분야의 소논문, 졸업논문, 학술적인 보고서 등의 핵심어를 찾을 수 있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목표 문화와 관련된 주제의 칼럼, 기획 기사 등을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쓴 칼럼 또는 한국인의 교육열에 대해 부정적으로 쓴 칼럼 등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 · 잘 알려진 한국의 문학 작품 중에서 시대적이거나 문화적인 배경을 지닌 작품을 읽고 주인공의 심경 변화, 사건 전개 및 내용 전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예) 황순원의 '소나기',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등을 읽고 주인공의 심경 변화 및 내용의 전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현진건 '운수 좋은 날',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을 읽고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성격 및 특징, 내용 전개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작품 제목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시나 시조를 읽고 작품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예) 김춘수의 '꽃'을 읽고 '꽃', '이름', '몸짓' 등의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를 읽고 '연탄재', '발로 차다' 등의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읽고 '그늘', '눈물' 등의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 자서전, 위인전과 같은 시대·문화적인 내용이 나타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의 자서전,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들의 위인전을 읽고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 문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역사, 정치, 국제 관계와 관련된 글을 읽고 복합적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 두 나라의 외교 분쟁과 관련된 글, 역사적인 갈등으로 인한 두 나라의 대립을 다룬 글 등을 읽고 각국의 입장, 이익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

1.2. 등급별 내용 활용 방안

앞서 실시한 읽기 교육 시간에 대한 현황 및 요구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적정 교육 시간은 국내의 경우 주당 4시간, 학기당 총 40시간이며 국외의 경우에는 주당 2시간, 학기당 총 32시간이다. 학기 당 총 32시간으로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외의 경우, 각 등급별로 읽기 관련 언어 지식, 텍스트의 기본적인 문맥 파악,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 파악 등과 같은 내용 관련 읽기 학습을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되 각 교육 기관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다른 기능과 연계된 의사소통 활동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각 등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급

초급에서 제안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각 기관의 상황과 학습자의 요구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육과정을 읽기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 읽기 교육과정 중 ‘지식’ 부분을 80~90% 정도 학습하고 읽기 ‘방법’ 중 ‘기술’은 사실적 이해를 중심으로 ‘전략’은 상위 인지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자를 학습시킬 수 있다. 읽기 학습을 하는 데 상위 인지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을 먼저 학습시키는 것이 초급 학습자들에게 유용한데, 이를 바탕으로 한 융통성 있는 초급 교과과정 운영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초급에서 기본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목표는 ‘한글 자모, 한글로 표기된 문장이나 표지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 자모를 식별하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해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초급 ‘하’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또한 글자를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학습한 후에는 단어 단위, 문장 단위, 문단 단위로 구성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시수가 40시간인 경우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포함된 일상생활 속의 간단한 단어, 간단한 글, 쉽고 간단한 주제의 글을 읽고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32시간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글을 읽고 글의 주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초급 ‘상’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쉽고 간단한 주제의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글을 읽고 내용과 관련된 자신

의 경험 등을 떠올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까지는 교육 시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초급 단계의 교육 시수에 따른 성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	초급 하		초급 상	
		필수	선택	필수	선택
1	한글의 자모를 식별하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2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			
3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단어와 문장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			
4	일상생활 속 표지나 지시문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5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간단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6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7	의미가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			
8	쉽고 간단한 주제의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	
9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	
10	글을 읽고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

② 중급

중급도 초급과 동일하게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지식의 텍스트 유형 중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텍스트,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중에서 비교적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것을 골라 선택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지 교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급의 경우, 시사적인 내용의 신문 기사를 학습자들이 어려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에서 친교적 자기 소개서, 제품 광고, 구인/모집 광고 등 비교적

학습자들의 접근이 수월한 것을 다루고 사건/사고 신문 기사, 영화평, 공연평과 같은 텍스트는 학습자 수준과 요구에 맞게 선택적으로 취해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에는 수필, 여행 감상문, 독서 감상문 등이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원하지 않거나 교사가 이를 다루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제외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수업 운영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읽기 방법 중 기술에서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가 주가 되며 전략은 상위 인지적 전략, 인지적 전략, 보조적 전략을 모두 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중급에서의 또 다른 방안은 읽기 수업을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은 후 단계 순서로 진행하되, 읽은 후 단계에서는 읽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과 연계된 통합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읽은 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읽은 텍스트 주제와 유사한 주제로의 확장 활동은 고급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는 중급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중급의 기본적인 읽기 목표는 일반적인 글이나 사회적으로 친숙한 글을 읽고 글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급 하에서는 실용문, 설명문 등과 같이 일상적인 내용의 글이나 사회적으로 친숙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배경지식을 이용해 글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글을 읽으면서 글에 나타난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언어 지식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반짝반짝’이나 ‘끄덕끄덕’과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 등을 읽고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급 상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특히 한자어의 구성을 알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어 지식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여 출현 빈도가 있는 속담, 관용 표현을 학습하고 이들이 글에 나타났을 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주장하는 글이나 사회, 문화적 소재의 글을 읽고 글에 나타난 상황, 주장,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나 비전문적인 글의 경우 사전을 활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국외에서의 읽기 교육 시간이 32시간으로 줄더라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짧고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한다거나 다양한 글을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교육 시간

의 축소로 인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목표는 고급의 목표로 재수립하거나 약화된 활동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	중급 하		중급 상	
		필수	선택	필수	선택
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	√	
2	한자어의 구성을 알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	
3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해할 수 있다.	√			
4	친숙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5	실용문을 읽고 주요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6	설명하는 글을 읽고 글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7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할 수 있다.		√	√	
8	사회·문화적 소재의 글을 읽고 글에 나타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	√	
9	관심 있는 분야의 실용문이나 비전문적인 글을 사전에 활용하여 읽을 수 있다.		√	√	
10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글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11	짧고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
12	출현 빈도가 보통인 속담과 관용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	√	
13	다양한 글을 읽고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		√

③ 고급

고급도 초급, 중급과 동일하게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고급은 제시된 표준 읽기 교육과정을 모두 다루되,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수준에 따라,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등급에 비해 줄일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은 초급, 중급에서도 많이 지속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글의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중급에서는 비교적 덜 다룬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텍스트 등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급에서의 또 다른 교육 방안은 읽기 수업을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은 후 단계로 진행하면서 텍스트를 읽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고 다른 언어 기능과의 통합 활동, 유사한 주제로의 확장 활동을 모두 다루되 텍스트의 유형이나 종류를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 학습 목표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고급의 기본적인 읽기 목표는 친숙하지 않은 소재의 글이나 다양한 장르의 전문적인 글을 읽고 내용, 함축된 의미, 작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 지식 측면에서 고급의 목표는 맥락적 단어나 어휘 분석을 활용해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며 읽을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속담과 관용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시간이 32시간으로 축소되어 운영되는 경우 전문 영역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한자 어휘를 이해하는 것, 문학 작품을 읽고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 새로운 관점의 글을 읽고 자신의 입장과 비교하는 것, 학술적인 글을 통해서 학문적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읽기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 등은 선택적인 목표로 삼아 이를 고급보다는 최상급 수업에서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때 기본적인 것은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읽기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사용하는 한자 어휘를 이해하는 것을 언어 지식 목표로 두거나 문학 전공의 학습자들인 경우에는 문학 작품을 읽고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둘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	고급 하		고급 상		최상급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1	글의 장르에 따른 문체와 어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2	자주 접하는 속담과 관용 표현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				

3	전문 영역에서 쓰이는 한자 어휘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		√	√
4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함축적, 은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	√		
5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복합적인 내용의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6	친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소재(시사, 전문 분야 등)에 관한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		
7	학술적인 글을 읽고 핵심 개념과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		
8	글을 쓴 목적과 이유를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	√		
9	복합적인 사안을 다룬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	√		
10	글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읽을 수 있다.		√	√		
11	문학 작품을 읽고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		√	√
12	맥락적 단서나 어휘 분석을 활용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며 읽을 수 있다.		√	√		
13	사회·문화적 소재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적절성이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		√	
14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	√				
15	논점이 뚜렷한 글을 읽고 자신만의 관점 또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	√		
16	새로운 관점의 글을 읽고 자신의 입장과 비교할 수 있다.		√		√	√
17	학술적인 글을 통해서 학문적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읽기 태도를 지닌다.		√		√	

국외에서 한국어 읽기 수업을 32시간으로 운영할 경우 현지 학습자의 특수한 교육 상황과 여건을 반영해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개 국가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읽기 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이를 수업에 반영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대상: 일반 목적의 성인 학습자)

문제점	-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사용하기 힘들었음. -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음악, 영화와 교재에 소개된 문화 소재의 차이가 커서 읽기 수업에 동기부여가 되지 못함. - 한국 문화 내용보다는 일상적인 주제, 세계 보편적인 소재를 다루면 좋겠음. -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Integrated Korean>은 출판된 지 이미 오래되었음, 그 교재에는 신문 기사가 많은데 주로 시사성이 있는 내용들이라서 수업에서 교수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Integrated Korean>에 있는 읽기 텍스트 유형도 제한적이어서 새롭고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 사항	- 새롭고 재미있는 내용의 교육 자료로 구성된 교육과정이 필요함. - 향후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 유형의 읽기 텍스트로 구성되어야 함. -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선정할 때 읽기 수업에서 읽을 만한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함. - 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알려만 주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읽기 활동이 가능한 글이 읽기 텍스트로 선정되어야 함. 그래야 재미있게 읽기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일본(대상: 일반 목적의 성인 학습자)

문제점	- 읽기만을 위한 수업이 따로 없음. 보통 문법, 말하기 수업+읽기(또는 쓰기) 통합 수업으로 진행됨. 특히 초급에서는 읽기 수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하지 않음. - 중급에서 읽기를 수업에서 다루는 편이나 중급이라고 해도 TOPIK 2급 정도이기 때문에 긴 읽기를 다루기 힘들. - 고급 학습자는 대학에서 그리 많지 않고 한국어 교실에 있기는 하나 전문적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임, 통일된 읽기 교과 과정을 제시하여도 활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고급의 읽기 수업은 번역 중심 수업이 많음.
-----	--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 사항	- 텍스트 내용에 한국 문화 소개가 너무 많음. 읽은 후에 말하고 쓰는 등의 통합 활동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하는 것이 어려움. 문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일상적인 내용이어야 활동하기 좋다고 생각됨. - 고급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맞지 않음. 이들은 오히려 문학 작품 읽기를 더 선호하는 편임. - 문화 정보가 많이 있는 텍스트보다 문화 화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수업에서 활용하기 적합함(화용적으로 실패에 대한 일화 소개 등). - 읽기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선정하거나 집필할 때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희망함.
-----------------	---

□ 태국(대상: 일반 목적의 성인 학습자)

문제점	- 읽기 텍스트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음, 문화적인 내용이 상호문화적인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이 될 때가 많음. - 문화 정보가 많이 있는 것보다 일상적인 내용들을 소재로 한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함. - 한국 문화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 충분히 배경지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재에 읽기 전 활동이 친절하게 제공되어야 함. - 체계적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읽기 전용 교재가 필요함. - 글에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가르치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 특히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양국 간의 예민한 역사적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텍스트가 쓰인 경우가 있음.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 사항	- 읽기 전략을 텍스트 유형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거의 없음(연대 교재는 읽기 전략은 가르치기 좋지만 내용이 너무 쉽고 간단함). - 학습자 숙련도에 맞춰 전략 훈련이 가능한 내용이 교과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음.

이 조사에 따르면 국외 읽기 교육의 경우 읽기 텍스트에 담긴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교수할 때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문화

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수업 구성으로 인해 읽기 수업이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문화 관련 내용을 읽기 텍스트로 구성한 경우에는 본 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읽기 전 활동을 통해 읽을 내용에 대한 언어 지식 활동, 내용 중심 활동을 해서 읽기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읽기 텍스트 유형을 다룸으로써 학습자들이 읽기 텍스트 장르에 따른 글의 구성,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급 교과 과정은 텍스트의 유형이 주장하는 글이나 신문 기사 등에 편중되어 있는 편인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1.3. 읽기 교육과정 활용 방안

3.7절에서 제시한 등급별 내용 기술은 국내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외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수업에서는 이를 좀 더 유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들은 주로 제도권 교육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기 보다는 주말이나 방과 후를 이용해 한글학교나 종교 단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처음 접하는 언어인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까지 한국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읽기 텍스트의 주제 역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와 흥미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사진,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읽기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국 문화나 한국어가 좋아서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외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3 외국어로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중·고등학생에게 한국어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초등학생과 달리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한국어 학습자로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한국어 학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학습자 집단이다. 앞서 언급한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자 연령에 따른 읽기 교육과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급에서 다루는 주제로 적당한 것은 가족 소개, 약속, 하루생활, 날씨, 요

일, 시간, 가격, 자기소개, 개인 정보, 인사말, 한글 소개, 한국어 소개 등이다. 예를 들어 방학이나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소개하는 경우, 읽기 텍스트에서는 달력이나 여행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와 같이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은 더욱 흥미를 느낄 것이다. <그림 6>과 같이 초등학생들의 관심거리가 될 만한 활동, 운동 또는 방학 중에 흔히 하는 가족이나 친지 방문과 같은 내용을 소재로 다루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한국어 학습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글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Lies den folgenden Text gut durch und beantworte die Fragen.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우리 반은 축구 연습을 해요. 축구는 재미있어요. 목요일에는 피아노를 배워요. 음악은 재미있어요. 토요일에는 한글학교에 가요. 친구를 만나요. 토요일이 좋아요.



(1) 다음 중 맞는 것은 뭐예요? ()
Was ist richtig?

- ① 수요일이 좋아요.
- ② 음악을 좋아해요.
- ③ 축구 연습은 재미있어요.

(2) 반 친구들은 무슨 요일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Frage deine Mitschüler, welchen Wochentag sie mögen.

다음 글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Lies den folgenden Text gut durch und beantworte die Fragen.

내일부터 방학이에요. 저는 이번 방학에 할머니를 만나러 서울에 갈 거예요. 연니도 같이 갈 거예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을 거예요. 저는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해요. 여행하러 부산에도 갈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부산에서 한국어 연습도 많이 할 거예요.



(1) 다음 중 맞는 것은 뭐예요? ()
Was ist richtig?

- ① 한국에서 여행을 할 거예요.
- ② 부산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 ③ 할머니를 만나러 부산에 갈 거예요.

(2) 반 친구들에게 다음 방학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세요.
Frage deine Mitschüler, was sie in den nächsten Ferien machen.

<그림6> 일주일 계획이나 방학 계획에 관련된 읽기 자료6)

중급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로는 가족, 건강, 교육, 사건, 사고 재해, 음식과 요리, 주거와 집, 초대, 방문, 모임, 교통, 일상생활, 성격과 감정, 날씨와 기후, 공연과 감상, 직장 생활, 여가와 문화, 여행과 숙박 등이 있다. 교육이나 방문과 같은 주제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초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박물관 관람 프로그램 소개 포스터나 박물관 이용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는 게시판 글 등 실제적인

6) 국립국제교육원(2013),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교재(독일어권), 도서출판 하우.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

어린이 박물관 이용 안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박물관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곳을 이용할 경우 다음을 꼭 지켜주세요.

1. 박물관 안에서 사탕을 먹으면 안 됩니다.
2. 박물관 안에서 뛰거나 큰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3. 박물관 안에서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4. 박물관 안에서 물은 마시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음에 허물이 있습니다. 음수는 식당에서 드십시오.

그리고 박물관을 오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뭐예요? ()
Was stimmt hier überein?

① 박물관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② 박물관 1층과 2층에 식당이 있어요.
③ 박물관은 오후 8시에 구경할 수 있어요.

(2) 다음 중에서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
Wer von den folgenden Personen verhält sich richtig?

① ② ③

다음은 장난감 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Es folgen die Fragen und Antworten von der Homepage des Spielzeugmuseums. Lies sie dir gut durch und beantworte die Fragen.

자주하는 질문

질문: 박물관은 장난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요? 그리고 얼마나 걸려요?
대답: 버스 25, 37, 39번을 타십시오. 그리고 박물관 앞에서 내리십시오.
지하철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사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십시오.
그리고 박물관 앞에서 내리십시오.
버스는 오전, 지하철은 새벽부터 있습니다.

질문: 장난감 박물관은 언제 문을 열어요?
대답: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휴
요일은 없습니다.

(1) 시내에서 장난감 박물관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
Das ist die Wegbeschreibung, um aus der Innenstadt zum Spielzeugmuseum zu gelangen.
Wähle das Passende aus.

① 버스로 가면 더 빨리요.
② 지하철은 갈아타야 해요.
③ 버스와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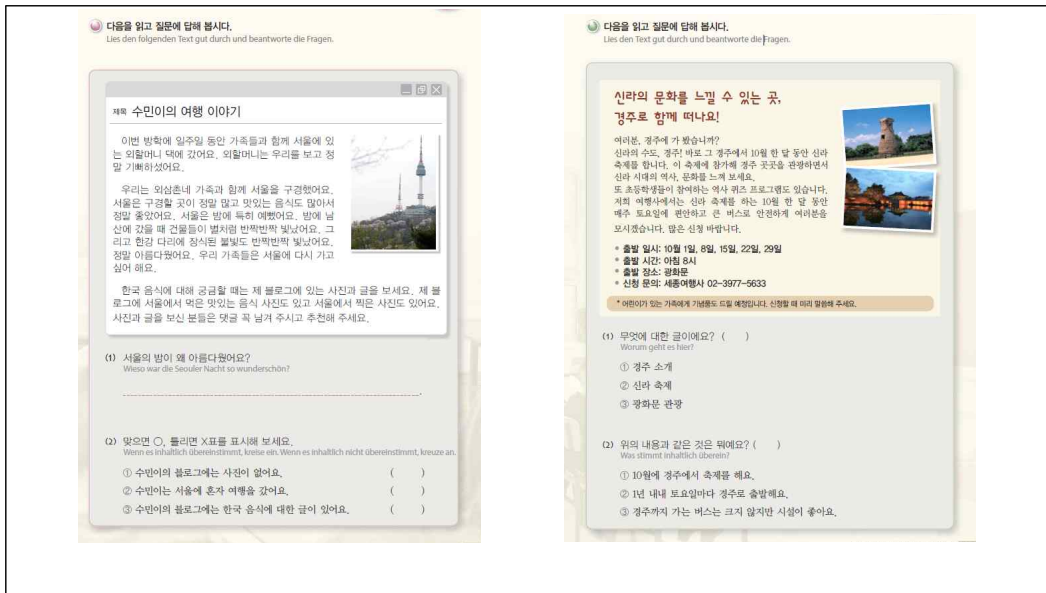
(2) 장난감 박물관을 구경할 수 없는 날은 언제예요? ()
An welchem Tag kann man das Spielzeugmuseum nicht besuchen?

① 월요일 오전 11시 ② 목요일 오후 3시 ③ 일요일 오후 4시

<그림7> 박물관 게시물, 게시판 관련 읽기 자료7)

그리고 방문이나 여가 문화를 주제로 한 읽기 수업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수업에서는 여행과 숙박을 주제로 한 <그림 8>과 같이 학교에서 다녀온 여행이나 가족과 함께 다녀온 여행에 대한 경험담을 소재로 쓴 글이나 한국 여행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읽음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인 요구도 자연스럽게 충족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 공연과 감상의 경우, 공연을 본 후 자신의 느낌을 쓴 감상문을 읽게 하면서 감상문의 장르적 형식을 학습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7) 국립국제교육원(2013),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교재(독일어권), 도서출판 하우.



<그림8> 여행 관련 읽기 자료8)

고급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로는 건강, 과학, 교육, 뉴스/시사 문제, 미디어, 생활, 예술, 일과 직업, 전문 분야, 책과 문학, 한글과 한국어, 휴일 등이 있다.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수업에서 일과 직업에서는 새로운 일에 대한 소개의 글, 앞으로 유망한 직업과 사라져 갈 직업에 대한 주장의 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설명의 글 등을 읽으면서 핵심어나 중심 내용,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등의 전략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문학 작품 중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시나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줄거리나 내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추론해 보거나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보는 등 작품에 몰입하여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수업을 운영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이 될 것이다.

<그림 9>는 환경과 교육에 관련된 읽기 자료이다. 중고등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게 주제 내용과 관련된 정보로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학습자의 인지 수준과 달리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를 읽을 때 유치하게 느끼거나 어렵게 느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8) 국립국제교육원(2013),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교재(독일어권), 도서출판 하우.

다음은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Lies dir das Folgende durch und beantworte die Fragen.

지구를 위한 한 시간 Earth Hour

'불 끄기 캠페인'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불을 끄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더 나빠질지도 모르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로 2007년에 호주에서 시작되었다.

지구는 전 세계 4,0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0남 차네 8시 30분이 되면 호주 시드니에서 불을 끄기 시작하여 대한민국 서울, 태국 방콕,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리스 로마, 프랑스 파리를 이어 미국 뉴욕, 캐나다 밴쿠버를 거쳐 사모아의 아피아까지 연이어 불이 꺼진다.

작년 서울시는 이 행사 때 한 시간 동안 불을 꺼서 23억 원의 전기 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 한 시간만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불 끄기 캠페인'은 어떤 행사예요?
Was für eine Veranstaltung ist die "Licht ausmachen-Kampagne"?

(2) 위의 글과 내용이 다른 것은 뭐예요? ()
Was stimmt inhaltlich nicht überein?

① '불 끄기 캠페인'은 호주에서 시작되었어요.
② 대한민국 서울도 '불 끄기 캠페인'에 참여해요.
③ '불 끄기 캠페인'은 2007년부터 한 달에 한 번 해요.

다음은 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꿈을 따라! 높이 날아라!
영화 제작, '남양주 꿈의 학교' 학생 모집

영화는 보기만 하는 걸까요? 청소년 여러분,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남양주 꿈의 학교'에서는 영화 제작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감독이 직접 제작 방법을 알려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실시합니다. 본 교육 과정은 영화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작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모집 기간 : 7월 3일(월)~8일(목)
- 교육 기간 : 7월 24일(월)~8월 23일(수)
- 교육 비용 : 10만원
- 교육 장소 : 남양주 영화촬영소
- 대상 : 13세~15세, 영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 모집 인원 : 50명(각 반 25명씩, 2개 반 운영)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movieschool@nyj.or.kr) 접수

1. 이 글을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① 영화를 만드는 학교에 학생을 모집하는 글
② 학교 근처 극장에서 하는 영화를 홍보하는 글
③ 영화를 싸게 볼 수 있는 극장을 알려 주는 글

2.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비를 낼 필요가 없다.
② 50명이 한 반에서 수업한다.
③ 일주일 동안 학생을 모집한다.

3. 교육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두 달 동안 진행된다.
② 영화감독이 직접 가르친다.
③ 영화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림9> 환경과 교육 관련 읽기 자료9)

2.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 및 개작 방안

2.1.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 기준

한국어 읽기 수업에 앞서 읽기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실제성, 그리고 자료 수집의 용이성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의 타당성

학습자의 숙달도 수준, 연령, 학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읽기 자료의 내용이 해당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읽기

9) 국립국제교육원(2013),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교재(독일어권), 도서출판 하우.

교육은 비단 자료를 읽으면서 구조와 의미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알아야 할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정서 함양도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읽기 자료의 주제 및 내용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동기 유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하여 읽기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학습자 개인의 경험과 연계될 수 있는 주제를 제공하는 작품은 학습자들의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어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나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경우라도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읽기 수업이 될 것이다.

② 읽기 자료의 유형(글의 종류, 장르)

학습자의 형식 스키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구조의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는 글의 구조나 형식에 대한 지식 확장과 내용 이해를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후 학습자들의 쓰기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고루 제시하는 것이 좋다(예: 설명하는 글, 논증하는 글, 비판하는 글, 설득하는 글 등).

③ 언어적, 문화적 적절성

한국어의 언어 특질은 물론 한국 문화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자료를 수업에서 사용해야 한다. 한국어의 언어적 특질과 한국 문화 요소를 동시에 잘 드러내고 있는 자료들로 보통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학 작품 중에서 자료를 선정할 경우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을 주입시키는 자료나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인상을 주는 자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좁게는 한국, 넓게는 인류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전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출신 국가, 사회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문화 요소들이 포함된 작품일수록 학습자의 동기를 이끌어내기 쉽다.

2) 내용의 실제성

① 실제적 자료

읽기 자료가 문어적 특성이 강하기는 하나 읽기의 본질이 읽기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실제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수업이 초급 단계부터 필요하다. 숙달도에 따라 실제적 자료를 사용하는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실제적 활동이 가능한 교육 자료

읽기 자료가 단순히 이해 영역의 자료로만 국한될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읽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실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읽기 자료를 사용하면서 읽기 자료의 주제나 개요 파악하기, 대략적인 내용 파악하기, 특정 정보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인 의미 파악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말하기나 쓰기의 통합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3) 자료 수집의 용이성

① 교사의 접근성

읽기 자료의 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실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가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업 자료로서의 유용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읽기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만큼 교사의 접근이 용이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자료의 출처뿐만 아니라 자료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필수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읽기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 등에서 배포하는 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2.2. 한국어 읽기 자료 개작의 유의점

한국어 읽기 자료 개작의 초점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에 둔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이 되는 것은 학습자의 숙달도 수준과 연령이다. 이 외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작은 원문의 맥락이 손상되거나 글쓴이의 논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원문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읽기 자료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한다면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는 쉽겠지만 문맥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어휘와 문법의 경우 난이도와 사용 빈도를 먼저 살펴야 한다. 빈도수에 의한 어휘 목록을 기준으로 삼아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 통용 기준과 수업 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참고하여 어휘와 문법의 등급을 확인한다. 어휘를 대량 삭제하면 난이도는 낮출 수 있지만 다양한 어휘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휘 단순화와 함께 어휘에 정의나 예를 추가하고, 긴 문장을 단순한 문장으로 나누는 등 필요한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적인 길이가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정해진 수업 시수 안에 학습이 가능한 분량이어야 한다. 한 가지의 자료 읽기에 너무 많은 학습 시간이 소요된다면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지시키기 힘들 것이다. 또한 개별 문장의 길이도 학습자의 수준에서 무난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넷째, 한국어 고유의 어휘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와 같은 표현을 ‘한국인’이나 ‘한국’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고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의 변천사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장원’, ‘다방’, ‘식모’와 같이 현재 두루 사용되지 않는 어휘는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자어나 외래어의 과잉 사용도 한국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3. 한국어 읽기 자료의 개작 방법

어휘	상세화	추가	· 해당 어휘의 동의어, 정의, 예 추가 · 문장 전체를 쉽게 다시 쓰기해서 추가 예) 구들이 지금처럼 방 전체에 놓이고 아궁이를 방 밖에 두게 된 것은 → <u>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현재의 '온돌'과 같은 것은</u> : 목표 어휘 '온돌' 추가, '온돌'에 대한 정의 추가 예) 접촉 본능은 → <u>손이나 팔을 붙들고 인사를 하는 등의 접촉을 좋아하는 성격은</u> : 예 추가		
			단순화	교체	· 저빈도 어휘를 고빈도 어휘로 교체 · 이해 가능한 다른 표현으로 대체 예) 접촉하는 것 → <u>느끼는 것</u> 예) 앉음새에 맞게 배려한 것이 → <u>앉기에 편하도록</u>
					단순화
	구조	단순화	교체	· 복잡한 문장 구조는 단순한 구조로 교체한다. · 문장을 짧게 한다. 예) 온돌이 생활에 자리 잡음에 따라 우리 생활의 여러 요소들도 파생되었다. → <u>온돌은 앉는 자세도 바꿨다.</u> : 문장 구조 단순화와 어휘 단순화(명확한 표현으로 변경 '우리 생활의 여러 요소 → 앉는 자세')가 동시에 이루어짐.	
				문장이나 단락 나누기	·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개작 작업으로 인해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을 경우 문장을 나눔. 결과적으로 문장이나 단락의 길이는 짧아졌으나 수는 늘어나게 됨. 예)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는다. 따라서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상세화	추가	· 담화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접속부사 등을 추가 ·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 문장 추가 예) 중국식 온돌은 부분적인 온돌이었다는 것이 흥미를 끈다. → 중국에도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것이 있었으나 한국과 달리 부분적인 온돌이었다는 것이 흥미를 끈다.

2.4. 한국어 읽기 자료 개작의 예

<1.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예>

* 개작 수준: 중급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온돌의 역사는 바로 집의 역사이다. (한옥, 2005. 10. 17. ㈜살림출판사)

■상: 상세화 ■단: 단순화

1) 글의 전체 구조

온돌의 역사는 바로 집의 역사이다.	
1.	문헌에 의하면 구들이 지금처럼 방 전체에 놓이고 아궁이를 방 밖에 두게 된 것은 고려 중기부터라고 한다. 고려시대까지는 빙돌, 화돌, 온기돌, 돌구 등의 이름으로 기록되다가, 성균관의 동·서재를 수리하면서 온돌 5칸을 만들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온돌'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가 되면 제주도에서도 온돌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부터 온돌이 우리 주거에 완전히 정착되어 안방과 아궁이, 그리고 부뚜막이 하나의 완전한 시설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 요약: '온돌'의 역사 문헌에 의하면 구들이 지금처럼 방 전체에 놓이고 아궁이를 방 밖에 두게 된 것은 고려 중기부터라고 한다. 고려시대까지는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다가 세종실록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온돌'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2.	중국기록으로는 5세기말에 씌어진 『수경주 水經注』란 책에서 관계산(觀鷄山)이란 곳에 승려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사(觀鷄寺)란 절을 만들었는데 이 절의 밑바닥을 가로 세로로 소통이 되도록 돌로 연결하고 그 위를 흙으로 발라 밖에서 지피는 뜨거운 불기운이 온 방안을 덥혀 겨울을 났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이 고구려의 기록보다는 100여 년 앞서 있기는 하지만 이 절이 중국 문화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고구려와 접촉이 잦은 국경부근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3.	▶ 삭제: 글의 흐름상 불필요, 난이도 상 그러나 중국식 온돌은 방 전체에 대한 전면온돌이 아닌 일부분에만 시설한 부분온돌이었다는 점에서 흥미가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입식생활을 했고 전면 온돌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고구려의 벽화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일부 사람들이 입식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 온돌은 일반 민중들이 선호하는 시설이었을 뿐 지배계층은 온돌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중국이 입식생활을 한 관 계로 우리나라 지배층도 입식생활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해 노약자나 병자를 위한 공간, 즉 집의 일부분만 온돌을 들이다가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온돌이 일반화된 것이다.
4.	▶ 요약: ‘중국과 한국의 온돌’ 그러나 중국식 온돌은 방 전체에 대한 전면온돌이 아닌 일부분에만 시설한 부분온돌이었다는 점에서 흥미가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입식생활을 했고 고구려의 벽화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일부 사람들이 입식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중국이 입식생활을 한 관 계로 우리나라 지배층도 입식생활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해 노약자나 병자를 위한 공간, 즉 집의 일부분만 온돌을 들이다가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온돌이 일반화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인정과 접촉본능은 바로 온돌에서 연유한 것이다. 일제시대 한국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야나기[柳宗悅]는 그의 책에서 한국인들은 무엇보다도 정에 약하여 한국의 모든 예술은 인정에 넘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도 바로 이 정에 의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확실히 서구인들과 비교할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정에 약하다. 이 규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을 '접촉본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의 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아는 사람끼리의 악수도 유난히 그 흔드는 폭이 크고 동시에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 상대방의 어깨까지 두드린다. 귀한 물건이나 새롭고 신기한 것이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기보다는 꼭 만져 봐야 직성이 풀린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촉각에 예민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온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온열기를 통한 난방 방법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온돌의 특징은 열을 직접 피부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돌은 바닥 자체가 가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습관은 될 수 있으면 바닥과의 접촉을 넓히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촉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 요약: ‘한국 사람의 정과 온돌의 영향’ 우리 민족의 인정과 접촉본능은 바로 온돌에서 연유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정에 약하다. 이규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을 '접촉본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의 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아는 사람끼리의 악수도 유난히 그 흔드는 폭이 크고 동시에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 상대방의 어깨까지 두드린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촉각에 예민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온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온열기를 통한 난방방법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온돌의 특징은 열을 직접 피부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온돌이 생활에 자리 잡음에 따라 우리 생활의 여러 요소들도 파생되었다. 우리의 양반앉음새, 즉 둔부와 다리를 바닥과 최대한 접촉하는 앉음새는 이러한 온돌 습관에서 나온 것이다. a) <u>이에 비하여 온돌이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바닥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꿰어앉는 습관이 생기고 서양은 아예 바닥과의 접촉을 차단한 의자생활이 습관화된 것이다.</u> 또 이러한 앉음새에 맞게 배려한 것이 한복이다. 양복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으면 무릎부분이 나오고 스커트를 입고 바닥에 앉아도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이다. 따라서 남, 여 한복 모두 위의 저고리는 몸에 맞추되 바지나 치마의 경우는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우리들의 습관을 고려하여 많은 여유를 둬으로써 실용성을 우선하였다 할 수 있다. ▶ 요약: ‘온돌에 의한 생활 습관의 변화’ 온돌이 생활에 자리 잡음에 따라 우리 생활의 여러 요소들도 파생되었다. 우리의 양반앉음새, 즉 둔부와 다리를 바닥과 최대한 접촉하는 앉음새는 이러한 온돌습관에서 나온 것이다. 또 이러한 앉음새에 맞게 배려한 것이 한복이다. 남, 여 한복 모두 위의 저고리는 몸에 맞추되 바지나 치마의 경우는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우리들의 습관을 고려하여 많은 여유를 둬으로써 실용성을 우선하였다 할 수 있다. ▶ 삭제: a) 근거가 부족하고, 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서 삭제

6.	서양식 난방구조에서는 침대를 둔 침실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다용도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밥을 먹으면 식당이요, 손님이 오면 응접실이요,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고 주부가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이 되고 앉은뱅이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방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서양식 가옥 구조는 방의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독립시키다 보니 각각의 방은 하나의 용도만을 위한 단일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넓은 평수의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안방을 두고 그 뒤에 부부 침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
	▶ 요약: ‘온돌과 집의 구조’ 서양식 난방 구조에서는 침대를 둔 침실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다용도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밥을 먹으면 식당이요, 손님이 오면 응접실이요,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고 주부가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이 되고 앉은뱅이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방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서양식 가옥 구조는 방의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독립시키다 보니 각각의 방은 하나의 용도만을 위한 단일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7.	이러한 가옥 구조는 결국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가령 어린아이가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어 한밤중에 깨어났을 경우에도, 자기 옆에 있어야 할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바닥만을 보게 될 때에 이 어린이는 부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 삭제: 타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적 시각
8.	안방을 건너 침실이라는 불가침의 깊은 곳에서 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즉 자신의 무서움을 주체 못한 어린이가 큰 소리로 울어도 들리지 않는 곳에 부모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는 비록 서양식 교육 시각으로는 주체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어린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끈끈한 가족애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한 두 자녀만 두는 요즘에는 어느 집 아이나 남에게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인 주거 평면의 발전과 과학적인 난방 방법의 발달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양식 주거 형식으로 인해 온돌에서 연유된 우리의 끈끈한 인정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묘사이에 생긴다.
	▶ 요약: ‘난방 구조의 변화에 의한 정서 변화’ 합리적인 주거평면의 발전과 과학적인 난방방법의 발달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양식 주거형식으로 인해 온돌에서 연유된 우리의 끈끈한 인정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묘사이에 생긴다.

2) 어휘 및 문법

온돌의 역사는 바로 집의 역사이다.	
	문헌에 의하면 <u>구들이</u> 지금처럼 <u>방 전체에</u> <u>놓고</u> <u>아궁이를</u> <u>방 밖에</u> <u>두게</u> 된 <u>것</u> <u>은</u> 1) 단 기록 2) 단 상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현재의 ‘온돌’과 같은 것은 <u>고려 중기부터라고 한다.</u> 고려시대까지는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다가 3) 단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 <u>세종실록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온돌’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u> 4) 단 조선시대부터 5) 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	1) 어휘 단순화: 문헌(국통-고급) > 기록(국통-중급) 2) 문장 단순화, 어휘 상세화: 목표 어휘 ‘온돌’ 추가, ‘온돌’에 대한 정의 추가 3) 어휘 단순화: 중기(국통-고급) > 시대(국통-중급) 4) 어휘 단순화 5) 어휘 상세화 ▶ 기록에 의하면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현재의 ‘온돌’과 같은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 왔으나 ‘온돌’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그러나 중국식 온돌은 <u>방 전체에</u> <u>대한</u> <u>전면온돌이</u> 1) 상 중국에도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것이 있었다 2) 단 상 한국과 달리 <u>아닌 일부분에만 시설한 부분온돌이었다는 점에서</u> 흥미가 있다. 3) 상 부분적인 온돌 따라서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입식생활을 했고 <u>고구려의 벽화에 나타난 그림을 보</u> <u>면</u> <u>우리나라에서</u> 4) 상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일부 사람들이 입식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중국이 입식 생활을 한 관계로 우리나라 지배층도 입식생활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해 노약자나 병자를 위한 공간, 즉 <u>집의 일부분만 온돌을 들이다가</u> <u>조선 후기가 되어서야</u> <u>온돌이 일반화된 것이다.</u> 1) 문장 구조 상세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생략된 내용 추가 2) 문장 단순화, 어휘 상세화: 명시적 상세화 장치 ‘~와/과 달리’ 3) 문장 구조 상세화: 풀어서 짚어쓰기

	4) 문장 구조 상세화: ‘온돌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추가, 어휘 상세화: 2)에서 삭제된 부분 활용하여 정의 추가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 * 문장 구조 단순화: 불필요한 부분 삭제, 핵심 내용(밑줄 부분) 유지 ▶ 중국에도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것이 있었으나 한국과 달리 부분적인 온돌이었다는 것이 흥미를 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중국의 온돌처럼 일부분만 온돌을 두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구려의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u>우리 민족의 인정과</u> <u>접촉본능은 바로</u> 1) <u>단</u> 한국인 2) <u>상</u> 손이나 팔을 붙들고 인사를 하는 등의 3) <u>단</u> 접촉을 좋아하는 성격이 <u>온돌에서 연유한 것이다.</u> 4) <u>상</u> 어떤 사람은 온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정에 약하다. 이규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을 ‘접촉본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의 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아는 사람끼리의 악수도 유난히 그 흔드는 폭이 큼과 동시에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 상대방의 어깨까지 두드린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촉각에 예민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온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서양에서는 온열기를 통한 난방방법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u>온돌의 특징은 열을 직접 피부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u> 5) <u>단</u> 온돌은 6) <u>단</u> 느끼는 것
	1) 어휘 단순화: 의미를 명확하게 어휘 교체 2) 어휘 상세화: 뒤의 삭제된 부분의 내용 활용하여 예 추가 3) 어휘 단순화: 본능(국통-고급) > 성격(국통-초급) 4) 담화 상세화: 근거가 부족하면서 단정적인 표현 수정 5) 어휘 단순화 6) 어휘 단순화: 저빈도 어휘 ‘접촉하다’를 고빈도 어휘 ‘느끼다’로 교체 ▶ 어떤 사람은 한국인의 인정과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이나 팔을 붙들고 인사를 하는 등의 접촉을 좋아하는 성격이 바로 이 온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온돌은 열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돌이 생활에 자리 잡음에 따라 우리 생활의 여러 요소들도 파생되었다. 1) 단 온돌은 앉는 자세도 바꿨다 우리의 양반앉음새, 즉 둔부와 다리를 바닥과 최대한 접촉하는 앉음새는 이러한 온돌습관에서 나온 것이다. 2) 단 차가운 바닥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의자생활을 하는 반면 온돌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몸 전체로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또 이러한 앉음새에 맞게 배려한 것이 한복이다. 남, 여 한복 모두 위의 저고리는 3) 단 상 대신 앉기에 편하도록 옷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 4) 상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 5) 단 상의는 몸에 맞추되 바지나 치마의 경우는 6) 몸에 맞게 되어 있지만 7) 단 하의는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우리들의 습관을 고려하여 8) 바로 ~ 습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여유를 줌으로써 실용성을 우선하였다 할 수 있다. 9) 상 유난히 넓고 편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4.	1) 문장 구조 단순화 어휘 단순화: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 ‘우리 생활의 여러 요소 > 앉는 자세’ 2) 어휘 단순화: 고급 어휘를 삭제하고 풀어서 설명 3) 어휘 상세화: 명시적 상세화 장치 ‘대신’ 어휘 단순화: ‘앉음새에 맞게 배려한 것이> 앉기에 편하도록’ 문장 구조 상세화: 내용 추가 ‘옷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 4) 문장 구조 상세화: 풀어서 킷어쓰기 5) 어휘 단순화 6) 어휘 상세화 7) 어휘 단순화 8) 문장 구조 수정 9) 어휘 상세화
	▶ 온돌은 앉는 자세도 바꿨다. 차가운 바닥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의자생활을 하는 반면 온돌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몸 전체로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대신 앉기에 편하도록 옷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의 상의는 몸에 맞게 되어 있지만 하의는 유난히 넓고 편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바로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1) 상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돌은 집의 구조와 관계가 많다. <u>서양식 난방구조에서는 침대를 둔 침실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게 마련이다.</u> 2) 상 전체 난방을 할 수 없으므로 잠자는 침실에만 난방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러 공간은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다. <u>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방의 공간</u> 3) 단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는다. 따라서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u>활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다용도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u> 4) 상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밥을 먹으면 식당이요, 손님이 오면 응접실이요,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고 주부가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이 되고 앞은뱅이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방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서양식 가옥구조는 방의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독립시키다 보니 각각의 방은 하나의 용도만을 위한 단일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1) 문장 구조 상세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생략된 내용 추가 2) 문장 구조 상세화 3) 문장 구조 단순화: 문장 나누기 4) 문장 구조 상세화: 피동형을 능동형으로 수정 ▶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돌은 집의 구조와 관계가 많다. 서양식 난방 구조에서는 전체 난방을 할 수 없으므로 잠자는 침실에만 난방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러 공간은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다.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는다. 따라서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밥을 먹으면 식당이요, 손님이 오면 응접실이요,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 된다.
6.	합리적인 주거평면의 발전과 과학적인 난방방법의 발달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양식 <u>주거형식으로 인해</u> 1) 단 상 건물 형태와 난방 방식이 많이 반영되면서 2) 상 이러한 변화가 <u>온돌에서 연유된 우리의 끈끈한 인정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u> 3) 단 온돌과 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4) 상 없애 버리는 건 아닐지 <u>두려움이 묘사이에 생긴다.</u> 5) 단 두렵다 1) 어휘 단순화: ‘주거형식 > 건물 형태’ 문장 구조 상세화: 삭제 된 앞 문장의 내용을 활용한 내용 추가 ‘난방 방식이 많이 반영되면서’ 2) 문장 구조 상세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생략된 내용 추가

3) 어휘 단순화	
4) 어휘 상세화: 사라지다(국통-초급) > 없애 버리다(국통-중급)	
중급 수준의 어휘로 수정함으로써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5) 어휘 단순화	
최근 들어 서양식 건물 형태와 난방 방식이 많이 반영되면서 우리의 따뜻한 온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온돌과 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인정마저 없애버리는 건 아닐지 두렵다.	

3) 원문과 개작 전문 비교

원문	개작
문헌에 의하면 구들이 지금처럼 방 전체에 놓이고 아궁이를 방 밖에 두게 된 것은 고려 중기부터라고 한다. 고려시대까지는 빙돌, 화돌, 온기돌, 돌구 등의 이름으로 기록되다가, 성균관의 동·서재를 수리하면서 온돌 5칸을 만들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온돌'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가 되면 제주도에서도 온돌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부터 온돌이 우리 주거에 완전히 정착되어 안방과 아궁이, 그리고 부뚜막이 하나의 완전한 시설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현재의 '온돌'과 같은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 왔으나 '온돌'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기록으로는 5세기말에 씌어진 『수경주水經注』란 책에서 관계산(觀鷄山)이란 곳에 승려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사(觀鷄寺)란 절을 만들었는데 이 절의 밑바닥을 가로 세로로 소통이 되도록 돌로 연결하고 그 위를 흙으로 발라 밖에서 지피는 뜨거운 불기운이 온 방안을 덮혀 겨울을 났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이 고구려의 기록보다는 100여 년 앞서 있기는 하지만 이 절이 중국 문화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고구려와 접촉이 잦은 국경부근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X

그러나 중국식 온돌은 방 전체에 대한 전면온돌이 아닌 일부분에만 시설한 부분온돌이었다는 점에서 흥미가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입식생활을 했고 전면온돌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고구려의 벽화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일부 사람들이 입식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 온돌은 일반 민중들이 선호하는 시설이었을 뿐 지배계층은 온돌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중국이 입식생활을 한 관계로 우리나라 지배층도 입식생활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해 노약자나 병자를 위한 공간, 즉 집의 일부분만 온돌을 들이다가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온돌이 일반화된 것이다.	중국에도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것이 있었으나 한국과 달리 부분적인 온돌이었다는 것이 흥미를 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중국의 온돌처럼 일부분만 온돌을 두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구려의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인정과 접촉본능은 바로 온돌에서 연유한 것이다. 일제시대 한국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야나기[柳宗悅]는 그의 책에서 한국인들은 무엇보다도 정에 약하여 한국의 모든 예술은 인정에 넘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도 바로 이 정에 의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확실히 서구인들과 비교할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정에 약하다. 이규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을 '접촉본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의 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아는 사람끼리의 악수도 유난히 그 흔드는 폭이 큼과 동시에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 상대방의 어깨까지 두드린다. 귀한 물건이나 새롭고 신기한 것이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기보다는 꼭 만져봐야 직성이 풀린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촉각에 예민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온돌에서 유래된	어떤 사람은 한국인의 인정과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이나 팔을 붙들고 인사를 하는 등의 접촉을 좋아하는 성격이 바로 이 온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온돌은 열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온열기를 통한 난방방법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온돌의 특징은 열을 직접 피부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돌은 바닥 자체가 가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습관은 될 수 있으면 바닥과의 접촉을 넓히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촉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온돌이 생활에 자리 잡음에 따라 우리 생활의 여러 요소들도 파생되었다. 우리의 양반앉음새, 즉 둔부와 다리를 바닥과 최대한 접촉하는 앉음새는 이러한 온돌습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비하여 온돌이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바닥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꿇어앉는 습관이 생기고 서양은 아예 바닥과의 접촉을 차단한 의자생활이 습관화된 것이다. 또 이러한 앉음새에 맞게 배려한 것이 한복이다. 양복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으면 무릎부분이 나오고 스커트를 입고 바닥에 앉아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남, 여 한복 모두 위의 저고리는 몸에 맞추되 바지나 치마의 경우는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우리들의 습관을 고려하여 많은 여유를 둬으로써 실용성을 우선하였다 할 수 있다.	온돌은 앉는 자세도 바꿨다. 차가운 바닥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의자 생활을 하는 반면 온돌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몸 전체로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대신 앉기에 편하도록 옷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의 상의는 몸에 맞게 되어 있지만 하의는 유난히 넓고 편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바로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식 난방구조에서는 침대를 둔 침실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방의 공간활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다용도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밥을 먹으면 식당이요, 손님이 오면 응접실이요,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고 주부가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이 되고 앓은뱅이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방이 된다. 그러나 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돌은 집의 구조와 관계가 많다. 서양식 난방 구조에서는 전체 난방을 할 수 없으므로 잠자는 침실에만 난방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러 공간은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다. 그러나 온돌 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 가능

금의 서양식 가옥구조는 방의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독립시키다 보니 각각의 방은 하나의 용도만을 위한 단일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넓은 평수의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안방을 두고 그 뒤에 부부침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	하다. 밥을 먹으면 식당이요, 손님이 오면 응접실이요,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 된다.
이러한 가옥구조는 결국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가령 어린아이가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어 한밤중에 깨어났을 경우에도, 자기 옆에 있어야 할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바닥만을 보게 될 때에 이 어린이는 부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X
안방을 건너 침실이라는 불가침의 깊은 곳에서 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즉 자신의 무서움을 주체 못한 어린이가 큰 소리로 울어도 들리지 않는 곳에 부모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는 비록 서양식 교육시각으로는 주체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어린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끈끈한 가족애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한두 자녀만 두는 요즘에는 어느 집 아이나 남에게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인 주거평면의 발전과 과학적인 난방방법의 발달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양식 주거형식으로 인해 온돌에서 연유된 우리의 끈끈한 인정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묘사이에 생긴다.	최근 들어 서양식 건물 형태와 난방 방식이 많이 반영되면서 우리의 따뜻한 온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온돌과 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인정마저 없애버리는 건 아닐지 두렵다.

4) 개작 전문

개작 전문
기록에 의하면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현재의 ‘온돌’과 같은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 왔으나 ‘온돌’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에도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것이 있었으나 한국과 달리 부분적인 온돌이었다는 것이 흥미를 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중국의 온돌처럼 일부분만 온돌을 두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구려의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인의 인정과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이나 팔을 붙들고 인사를 하는 등의 접촉을 좋아하는 성격이 바로 이 온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온돌은 열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돌은 앉는 자세도 바꿨다. 차가운 바닥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의자생활을 하는 반면 온돌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몸 전체로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대신 앉기에 편하도록 옷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의 상의는 몸에 맞게 되어 있지만 하의는 유난히 넓고 편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바로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돌은 집의 구조와 관계가 많다. 서양식 난방구조에서는 전체 난방을 할 수 없으므로 잠자는 침실에만 난방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러 공간은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다. 그러나 온돌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밥을 먹으면 식당이요, 손님이 오면 응접실이요,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 된다. 최근 들어 서양식 건물 형태와 난방 방식이 많이 반영되면서 우리의 따뜻한 온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온돌과 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인정마저 없애 버리는 건 아닐지 두렵다.

<부록 1>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등급별 텍스트 유형

1. 텍스트 유형 - 초급 수준

1) 교육용 대화문

투 이 민수 씨, 제 친구 아피아 씨예요. 인사하세요.
민 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아피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 수 아피아 씨는 학생이에요?
아피아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니예요. 요리사예요.
민수 씨는 회사에 다니세요?
민 수 네, 저는 회사에 다녀요.

2) 교육용 진술문

저는 요즘 태권도를 배우러 다닙니다. 전에 본 드라마에서 태권도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아주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러 가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인사입니다. 태권도를 할 때는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잘하지는 못하지만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즐겁습니다.

3) 명함



4) 학년/반



5) 나가는 곳(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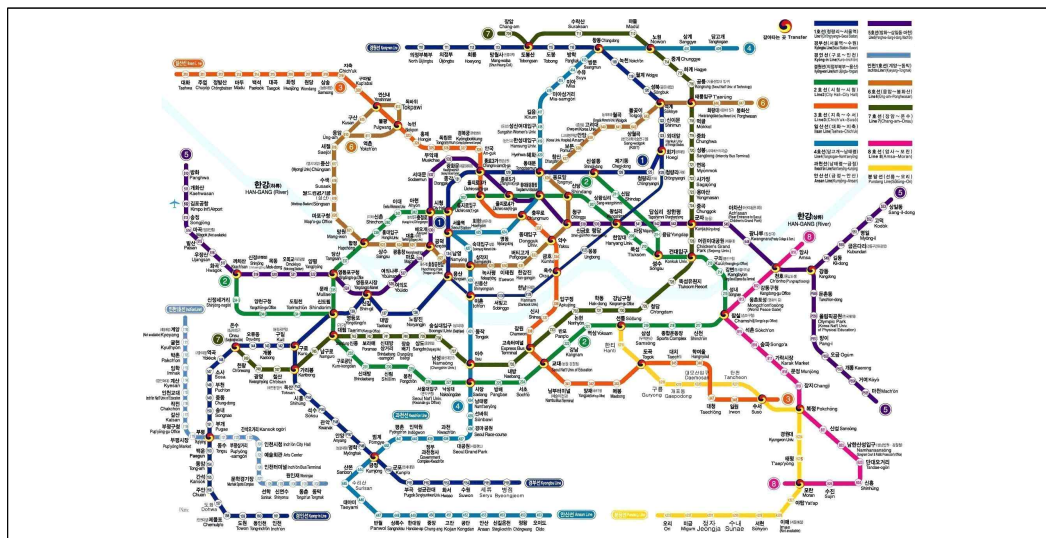
6) 주소



7) 간판



8) 지하철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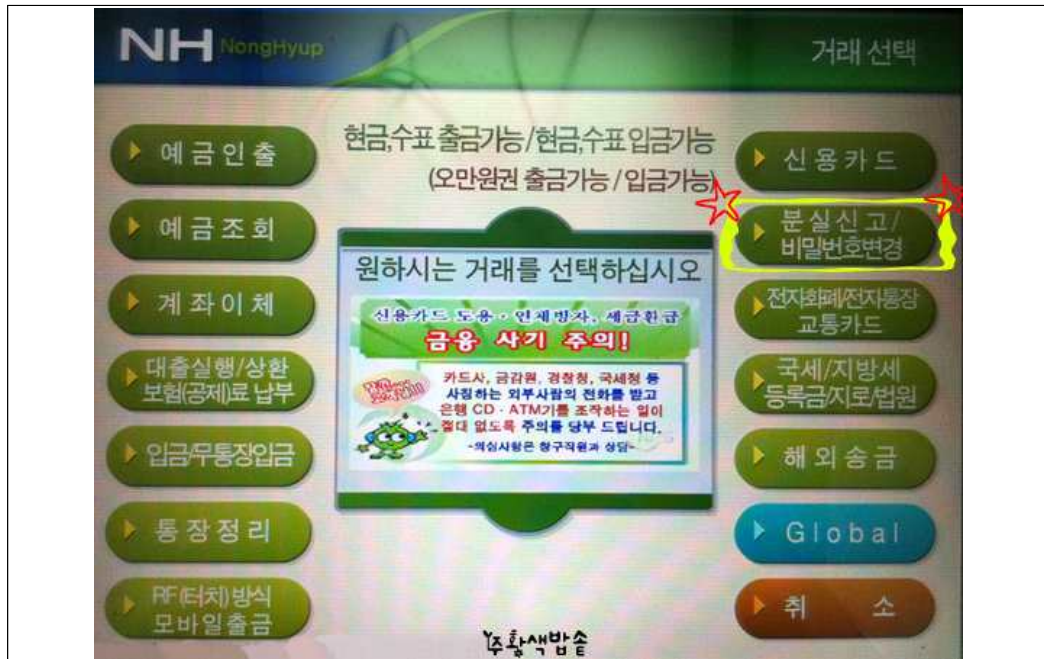
9) 일기예보

▶ 주간 예보				
어제 (토요일 4월 19일)		오늘 (일요일 4월 20일)		내일 (월요일 4월 21일)
 맑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최저 13℃ 최고 26℃		최고 27℃ ▶ 자세한 설명 강수확률 : 오전 0% 오후 20%		최저 15℃ 최고 25℃ 강수확률 : 오전 20% 오후 20%
화요일 4월 22일	수요일 4월 23일	목요일 4월 24일	금요일 4월 25일	토요일 4월 26일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후 갸	 구름많음	 흐리고 비	 흐린 후 갸
15℃ 22℃	12℃ 16℃	9℃ 18℃	10℃ 17℃	10℃ 18℃

10) 내복약 정보



11) 현금 지급기 메뉴



12) 약도



13) 간단한 안내

“ 송천서회 송년회 안내 ”

한해의 끝자락 신묘년을 이틀 남겨 놓고 한자리에
모여 조출한 송년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1년 12월 29일(목) 오후 6시30분

장 소 : 양반댁 ☎(02)733-5507

회 비 : 20,000원

14) 메뉴

한식전문

식사류

백반-----	7,000
궁중한식-----	7,000
된장찌개-----	5,000
김치찌개-----	5,000
비빔밥-----	4,000
두부찌개-----	5,500
설렁탕-----	6,000
갈비탕-----	6,000
동태찌개-----	6,000

안주류

도토리묵---	4,000
파전-----	4,000
소주-----	4,000
맥주-----	4,000



15) 초대장(결혼 청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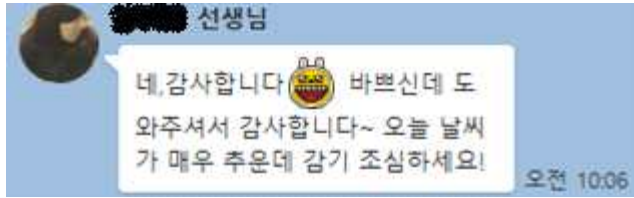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른과 친지분들의 보살핌과
이끌어주심으로 성장한 이들 두 사람이
이제 들어있던 인생을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시작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자리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던 더욱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박준영·권태자 의 아들 성만
박동연 의 딸 수진

2015년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신촌원즈호텔

신촌원즈호텔 TEL. 02-719-5900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31-11
버스
신촌역 8차
지선버스 : 5711, 5712, 5713, 5714, 5716, 7016, 7611, 7613
간선버스 : 110, 270, 271, 602, 603, 604, 721, 730, 733
신촌정심역 8차
지선버스 : 5711, 5712, 5713, 5716, 7011, 7016, 7024, 7712, 7911, 7737
간선버스 : 110, 163, 170, 171, 172, 270, 273, 275, 472, 633, 721
광역버스 : 1000, 1100, 1200
지하철 : 2호선 신촌역 2번출구 5도보 1분가량

16) 간단한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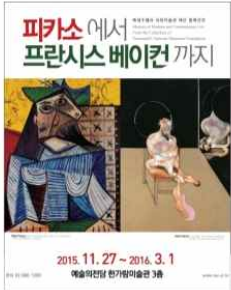


3) 주택 매매 안내문

갈매동 대구매	문산동 상가매	임제동 상가매	도동 아파트매	반포 아산리 전매
▶대205㎡ 건413㎡ 부165㎡ -원13, 투3, 주안세대1 -10M도로로, 임대차상의 위치 ▶보4억2천5백 월240만 용1억5천 월이자43만 투자금 1억3천4백만원 ▶매7억7천	▶전용면적116㎡ 분양면적71㎡ -문산동 법원 접합형 정모 맞은편 -15층 건물중 2층 -현재 파투습 관리 상업중 ▶보1천5백만 월130만 용1억5천 월이자42만 ▶매2억8,500	▶전용면적158㎡ 분양면적267㎡ -노후 3지구 최고의 상권 -40m×40m까지 -7층 건물중 4층 -현재 소아과 병문함대 ▶보8천 월170만 용3억 (월이자69만원) ▶매4억4,500	▶대182㎡ 건331㎡ -자랑3층 원룸18 -2012준공 각세대 -물류선 화정실 비대까지 -8m×5m 각지 앞뒤까지 화정 -노후대까지 보양할 수 있는 건물 ▶보1억7천5백 월420 용1억6천 매6억2천 ▶매6억2천	▶전574㎡ -보통 권리 지역 2차선 도로변 -건축비가 100% -전원주택, 전용차실, 학교의 위치임이다 -투자가치 확실한 위치임 -후청 불건립 ▶매2억6,000

★투자물건 다량보유★ 전생연분공인 ☎042)524-8924

4) 공연 소개



피카소에서 프란시스 베이컨까지

2015. 11. 27 ~ 2016. 3. 1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제목	피카소에서 프란시스 베이컨까지
기간	2015.11.27(금) ~ 2016.03.01(화)
시간	11:00~19:00 (3월은 11:00~20:00)
장소	한가람미술관 제5전시실, 제6전시실
가격	성인 (만 19세~64세/대학생 및 일반): 13,000원 / 청소년 (만 13세~18세/중,고등학교생): 10,000원 / 어린이 (만7세~12세/초등생): 8,000원 / 유아 (36개월 이상~미취학아동): 6,000원
할인	※할인결제는 미술관 현장에서 결제가능합니다. ※할인 해당 시 중복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장연령	전체관람
홈페이지	
주최	예술의전당
문의	02)580-1300
기타	※ 매월 마지막 월요일 '휴관'

2015. 11. 27 ~ 2016. 3. 1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문의 02.580.1300 www.sac.or.kr

피카소와 샤갈, 워홀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 20세기 서양미술 거장의 작품 100점 -

유화, 석판화, 조각 등 총 100점의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 24점, 샤갈Marc Chagall의 작품 9점,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 15점,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 10점 등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들에게 집중하여 그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추상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초기작부터 자연의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킨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구성, 입체파 화가 피카소가 그린 연인의 초상, 순수하게 시각적 재현에 몰입한 바사렐리의 '움아트' 미술, 팝아트를 대표하는 워홀의 '마릴린 엔로'까지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이다.

현대 영국계를 대표하는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도발적인 회화를 만나다.
20세기 표현주의 거장,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15점을 감상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유화 「Figure at a washbasin」 및 석판화 「Triptych」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이다.

Don't Worry! 꼭!

항공사별, 짚어서 가뵤하게 유럽가자!

AIR FRANCE AF Holiday @ Europe

AF에어프랑스로 즐기는 유럽 여행
파리 스푼 오버 가능
플라잉블루 마일리지 적립가능

조기 예약 이벤트!

- 이벤트기간: 2009.08.31 까지 출발자.
- 대상 : 하단 유럽 8대 항공사 에어텔 구매자
- 상품 : 시티투어 무료 서비스

일일 시티투어 Go
할인 유레일패스 Go

7

공짜로 다 씁니다! "7대 럭키 특전"

- ① 기념품 꼭배개
- ② 유럽 5대 박물관 가이드 투어 MP3음원&안내책자
- ③ 여행을 안전하게
- ④ 알티 콘센트
- ⑤ 1억 원 해외 여행자보험
- ⑥ 네임택 & 어관커버
- ⑦ 음프리요호 할인권(슈우즈)

에어프랑스	네덜란드항공	에미레이트	루프트한자	오스트리아	핀에어	케세이퍼시픽	대한항공
-------	--------	-------	-------	-------	-----	--------	------

가나다순

요일순

☐ 전체채널
 ☐ KBS1
 ☒ KBS2

출영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TV메인 바로가기

드라마	연예오락	시사고양	어린이
【월~금】 다 잘될 거야	【월】 안녕하세요	【월~금】 여유만만	【월~금】 자동차공부책상...
【월~금】 TV소설 별이...	【월】 위기탈출 넘버원	【월~금】 지구촌 뉴스	【월~금】 [화면해설] 후...
【월/화】 무알학교	【화】 유비병크2	【월~금】 2TV 아침	【월~목】 TV유치원
【월/화】 오 마이 비너스	【화】 우리동네 예체능	【월~금】 [화면해설] 후...	【금】 누가누가 잘하나
【수/목】 장사의 신 - 객...	【화】 1 대 100	【월~목】 동물의세계	【금】 로보텍스
【토/일】 부탁해요 엄마	【수】 글로벌 남편백서...	【월~목】 자동차공부책상...	【금】 터닝메카드
【토】 KBS 드라마스페셜	【목】 비타민	【월~목】 2TV 저녁 생생...	
	【목】 해피투게더3	【월~목】 2TV 저녁 생생...	
	【금】 나를 돌아봐	【월~목】 TV유치원	

국제시장

그 때 그 시절,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장진웅 장혜남 김미란 김윤기 등 주연
2014.12

THE NUT CRACKER

2015 예술의전당 & 국립현대미술관
호두까기인형
2015.12.18Fri - 27Sun
이름없는 연인들, 오 불타는 사랑

[illegible]

9) 플래카드의 기본 정보



10) 구인 광고

**2016년 상반기
세아상역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 모집요강 •

- 채용인원 : 00명
- 모집분야 : 해외영업 00명, 영업지원 0명, 경영지원 0명, 원헬스/세아스피닝 등 계열사/해외지사 지원 (해외근무)
- 자격요건
 -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중 2016년 1월 입사가능자 (전공무관)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지사 근무 가능자 및 해외근무에 결려사용가 없는자
 - 공인어학성적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함/필수 (단, 영어권 해외대학 졸업자는 면제)
- 우대사항
 - 외국어 우수자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중국어, 미얀마어, 불어, 크레올어 등)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우대
- 채용절차
 - 서류전형 (11월 초) > 온라인 인성검사 (11월 초) > 1차 실무 면접 및 영어회화능력 Test (11월 중순) > 2차 경영인 면접 (12월 초)
 - 재용검진 (12월 중순) > 최종합격 (입사예정일 2016년 1월 4일) ※ 채용 절차 및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5년 10월 7일 (수) ~ 2015년 11월 1일 (일)
 - 접수방법 : 세아상역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 급여수준 : 4,450만원/주 (대졸 신입 초봉, 군포 가산), Incentive 별도

세아상역(주) · 세아아인스(주) · 주연디에프 | JOINUS | COMPAGNA | YETIS | ysb | TRUGEN | ITATE

11) 영화평

형거게임: 더 파이널			영화예매
감독: 프랜시스 로렌스 출연: 제니퍼 로렌스, 조쉬 허처슨			
박평식	재미는 덜해도 의미 있는 마무리	★★★★☆	6
장영엽	영어덜트 소설 원작 영화의 한계를 멋지게 극복해내다	★★★★☆	8
김성훈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기엔 다소 심심한	★★★★☆	6
송경원	왜 굳이 2편으로 나누었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 잘 나눴다	★★★★☆	8
이예지	온전하게 완성해낸 여성 영웅 서사의 피날레	★★★★☆	7
김현수	재미보다 의미가 앞선 독재자의 최후	★★★★☆	6
김혜리	미덕은 소진되고 활력은 고갈됐다. 그래도 땡큐 캐티스!	★★★★☆	4

12) 인터넷 댓글

aled****	
김선영씨 대단하시네요 표정하나 말씨하나에도 연기내공이 묻어납니다 아직 젊은분인데도 어찌면 그리 구수하고 친근한 동네아지매같은지 ㅋ 찜찜한 살아있는 연기를 조만간 다른 작품에서도 꼭볼수있기를	
2015.11.20 오후 11:41	신고
답글 0	공감 135 비공감 0
suri****	
진짜평평을엿네요..너무마음이시린장면이었어요..엄마가있고또엄마가되면누구나다아는그맘..	
2015.11.20 오후 10:44	신고
답글 0	공감 124 비공감 1
carp****	
내 나이..마흔셋!! 두 아들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며느리로...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2015.11.20 오후 9:51	신고
답글 0	공감 110 비공감 3

13) 노래 가사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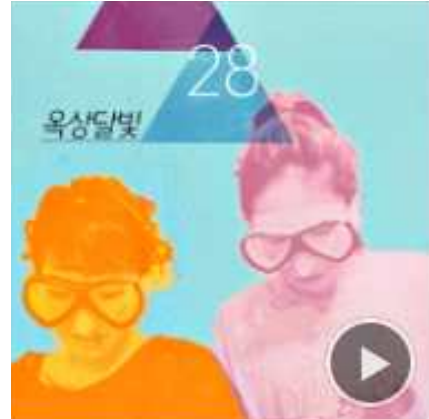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 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날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14) 책 제목



15) 안전 매뉴얼

소방안전 매뉴얼

화재 · 구조 · 구급 · 응급의료상담(병원 안내 등)은 긴급전화 119로 연락하세요.

화재 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외쳐 다른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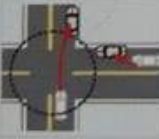
화재 신고 방법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르고 화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버튼을 누르거나 개통이 안된 휴대전화도 긴급신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소방차 출동 시 양보방법





1 교차로부근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3 편도1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2차로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



5 편도3차로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 (좌우)로 양보운전

3. 텍스트 유형 - 고급 수준

1) 백과사전

매머드[mammoth, *Elephas primigenius*]

약 480만년 전부터 4천년 전까지 존재했던 포유류이며 긴 코와 4m길이의 어금니를 가졌다. 혹심한 추위에도 견딜수 있게 온몸이 털로 뒤덮혀 있었지만 마지막 빙하기 때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적세 중기부터 후기에 걸친 빙하기에 생존하였다. 특히 중기에 생존했던 것은 고형(古形) 매머드라고 한다. 크기는 3m~5.5m 정도로, 코끼리로서는 중형이나 대형의 부류에 든다. 어금니는 엘레파스라의 공통적 특징인 능판(稜板)이 많이 모여서 빨래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어금니는 굵고, 나선상으로 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70만 년 전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유럽 등지에 있던 남부매머드(southern mammoth)는 추위로 절멸하고, 한대지방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매머드의 개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30만 년 전, 털복숭이 매머드와 같은 추위에 강한 매머드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1만 년 전인 홍적세 말에 절멸하였다. 현재까지 얼음 속에서 죽은 매머드가 동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알래스카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어 화석코끼리 중에서 잘 알려져 있다. 매머드의 절멸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설, 인류사냥설 등의 가설이 있지만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몸은 약간 길고, 온몸이 담갈색 또는 암갈색의 긴 센털로 덮였으며, 피하지방이 두껍게 발달해 있다. 진화상으로 고형 매머드는 온난한 기후에 적합했고, 그 중 일부가 한랭지에 적응하여 전형적인 매머드가 되었다.

매머드는 인류와 관계가 깊은데, 구석기시대 후기에는 대형동물의 대표로서 사냥의 첫째 대상이었다. 그 당시의 동굴벽화에 매머드 사냥 그림이 묘사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관계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유라시아·북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였으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5년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에서 골격화석이 발견되었고 1996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어금니와 골격화석이 발견되었다.

2) 시

첫눈 내린 오늘

엄홍식

첫눈이란다.
커튼을 젖히고 두텁게도 닫혀있던 창문을 모두 열어
수줍게 손을 내민다.
내려 앉기가 무섭게 녹아들어 금새 손바닥이 축축해진다.

그 손으로 새삼스러운 친구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첫눈이라니, 사치스러운 지연정 젖은 손 끝에 리본 하나쯤은 묶어줘야
섭섭치 않으리라 생각했다.
버릇처럼 자판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는다.
흐릿한 시간을 걷어내고 꼬집어낸 기억엔 적지않은 떨림이있다.
그리고 무엇도 쓸 수 없었다.

어디있는지도 모를 지금의 내 마음은
설레이지도, 어느 추억에 아련하지도, 두근거리지도 않았다.
손 끝은 젖었는데 첫눈이란 것이 내리지 못한 내 마음이 슬펐다.
그것을 고이 담아 번져내지 않은 손으로 나는,
무엇도 할 수가 없었다.
오로지 그뿐이었다.

3) 시사 프로그램 자막



4) 환영사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18기 회장 김하수입니다.

리더쉽과 스피치 19기 개강식을 빛내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과 동료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9기 후배 여러분!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서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란 낱말 속에 감긴 의미가 무엇일까를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란 우리의 현재 생활에 미래가 침투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찾아, 이상을 찾아, 리더쉽과 스피치 19기 과정을 선택한 후배님들의 앞날에 중단 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이 가득하기를 염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15주란 긴 시간을 함께 할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개강을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환영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3일
18기 회장 김 하 수

5) 인터넷 댓글

세실리아

어린 학생이 교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 했는데 1억여원의 보상이 전부인가. 그동안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들.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지독한 외로움과 무서움....

이 따위 돈 몇푼으로 지긋지긋한 이 나라 대신 하늘나라를 선택한 아이와 유족에게 무슨 보상이 되겠는가. 보상은 커녕 재발 방지에 손톱 만큼의 효과는 있는 것인가. 교육청은 물론 해당 학교측 책임자와 선생들 그리고 아이를 죽음으로 내 몰았던 같은 반 아이들 중 주모자를 색출해서 생활 기록부에 빨간 줄을 그어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2015.12.01 21:48 신고

답글 1 ▼

👍 17 🗨️ 1

6) 예능 프로그램 자막



7) 만화



8) 신년사

2015년 대통령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결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9) 대자보

김운영, 그리고 고명우, 윤호산, 손영홍을 지지합니다.
 한 끼를 굶어봤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머리를 깎은 제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뺨뺨머리로 내리 끼니를 거르고 있을 당신들을 그려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단지 당신들의 건강이 염려되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집요하게 묻고 있는 '굶고 그름'과 '정신과 병행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고등교육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등록금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기 힘들습니다. 등록금 인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해보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에 저항하겠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삭발'과 '단식'이라는
 저천 단어에 겨여진, 당신들의 고민과 의분과 믿음을 지지합니다.
 등록금을 문제로 여긴 수많은 선배들이 때때로 뜨겁게
 피어올랐지만 역시 수많은 봄 개나리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움트려는 개나리에 맞서며 당신들은 또
 미련함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철모르는 미련함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간적인 정'으로 당신들이 무탈하게 월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지체대안추진위원회 09 국문 이유진
 '교지西江' 편집장위원

10) 연구 계획서

입학 후의 연구계획서

성명	유재성	수험번호	12220514
지원사항	학위과정: 석사	학과: 통계	전공: 응용통계학

연구과제명 : Excess-3 Code에 의한 무한 자릿수 연산이 가능한 통계분석 알고리즘 재구현

1. 연구의 중요성 및 국내외 연구현황

근삿값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오차도 발생한다. 이 작은 오차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작은 오차에도 민감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구한 값과 컴퓨터로 구한 계산 결과, 즉 근삿값은 정확히 같지 않다. [1], 또 이러한 근삿값들을 총합하여 계산에 미칠 때 그만큼 오차의 범위가 커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근삿값이 아닌 값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나 통계패키지들은 자주 사용하는 무리수(π , e , $\sqrt{2}$ 등)를 계산하거나 출력하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데, e 와 $\exp$ 같은 경우는 비록 자주 사용하지만 전부 표현하기엔 상당히 많은 자릿수를 차지하게 때문에, 대체로 출력 자릿수에서 round off한 값으로 출력하고 있다. 한편 출력할 수 있는 변수(혹은 상수)의 크기도 제한이 있기 마련이며,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와 통계 소프트웨어에는 정류한 하드웨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오버플로 한계를 개선한 하위용 지언속 극복은 하지 못하였다. 정리가 잘안한 법주 형에서는 Java의 Mathset class만이 출력 값을 메모리에 둘라 할당하여 상당히 많은 자릿수 간 연산이 가능하였다. 하위용 Java의 BigInteger, BigDecimal 함수는 응용프로그래밍 개발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Mathematica도 메모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요구를 받을 시 shut down 되었다.

출력을 최대한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수용할 수 있는 digit을 확장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ALU의 설계 및 확장을,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메모리와 저장장치 간의 총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환경 모두 최적화를 고려한다. 하드웨어는 비용을 줄인다면 물리적으로 digit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제곱근과 정해상 [2]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한, 최솟값과 유향성 [3], 허성일 외 3인 [4] 등은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오성현 [5], 유영주 [6], 이상우 [7]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계산상의 데이터 처리 및 visualizing도 중요하며, 이동욱 외 3인 [8]이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저장관리자를 구현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환경 하에서 digit 확장 자체에 대한 연구 동향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 보다는 π 와 같은 무리수를 계산해내기 위한 연구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구에서 digit 확장 출력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 있는데, Jeremy Gibbons가 이와 같은 연구를 하였다. [9].

2.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목표

첫째, 하드웨어 성능의 제약을 최대한 배제 계산할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큰 자릿수 계산을 꾸준히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둘째, 위에서 구한 수를 활용하여 기존 통계분석 알고리즘을 재구현하고 기존 방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한다.

셋째, 큰 자릿수 연산을 저장하지 않는 오픈소스 통계 패키지의 재작 프로젝트 (예 : R Project)에 기여한다.

나. 연구내용

Excess-3 Code(3초과 코드)는 BCD Code에서 3을 더하여 얻은 디지털 코드로서, 그 결과를 4비트 2진수로 변환한 것이다. 연산은 하드웨어의 2진수의 가산용과 연산 명령을 동일하게 한다. 가산 가산의 경우 두 입력이 a, b일 때, sum은 입력 a, b의 배의 입력 C_{in} 을 모두 합하고 Excess-3 Code로 보정하기 위해 더 다해진 3을 뺀다. 세 입력의 합 a, b, C_{in} 이 6 이상인 경우는 이 합에서 10을 추가로 뺀주며 C_{out} 은 1이 되고, 15 이하인 경우는 합을 그대로 출력하고 C_{out} 은 0이 된다. 행렬은 Excess-3 코드의 자기보수와 성질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공성과 나눗셈이 문 제인데, 2진 코드 혹은 BCD 코드로 임시 전행하여 연산한 후 다시 Excess-3 코드로 재변환하거나,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컴퓨터로 연산할 때 이 C_{out} 에 대한 처리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메모리에서 처리하다가 어느 정도의

10진수	BCD	Excess3
0	0000	0011
1	0001	0100
2	0010	0101
3	0011	0110
4	0100	0111
5	0101	1000
6	0110	1001
7	0111	1010
8	1000	1011
9	1001	1100

<표 1> 10진수에 해당 되는

BCD코드와 Excess-3 코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1) 사설

[사설] '금수저·흙수저 계급론'에 좌절한 청년들을 어쩔 것인가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금은동(金銀銅)·흙수저의 '수저 계급론'은 빈말이 아니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970~2013년 '한국에서의 부(富)와 상속'을 조사한 결과 자산 형성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한 비중이 1980년대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0%로 급증했다. 한 해 자산이 1000만 원 증가했다면 1980년대에는 730만 원을 스스로의 저축으로 불렀지만 2000년대에는 580만 원만 저축이고 나머지 420만 원은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면서 자수성가할 기회가 줄어들고, 상속 증여가 없이는 부자 되기 힘들어진 사회로 바뀌고 있다. 김 교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론'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富)의 불평등 현상을 지적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분석 방법을 한국사회에 적용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피케티의 연구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한국 청년세대도 '부모가 최고의 자산'이라며 '세습 자본주의'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영어 표현을 확대해서 부모의 재력이 좋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살 수 있는 사람을 금수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에 비유하는 '수저 계급론'이 유행처럼 나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맨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기성세대는 요즘 청년들에게 "노력은 안 하면서 눈만 높다"고 비판하지만 청년들은 '노오력'해도 안 된다고 좌절하며 사회를 원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자국 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고 했다. 한국은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의 10.1배(2013년)로 OECD 평균 9.6배보다 높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지나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생기는 '결과'의 불평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린 사회는 미래가 어둡다.

어제 여덟 번 기운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평생 모은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KAIST에 기부한 노부부가 화제가 됐다. 금수저를 대물림 하지 않는 기부문화 확산과 함께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청년들의 좌절을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해법을 찾는 데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록 2> 한국어 읽기 교육의 유의 사항 및 지침

한국어교육에서 읽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자들을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길러냄과 동시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교사는 먼저 학습자의 읽기 발달에 대한 사려 깊은 진단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등급 단계에 견주어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으며 어떤 부분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기능이나 전략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읽기 교사의 역할은 자신이 능숙한 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숙한 독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먼저 읽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가 그 과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교사의 조력 활동을 줄여나감으로써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중심으로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던 과거에는 언어나 텍스트 자체를 중시하는 상향식 이해 과정의 읽기 모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즉, 읽기 활동의 과정에서 어휘나 문법의 해독이 중시되었고 이때 학습자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이고 수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는 텍스트와 독자의 역할을 모두 중시하며, 학습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상호작용식 이해 모형이 도입되면서 학습자들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해석하고 유추하거나 비판하는 적극적인 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읽기 학습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교육 현장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어 읽기 지도가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여전히 읽기를 독자인 학습자의 역할보다는 글의 해석 중심으로만 생각해 읽기 교재의 개발에서부터 평가까지 여러 측면에서 교육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읽기 지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초급 단계의 읽기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의 정확한 발음이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초급의 읽기 지도가 정확한 발음 지도에 치중되어 거의 대부분 텍스트를 낭독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읽기 지도에서 발음 강조는 자칫 의미 이해의 지도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친 낭독 위주의 수업은 지양해야 한다.

초급 단계에서는 해독과 관련된 읽기 지도가 강조되어야 하고,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 지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역시 읽기를 문자의 음성화인 해독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읽기를 지도한다는 것은 문자의 음성화 즉,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 것만을 지도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읽기 지도가 초급 단계에서 완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읽기 수업이 텍스트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가며 문법 사항이나 어휘의 풀이, 그리고 글 내용에 대한 해설 위주의 수업으로 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읽기 지도에 대한 위와 같은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읽기 목적에 따라, 학습 환경에 따라 지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읽기 지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습자들에게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 2) 학습자들의 읽기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3) 다양한 읽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 4) 교사의 관점이 아닌 학습자의 관점에서 읽기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 5) 읽기 교육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을 이해하고 이를 읽기 지도에 적용해야 한다.
- 6)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 7)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능동적인 읽기를 유도해야 한다.
- 8) 성취 수준에 따라 도전적인 읽기 수행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 9)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수업과 소규모 모둠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 10)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단순히 듣는 것을 지양, 학생이 적극적으로 글을 읽고 토론하고, 동료와 협의하고, 글에 반응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11) 학습자들에게 읽기 발달이나 학습 상태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지도 방향을 읽기 전, 중, 후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읽기 전>

- 읽기 수업 자료를 선정할 때는 되도록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너무 인위적인 내용이나 사회적, 문화적 편견이 담긴 텍스트는 피한다.
- 읽기 자료를 선정한 후에는 텍스트에서 제공할 정보의 양과 질을 분명히 계획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 읽기 수업의 도입에서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읽기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를 통해 텍스트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인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읽기>

-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읽도록 하지 않고 글을 읽는 목적과 이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등의 읽기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다.
- 읽기 과정마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전략을 제공한다.
- 내용의 완벽한 이해가 아닌, 주요 정보나 필요 정보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텍스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는 연습을 통해 읽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텍스트 낭독은 초급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는 목록을 통해 의미 이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글을 읽는 중 모르는 어휘가 있을 시 사전을 찾지 말고 문맥이나 전후 맥락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텍스트에 제시된 표

현을 문맥에서 독립적으로 읽지 않도록 한다.

- 텍스트에 제시된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는다. 개별 단어와 표현의 이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파악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
- 읽기란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의 이해 양상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한다(텍스트 내용을 한 가지 해석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텍스트를 읽은 직후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할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 텍스트 유형이나 읽기의 목적에 따라 텍스트 처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읽은 후>

- 읽은 후에는 교사 주도의 활동보다는 과제 수행, 토론 등 학습자 중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
- 분명한 평가를 통해서 읽기의 학습 결과를 명확히 확인시킨다.

연구 책임자: 이정희(경희대 국제교육원, 부교수)
공동 연구원: 김은애(서울대 언어교육원, 대우조교수)
 김현진(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특임교수)
 심상민(경인교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송금숙(고려대 국제어학원, 전임 강사)
 이보라미(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연구 보조원: 장문정(경희대 국제교육원, 강사)
 정미향(경희대 국제교육원, 강사)
 김지혜(경희대 국제교육원, 강사)
 이정민(서울대 언어교육원, 강사)
 이소연(이화여대 언어교육원, 강사)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발행인 송 철 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방화3동 827번지)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5년 12월 10일

발행일 2015년 12월 10일

인쇄 행림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